해박한 식견을 지니신
김정일동지

주체112(2023)년

차　례

3. 문화 94

머리말

식견은 원래 보고 듣거나 배워서 알고있는 여러가지 지식과 견문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견문은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탐구와 사색, 분석과 판단의 밑천이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아는것이 많아야 모든것을 폭넓고 깊이있게 과학적으로 사유할수 있다.

지식은 곧 힘이며 지식의 힘은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전진할수록 더욱더 커진다.

지식은 사람의 가치를 빛내이는 보석이기도 하다.

시대와 혁명을 이끄는 위인들의 활동과정은 식견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해박한 지식과 견문은 위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특질로 된다.

해박한 식견을 지닌 위인이라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발전의 추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옳바로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줄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해박한 식견을 지니신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정치도 잘하고 군사지휘도 잘하며 철학, 경제학, 정치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도 잘 알고 글도 잘 씁니다.》

장구한 인류력사에는 해박한 식견으로 하여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해박한 식견은 기껏해서 어느한 분야와 한 부문에만 국한된것이였거나 심도와 높이에서 일정하게 제한된것들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은 매우 폭넓고 다방면적이다.

그이께서는 인류가 력사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모든 부문,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폭넓고 다방면적인 식견을 훌륭히 지니시였다. 어느한 령역이나 한 분야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 정통하여 모르는것이 없고 막히는데가 없으며 못해내는 일이 없는 해박한 식견을 지니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은 자연과 사회,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비상히 폭넓은 식견, 다방면적인 식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건설과 혁명무력건설, 인민정권건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부문들도 다 환히 꿰들고계시며 원숙한 조직동원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끊임없는 새로운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은 그 심도와 높이에 있어서도 매우 심오하고 특출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그 어느 부문, 어느 분야에 대하여서도 깊은 조예와 해박한 식견을 지니고계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느한 대학의 교육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면서 해설원이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전시품들의 세계적인 연구방향과 발전추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시하신 일과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콤퓨터의 새로운 운영방법과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까지 환히 밝혀주시였던 일들은 그이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해박한 식견을 지니고계시였기에 하나를 보시고도 열백을 헤아리시고 오늘뿐 아니라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며 아무리 복잡한 사회현상의 본질과 천태만상의 자연현상의 비밀도 즉시에 밝혀내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제때에 성과적

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의 폭과 심도, 높이는 실로 무한대하며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증유의것이고 인류의 지성의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은 희세의 철학가,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 무적필승의 령장,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식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다방면적이며 높은 식견, 백과전서적인 식견으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거창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하기에 어느해인가 조선을 방문하였던 어느한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상담에서 자기는 처음에 조선로동당의 건설경험을 듣고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생각했는데 눈부시게 황홀한 예술공연을 보고는 장군님께서 예술분야를 전공하신분이 아닌가고 생각하였으며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돌아보고는 그이께서 건축분야를 전공하신분이 아닌가 하는 새삼스러운 의문을 가지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해박한 식견을 최상의 경지에서 겸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경탄과 찬사에 대한 실례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고 따를수 없는 해박한 식견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신 세기의 위인,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은 뛰여난 천품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는 지성이다.

위인이 지니는 해박한 식견에는 그 근본바탕이 있다. 근본바탕이 어떠한가에 따라 위인의 해박한 식견의 폭과 심도, 위력이 좌우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의 근본바탕은 남달리 뛰여난 천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영특한 사고력을 지니고계시였으며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싶어하시였고 그것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보고싶어 하시였다. 같은 년령기의 어린이들에 비하여 사고능력과 지적발전수준이 특출하시였던 그이께서는 하나를 배우면 그와 관련된 둘, 셋을 앞질러 깨우치시고 의문의 여지조차 없는 기성의 사실과 현상에서도 새로운 리치와 의미를 찾아내시였으며 어떤 사물현상도 구체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창조적으로 대하시였다.

그이께서 어린시절에 벌써 진지하고 세심한 관찰로 닭이 물을 먹을 때 주둥이를 우로 쳐드는 까닭과 갖가지 꽃들가운데서 검은 색갈의 꽃이 없는 리치를 기어이 알아내신 사실과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반드시 둘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본래의것과 같은 하나가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진리를 알아내신 사실들은 오늘도 세상사람들속에서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기억력과 집중력도 비상하시고 한번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배짱과 투지도 강하시였으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담하게 해보시려는 열의도 대단히 높으시였다. 말을 타면 훨훨 날아올라 온 조선땅을 한눈에 보고싶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감때사나운 말이라도 꼼짝 못하게 휘여잡으시고 질풍같이 내달리군 하신 이야기나 앞으로 평양에 10층, 20층, 30층짜리 집도 짓고 50층, 100층짜리 집도 지으며 만경봉에서 평양까지 무지개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훨훨 날아다니게 하겠다고 하신 이야기들은 어린시절 그이께서 지니신 담력과 웅지가 얼마나 크고 천품이 어떤 경지에 이르시였는가를 감명깊게 전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처럼 이렇듯 어린시절부터 뛰여난 천품을 지니신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러한 출중한 천품은 그이께서 해박한 식견의 대가로, 세기적인 위인으로 명성을 떨칠수 있게 한 근본바탕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된 지성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은 혁명의 령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풍모이다. 혁명의 령도자는 무엇보다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녀야 해박한 식견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닐수 있고 그것을 구현하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옳바르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과 임무로 간직하고계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생의 최대의 목표, 최고의 리상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이룩하는데 두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하신 그이의 심혈은 정녕 끝이 없다.

나라와 민족,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대하시여도 언제나 그 중심에 조국과 인민을 놓으시며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철저히 지향시켜나가시였다. 그이께 있어서 조국과 인민은 자신의 삶의 전부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은 모든 활동의 절대적인 기준이였다. 언제 한번 조국과 인민을 떠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신적이 없는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보는것이 제일 큰 락이고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일요일과 명절날, 지어는 자신의 생신날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사랑을 지니고계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조

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성의 탑을 끊임없이 높이 쌓아나가시면서 온갖 정력을 다 바치신것이다. 일찌기 학창시절에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지성의 세계를 깊이 파고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 기간에 제시하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모든 로선들과 방침들,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 인덕정치도 모두가 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이룩하시려는데 근본목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겸비하신 지성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동떨어진것이란 하나도 없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부터 출발하고 모든것을 그것으로 철저히 일관시키심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해박한 식견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고계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해박한 식견은 정열적인 탐구와 사색의 고귀한 산물이다.

탐구와 사색은 식견의 전제이며 해박한 식견을 겸비하는 과정은 곧 탐구와 사색의 련속과정이다. 뛰여난 천품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뿐 아니라 비범한 탐구력과 사색력까지 완벽하게 지닌 위인만이 해박한 식견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닐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비상한 탐구력과 끊임없는 사색력을 지니신 정열가이시다.

일찍부터 독학가, 정열가로 명성을 날리신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정통하시고 로동계급의 100여년의 투쟁사에 도통하시였으며 1 200여건의 문헌들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도 끊임없는 정열적인 탐구와 사색으로 지성의 세계를 넓혀나가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

고 한없이 귀중한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인민과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조선혁명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듯 높은 정열을 요구하는 해박한 식견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지니실수 있은것은 결코 그 어떤 시간적여유와 사업상 여가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 분망하다 분망하다 하여도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운명, 조선혁명의 모든 중하를 다 맡고 계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분망하신분은 없다. 그이께서는 하루에도 수천수만가지의 복잡다단한 정사를 처리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당과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대오로 강화하시면서 사회주의 강국건설도 령도하시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지략도 펼쳐나가야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말그대로 10년, 20년 맞잡이이고 한초한초는 천금보다 더 귀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탐구와 사색의 장소와 시간은 고요한 서재나 통채로 내신 시간이 아니라 전당, 전민, 전군을 이끄시는 복잡한 집무실이나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렬차안이였다. 그이께서는 잠시나마 피곤을 푸셔야 할 쪽잠시간과 줴기밥으로 끼니를 이어가시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아껴가시며 여러가지 자료도 보시고 연구하시면서 정력적인 탐구와 사색으로 지성의 세계를 끊임없이 넓혀나가시였다.

이처럼 뛰여난 천품을 근본바탕으로 하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가슴불태우시며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을 이어나가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박한 식견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훌륭히 겸비하고계신것이다.

식견은 실천을 위한것이며 실천투쟁속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해박한 식견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막힘없이 훌륭히 풀어나가시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면서 탁월한 령도력으로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오늘 날을 따라 번영하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겸비하신 지성과 재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력한가를 웅변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이 도서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혁명일화들가운데서 해박한 식견과 관련한 일부 일화를 수록하였다.

1. 정치

혁명의 주력군

19세기 중엽에 맑스가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 주력군으로 규정한 때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로동계급의 선봉적역할에 의해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되였다.

혁명의 주력군은 로동계급이라는 맑스의 리론은 한세기반에 걸쳐 어길수 없는 공식처럼 인정되여왔다.

하다면 오늘까지도 맑스의 이 리론이 절대적이겠는가.

주체 92(2003)년 1월 2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완벽하고도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이날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빛나게 해결한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고, 우리 당은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선군후로의 사상을 내놓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는 정치라는데 선군정치의 독창성이 있고 불패의 위력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세기반전에 맑스가 내놓은 리론과 공식이 오늘의 현실에 맞을수 없다는데 대하여, 시대는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고 사회적환경도 계급관계도 로동계급의 처지도 크게 달라졌으며 특히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로동계급대렬은 인테리화되여가고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가 더욱 범람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각성과 의식화, 혁명화를 억제하는 강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시대적환경으로 보나 로동계급

의 로동과 사회적처지, 로동운동의 실태로 보나 오늘의 로동계급을 산업자본주의시대나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로동계급과 결코 같이 볼수 없다는데 대하여, 어느때 어디에서나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고 보는것은 선행리론에 대한 교조적관점의 표현이며 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론증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 또는 어느 사회적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의하여 규정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제일생명선을 지켜선 혁명대오는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우리 인민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도 있다. 인민군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에 의하여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는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이고 선도자이며 우리 혁명의 제일선을 지켜선 가장 위력한 전투대오이기에 선군혁명의 기수로,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되는것이며 그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라고 마디마디에 력점을 찍으며 강조하시였다.

이리하여 한세기반이나 움직일수 없는 공리로 인정하여온 맑스주의의 제한성이 밝혀지고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존엄높이 등장한 력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총화, 결론, 선언

주체 58(1969)년 7 월 1 일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참으로 뜻깊은 날로 아로새겨져있다.

바로 이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55(1966)년 5 월부터 소문없이 시작하신 로동계급의 100 년사상사총화모임을 마무리짓고 력사적인 가르치심을 주신것이다.

방안에는 수십권의 고전들과 카드무지가 키높이 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한동안 감회깊이 바라보시다가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옹근 3 년 2 개월, 해수로서는 4 년에 걸쳐 《도이췰란드이데올로기》, 《공산당선언》, 《정치경제학비판》, 《자본론》, 《반듀링론》,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 《국가와 혁명》,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비롯한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저서 30 여건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연구토론기간 우리가 읽은 책을 계산한다면 실로 방대한 량인데 그것도 한번 훑어보고 넘긴것이 아니라 발취할것은 발취도 하고 중요저서들을 몇차례 반복하여 읽고 토론하였으며 매 저서들에 담겨진 사상과 리론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개별적명제들에 대한 평가도 여러 측면에서 따져보고 심사숙고하여 결론을 내리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맑스-레닌주의는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사회주의승리의 력사를 펼치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응당 평가하여야 한다고, 그러나 맑스-레닌주의가 그 시대에는 도저히 넘을수 없는 력사적제한성과 사상리론적미숙성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과정에 더욱 똑똑히 보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맑스의 저서 《고타강령비판》을 손에 집어드시였다.

그러시고는 맑스-레닌주의는 시대가 전진하고 혁명운동이 세계

적범위에서 광범히 벌어지며 심화발전될수록 그 력사적제한성과 사상리론적미숙성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사대주의적태도의 해독성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욱 우심하게 발로되고있다고, 이것은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사상의 출현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성숙된 력사적과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이 력사적과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과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여왔다고, 오늘에 와서 혁명과 건설을 옳바르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 없다고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실로 론의할 여지가 없는 독창적이고도 명철한 결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틀로는 잴수도 없고 해석할수도 없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부르고있는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상을 그렇게 부를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불러야 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5.1 절에 대한 새로운 리해

주체 95(2006)년 5 월 1 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은 5.1 절이라고 하시며 지금까지 5.1 절을 전세계로동계급의 명절이라고 하여왔는데 이제는 그에 대한 리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공인된바와 같이 5.1 절은 전세계로동계급의 전투적위력과 련대

성을 시위하는 국제적명절이다. 1889 년 7 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열린 제 2 국제당창립대회에서는 1886 년 5 월 1 일에 8 시간로동제실시의 구호를 들고 미국 시카고로동자들이 투쟁을 벌린 날을 해마다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기념일로 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때로부터 두세기의 언덕을 넘어 100 여년세월이 흘러왔지만 5.1 절을 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로 부르며 쇠는데 대하여 달리 생각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롭게 리해해야 한다고 하시는것이다.

의혹을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5.1 절은 원래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전투적위력과 혁명적단결을 시위하는 국제적인 명절로 생겨났지만 오늘에 와서는 단순히 로동계급의 명절이라고만 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하나하나 론증하시였다.

과학기술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 로동계급의 로동은 지난 시기와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기술화, 지능화되여 그들이 인테리화되여가고있다는것,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로동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다 같이 기술로동, 정신로동을 하는 근로자로 되고있다는것, 이러한 변화된 시대적환경과 현실적조건에서 5.1 절을 단순히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이라고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것. …

과학적인 론거와 사리정연한 주장으로 변화된 로동계급의 처지와 사회계급관계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일군들은 기계제산업시대의 로동계급과 정보산업시대의 로동계급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주체적립장에서 5.1 절을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로 쇠도록 하여야 한다고, 근로자들이라는 범주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5.1절을 전세계로동자들의 명절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당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우리 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이라고, 그런데 5.1절을 로동계급의 명절이라고만 하면 우리 당의 대중적성격이 왜소화되는감이 있다고, 우리 당리론잡지의 이름도 《근로자》인것만큼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에 맞게 5.1절을 근로자들의 명절이라고 하는것이 좋다고, 우리 당은 해방후부터 5.1절을 근로자들의 명절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다같이 쇠도록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제부터는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도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로 고치고 우리 식대로 이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대통령의 틀린 이름

주체48(1959)년 9월 29일 세계력사수업시간이였다.

한 학생이 교원에게 사회주의나라 현 국가수반들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제기하였다.

국가수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난 교원이 이젠 알만한가고 묻자 학생들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만은 교원이 알려준 한 대통령의 이름이 틀렸다는것을 제꺽 포착하시였다. 하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시였다.

휴식시간이 되여 교원이 교실에서 나가자 그이께서는 복도에서 그를 만나시여 겸허하신 어조로 이자 수업시간에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다 옳은데 하나만은 틀린것 같다고 하시면서 선생님은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대통령이 안또닌 자뽀또쯔끼라고 했는데 현재는 안

또닌 노보뜨느이라고 알려주시였다.

교원생활을 한지 얼마 안되는 녀교원은 당황함에 얼굴을 붉히면서 얼마전 신문에서 안또닌 자뽀또쯔끼로 본것 같아서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자기가 잘못 본 모양이라고 대답드렸다.

그이께서는 머리속에 안또닌 자뽀또쯔끼로 생각이 굳어졌기때문에 신문에서 앞은 안또닌이라고 쓴 글만 보고 뒤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탓일것이라고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다방면적이고도 풍부한 지식, 한없이 겸손하고 너그러운 그이의 풍모에 교원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교실로 다시 들어오신 그이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이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의 이름이 안또닌 자뽀또쯔끼라고 했는데 그는 1953년부터 대통령을 하다가 1957년말경에 사망하고 현재는 안또닌 노보뜨느이가 대통령사업을 하고있다고 알려주시였다.

한 동무가 그럼 안또닌 자뽀또쯔끼전에는 또 누가 대통령을 했는가고 문의의 말씀을 드렸다.

그이께서는 1948년부터 끌레멘트 고뜨왈드가 대통령사업을 했다고 알려주시였다.

놀라와하는 학생들은 그이께서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했다는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시는가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어느때부터 어느때까지 사업했는가 하는것을 알자고 애쓰면서 따로외운것은 아니라고, 다만 자신께서 관심을 가진것은 어느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며 어느 나라 당은 어떤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는가 하는것이라고, 이 과정에 자연히 수반들의 이름을 알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지금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수정주의자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사실 집권당안에서 수정주의가 발생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 인민과 그 나라 당이 어떤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관계된다고 생각한다고, 때문에 자신께서는 어느 국가수반이 있을 때는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어떤 로선과 정책을 집행했던가 하는것을 력사적으로 다 연구하면서 따져보고 판단해보게 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이 과정에 자신께서 생각하게 된것은 매개나라 당과 인민이 자기들의 의사의 대표자이며 옹호자인 수령을 어떻게 내세우는가에 따라 그 당이 수정주의를 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맑스주의길을 걷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는것이라고, 수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한 학생이 지금 수정주의를 하는 나라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고싶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그에 대해서도 명백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지금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의 형편은 매우 엄중한 사태에 이르고있다. 혁명을 한지 오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수정주의자들이 당내 령도권을 탈취하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수정주의적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그것은 최근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형편이 이처럼 복잡하지만 우리 인민은 오로지 주체적인 길을 따라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잘 모시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이 걸어온 력사와 오늘의 실태,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과 그 나라 당들이 실시하고있는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볼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그리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열정에 넘쳐 여기까지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우리모두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해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련관된 다른 문제

주체 53(1964)년 3 월 4 일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학부장이 여러가지 책들과 신문들을 펼쳐놓고 자료들을 수집하고있는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서시며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있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면서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제 8 차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고 알려주시였다.

학부장이 위대한 장군님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실것을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학부장선생님이 이 문제와 관련한 자료작업을 하면서 연구하고있는 문제인데 자신이 더 이야기해줄것이 있겠는가고 겸허히 사양하시였다.

학부장이 재삼 간청드리자 그이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깊이 인식하자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리해를 바로 하여야 한다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문제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다같이 나라의 한 부분이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점된데로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발생시킨 기본요인이라고,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게 되면 조국통일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는것은 남조선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여 민주주의적인 정권이 서는 경우에 남조선의 민주주의적력량과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쉽게 수행될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학부장이 그러면 남조선혁명이 승리하기 전이라도 련방제와 같은 방법으로 조국통일과정을 촉진시켜나갈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옳다고 긍정해주시고 잠시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같은 문제가 아닌것만큼 갈라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독자성에 대해 피력하시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그것이 안고있는 과업에서 서로 구별된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사회의 식민지반봉건적성격으로 하여 생긴것으로서 이 혁명의 기본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갈라진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는 그것을 담당수행하는 력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남조선혁명은 국토의 절반땅인 남조선지역에서의 혁명인것만큼 그 주인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신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남조선인민들을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는 없다.

그러나 조국통일은 민족앞에 나서는 지상의 과업인것만큼 이 사업에서 주인은 전체 조선인민이며 우리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련관된 다른 문제!》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에 대한 평범하면서도 뜻이 깊은 표현이였다.

사대는 망국

주체 50(1961)년 4월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에게 사대와 외세의존의 본질과 위험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언제나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사대주의는 사람들속에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썩고 병든 불구로 만든다고, 사람들이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은 민족의 흥망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자주정신은 다른 민족에 얽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려는 자주독립의 정신이며 민족적자부심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우수한 모든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긍지의 감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제기된 문제를 옳바로 리해시키기 위하여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적자부심의 본질부터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은 론리정연하고 빈틈이 없었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깊이 물젖은자들이 종당에는 민족반역자로, 침략자의 길잡이, 앞잡이로 굴러떨어진다는것을 원리적으로 깨우쳐주신 그이께서는 지나온 조선력사의 갈피갈피에 원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뼈아픈 교훈들을 례증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담

화를 이어가시였다.

강대한 나라로 이름떨쳤던 고구려시기에는 사대주의가 없었다. 그러던 고구려가 신라통치배들의 외세의존행위로 하여 무너지고 고구려에 의하여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던 세 나라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때 고구려, 백제는 물론 신라까지 포함한 온 나라, 온 민족이 외세에 먹히울수 있는 긴박한 정세까지 조성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사대주의가 제일 심하게 나타난 시기는 조선봉건왕조 500 년간이였고 그가운데서도 극도에 이른것은 조선봉건왕조말기였다. 봉건유교사상을 맹목적으로 숭배한 봉건통치배들은 작은 나라는 마땅히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큰 의리》이며 응당한 도리라고 설교하였다. 원래 《사대》라는 말자체가 작은것은 큰것을 섬겨야 한다는 유교경전의 이른바 《이소사대》라는 문구에서 나온것이다.…

사대라는 말을 줄곧 외워왔지만 그이의 가르치심에서 그 표현의 력사적유래와 어원을 비로소 알게 된 학생들은 그이의 해박한 식견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 세기말부터 20 세기초에 걸치는 조선력사에 찍힌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와 외세의존, 매국배족행위를 준절히 론죄하시였다.

1882 년 군인들이 일으킨 반침략반봉건폭동 진압, 1884 년 갑신정변의 좌절, 갑오농민전쟁의 실패, 그 하나하나는 다 봉건통치배들이 끌어들인 이웃나라 군대의 가혹한 탄압이 빚어놓은것이다. 결국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친청파, 친일파, 친미파, 친로파로 갈라져 물고뜯으며 권력싸움을 벌렸으니 그 소용돌이속에서 무슨 변괴스러운 일인들 생기지 않았겠는가. 일제와 친일파에 의하여 조작된 왕궁습격과 명성황후살해사건, 《춘생문사건》으로 알려진 미제와 친미파의 왕궁습격사건, 짜리로씨야와 친로파가 로씨야공

사관으로 고종을 피신시킨 《아관파천》…

그이께서는 이렇듯 봉건통치배들의 극심한 외세의존정책과 사대주의,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파국적인 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드디여 일제에게 완전히 먹히우고말았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근엄한 어조로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배격

주체 44(1955)년 9월 8일 수업시간에 있은 일이다.

조선의 지리적위치를 놓고 교원과 학생의 질문과 대답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책상모서리를 꽉 틀어쥐신채 자리에서 성큼 일어서시였다.

학생의 대답을 긍정하는 교원의 평가를 아니라고 부정하며 터치시는 찌렁찌렁한 그이의 음성이 교실을 진동시켰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대륙의 동쪽 중앙부에서 남으로 뻗은 조선반도와 그 근해에 널려있는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교원도 학생들도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있었다.

교과서에서 읽은적도 없고 수업시간에 배운적도 없는 조선의 지리적위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주장이기때문이였다.

좀전에 교원의 질문을 받은 동무는 자신만만하게 지시봉을 들고 지도까지 짚어가며 조선은 중국의 동쪽과 쏘련의 동남쪽, 일본의 서쪽에 위치하고있다고 대답하였고 교원이 맞는가고 묻자 학생들 모두가 맞는다고 대답하였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씌여져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학생의 대답과 교원의 평가를 배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과서에 다른 나라 위치에 대하여서는 그 나라가

자리잡고있는 대륙을 기준으로 하여 유럽의 동부와 아시아의 중부 및 북부를 차지하고있다고 씌여있는데 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 나라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도 응당 우리 나라가 자리잡고있는 아시아대륙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은 불시에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홧홧 달아올랐다.

주장이 당당하고 사리가 정연한 그이의 가르치심은 그로 하여금 남의것을 그대로 옮긴 교과서에 매달려 수업을 한 자신이 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주입하고있었다는것을 통절히 깨닫게 하였다.

교과서에 씌여있는대로 리해한다면 조선은 큰 나라들의 짬에 끼워있는듯 한감을 주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조선을 중심위치에 놓고본다면 아시아대륙의 동쪽을 당당히 차지하고있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사대와 교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주체적관점에서 조선의 지리적위치를 새롭게 부각시켜 행성에 우뚝 올려세우시는 10 대의 장군님.

교원은 그이께서는 학생이시기 전에 벌써 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를 눈아래로 굽어보시는 천출위인이심을 확신하며 비범하신 그이의 모습을 경건히 우러렀다.

신기한 예언

앞날에 대한 예언은 《예지의 소산》이라는 말이 있다.

력사기록에는 예언과 관련한 일화들이 많다.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도 변증법적유물론에 기초하여 많은 예언을 하였지만 적지 않은 문제들은 시대적, 력사적제한성으로 하여 과녁을 명중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도 앞날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

시였다. 그런데 선행고전가들과 다른 점은 그이께서 예언하시는것마다 어김없이 과녁을 명중시키였다는 사실이다.

주체 78(1989)년 11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쏘련의 앞날을 두고 쏘련은 얼마 못 가서 사회주의국가의 모자를 벗어던지고 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것 같다고 예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제일의 광활한 령토와 방대한 핵무기를 휘두르며 초대국이라고 뽐내던 쏘련은 드디여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미국놈들앞에 무릎을 꿇고말것이라고, 쏘련이 미제의 반사회주의 전략앞에 돈 한푼 얻어먹지 못하고 무장해제를 당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고, 이것은 쏘련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예상이며 관측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쏘련이 붕괴된다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일군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그러면서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쏘련이 붕괴된단 말인가.

지구의 6분의 1에 해당한 광활한 령토와 세계 1등급의 무장장비를 자랑하며 70년의 사회주의건국사를 기록해온 대국, 제국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 사회주의의 위력을 천하에 떨치던 나라, 그런 나라가 맥없이 무너지다니, 많은 사람들이 쏘련의 앞날을 우려하면서도 그런 나라가 붕괴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때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예언은 정확하였다.

그이께서는 벌써 두해전에도 쏘련의 앞날을 예언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쏘련에서는 고르바쵸브가 《개편》정책을 고창하고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언행에서 수정주의적냄새를 맡으면서도 그를 사회주의의 변절자, 배신자로 보지 못하고 일시 로선상착오를 범한 정치가로 보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르바쵸브는 일시 악몽에 빠진것

이 아니라 혁명의 기관차를 탈선시킨 사회주의의 배신자라고 락인하시고 이렇게 예언하시였다.

쏘련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2~3 년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것 같다. 쏘련의 맥을 짚어보면 말기증상이다. 쏘련에서 사회주의기발이 내리워지고 자본주의바람이 불것 같다. 다민족국가인 쏘련의 민족문제도 매우 복잡해질것이다. 민족들사이에 마찰이 생겨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것 같다. 그렇게 되면 쏘련이 대국의 지위를 잃게 되고 미국앞에 무릎을 꿇는 약소국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이께서는 예언의 근거로 두가지를 드시였다.

하나는 다음해에 열리게 될 쏘련공산당 전련맹 제 19 차대표자회의에 《당의 령도를 포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에서 쏘련공산당은 《사회의 지도적 및 향도적력량이다.》라는 조항을 빼버리고 《다당제》를 실시한다는것을 조항에 박아넣으려고 한다는것 다시말하여 당의 령도를 포기하게 되니 사회주의기발이 내리워지게 되고 《다당제》를 실시하게 되니 자본주의제도가 복귀된다는것이였다.

그러시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쏘련에서 사회주의기발이 내리워지는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정권을 쥐고있기때문에 사회주의는 좌절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 년이 흐른 뒤 또다시 정세발전의 추이를 깊이 통찰하신 그이께서 쏘련의 붕괴를 멀지 않은 앞날의 일로 기정사실화하시며 이것은 쏘련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예상이며 관측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얼마나 명철한 분석이고 놀라운 예언인가.

그후의 사태발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예언이 가장 과학적인 예언이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하였다.

1991 년 12 월, 70 여년세월 크레믈리상공에 나붓기던 붉은 기

발이 내리워지고 쏘련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왜 알고있어야 하는가

주체 51(1962)년 1월 23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조선로동당 투쟁사과목에 대한 학과토론이 진행되였다.

론쟁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학과토론에서는 문제성있는 질문과 대답들이 수많이 오고갔다. 그중에는 과거 조선에 존재하였던 서울파, 화요파, 엠엘파 등 각종 파벌들에 대하여 알고싶다는 질문도 제기되였다.

종파에 대하여 극히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리해밖에 가지고있지 못하였던지라 누구도 만족한 답변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학과토론은 종파의 래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채 끝나고말았다.

종파가 어떻게 생겨났겠는가 하는 문제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일부 학생들은 마치도 지난날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 다 파쟁분자이고 그들에 의하여 종파가 생겨난것처럼 말하고있는데 종파의 발생을 그렇게 보는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종파의 발생을 이렇게 보는것은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논 역할을 무시하는것으로 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된다. 종파의 발생은 혁명의 리익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자들이 공산주의운동의 상층부를 차지하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종파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을 지도한 상층인물들에 의하여 당안에서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종파가 생겨난것은 1920년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종파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공산주의운동은 원래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으로 벌려나가는 운동이다. 공산주의운동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여러 분파가 생기면 그것은 조직된 부대로서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공산주의운동자체가 사분오렬되고만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맑스주의의 탈을 쓰고 기여들었던 종파분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의 령도권을 쥐기 위하여 저마다 자파세력을 확장하는데 미쳐날뛰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화요파, 서울파, 엠엘파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파벌이 생겨나게 되였다.

《한일합병》후 독립운동을 하던 일부 조선사람들이 원동지방으로 망명하였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몇몇 조선사람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당이라는 조직을 무었다. 이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고 두 파로 갈라졌는데 한 파는 중국의 상해로 나와 고려공산당이라는것을 만들었고 다른 한 파는 로씨야의 이르꾸쯔크에서 저들대로 고려공산당이라는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세상에 상해파, 이르꾸쯔크파로 알려진 종파였다.

이 시기 국내에서도 서울파, 화요파, 북풍회파, 엠엘파, 서상파와 같은 많은 파벌이 생겨났다. 서울파는 서울청년회가 분렬되여 생긴 파벌이다. 그후 이 파는 다시 신파와 구파로 갈라졌다. 서울파에 대립하여 화요파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산자동맹이 국내에 들어온 이르꾸쯔크파와 결탁하여 생긴 종파이다. 처음에는 신사상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가 맑스의 탄생일인 화요일을 따서 화요회라는 이름을 붙이였다. 북풍회파는 일본에서 북성회라는것을 조직한 류학생들의 일부가 그후 조선에 들어와 만든 종파이고 엠엘파는 서울신파의 일부와 고려공청 만주총국에 속한 일부 분자들, 일본에서 무어진 일월회와 북풍회의 일부 분자들을 긁어모아 형성한 오합지졸의 분파이다. 서상파는 서울파의 일부와 상해파의 일부가

결탁하여 생긴 종파로서 이미 있던 종파의 변종이였다.…

이처럼 미리 준비한 원고도 없이 복잡하게 뒤엉킨 종파의 갈래를 낱낱이 갈라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종파가 발생하게 된것은 이 운동이 소부르죠아인테리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까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1920년대 종파는 력사적으로 볼 때 과거 우리 나라 봉건지배층안에서 극심하였던 사색당쟁과 그후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안에서 벌어진 파벌싸움의 연장이라고, 과거 우리 나라 봉건지배층안에서는 남인이요 북인이요, 로론이요 소론이요 하는 패당들이 서로 다투면서 오래동안 당파싸움을 하였다고,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안에서도 각양각색의 분파들이 생겨나 파벌싸움을 하였다고 종파발생의 경위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생동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끼친 종파분자들의 해독행위를 력사적으로 폭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에 의하여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망하게 된 력사적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력사적교훈은 종파를 하면 당도 혁명도 다 말아먹는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끼친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고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종파의 발생근원과 해독행위에 대해 똑똑히 알게 된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출중한 정치적식견과 과학적분석에 머리를 숙이였다.

빠리꼼뮨을 평함

평양방직기계제작소에서 생산실습을 하고있던 시기 대학생들은 작업의 쉴참에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종종 론쟁을 벌리군 하였다.

주체 50(1961)년 5 월 5 일의 론제는 빠리꼼뮨의 실패원인과 교훈이였다.

학생들속에서는 꼼뮨의 기본실패원인을 프루동주의자들과 블랑끼주의자들의 분렬로 보는 견해와 꼼뮨지도부가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지 못하고 원쑤들에게 관용을 베푼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빠리꼼뮨이 남긴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파악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빠리꼼뮨은 비록 72 일간밖에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기였으며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혁명리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서두를 떼신 그이께서는 꼼뮨전야의 프랑스정치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꼼뮨전야의 프랑스정치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나뽈레옹 3 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 2 제국의 반동정책과 로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가혹한 압박과 착취 특히 프로씨아와의 전쟁에서의 련속적인 패배로 하여 반동통치배들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은 극도에 이르렀다. 빠리의 로동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 2 제국은 전복되고 부르죠아공화국과 《민족방어정부》가 수립되였는데 이 정권 역시 반동적인 정권이였다. 빠리의 로동자들과 인민들은 1871 년 3 월 18 일에 대중적인 항쟁에 궐기하였다. 혁명군중은 반혁명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반동적인 띠애르정부를 뒤집어엎었다. 그리하여 주권은 국민근위대 중앙위원회의 수중에 장악되게 되였다. 그후 3 월 26 일에는 꼼뮨위원선거가 진행되였고 3 월 28 일에는 빠리꼼뮨이 선포되였다. 빠리꼼뮨은 력사상 세계최초의 프로

레타리아독재정권형태였다.…

그이께서는 빠리꼼뮨을 력사상 첫 로동계급의 정권으로 보는 근거를 밝히시였다.

꼼뮨위원 86명가운데서 로동자가 근 30명이였으며 나머지성원들의 대다수도 로동계급의 지지를 받은 대표들이였다. 빠리꼼뮨은 착취계급의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로동계급의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하였으며 징병제에 의한 상비군을 페지하고 인민들로 조직된 국민근위대를 무장력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낡은 폭력기구들을 없애버렸다.…

그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빠리꼼뮨이 계획한 방대한 사회경제적개혁을 실천에 다 옮기지는 못하였으나 로동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선포하였다고, 이러한 시책들은 빠리꼼뮨이 로동계급의 정권이며 로동계급의 정권만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는 인민적시책을 실시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빠리꼼뮨이 국제로동운동의 정권건설사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대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1848~1849년혁명을 총화하면서 한 맑스의 결론과 로씨야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레닌이 제기한 쏘베트정권과 결부하여서도 평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울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데 대하여서와 그 의의에 대하여 론증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로동계급의 새로운 정권형태를 창조하시여 우리 인민정권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하신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빠리꼼뮨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 심

각한 교훈을 남기였다고, 우리는 빠리꼼뮨에 대하여 학습하면서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과학적인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에 의하여 부각되는 꼼뮨실패의 원인은 자자구구 정으로 쪼아박듯 학생들의 뇌리에 새겨졌다.

−꼼뮨이 실패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지 못한데 있다.

혁명의 승패는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며 혁명승리에서 결정적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것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승리할수 있다.

빠리꼼뮨은 로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확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로 무장된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빠리꼼뮨은 또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전복된 착취계급과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소탕해버리지 않을 때 얼마나 쓰라린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빠리꼼뮨이 착취계급과 반혁명세력을 일정하게 진압하였지만 그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철저히 허물어버리지 못하였기때문에 적들이 준동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반혁명세력에 대한 이러한 관용과 양보는 그들로 하여금 숨돌릴 틈을 주어 베르사이유에서 력량을 수습할수 있게 하였으며 프로씨야침략자들과 결탁하여 혁명적빠리를 공격할수 있게 하였다. 꼼뮨용사들의 영웅적인 항쟁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반혁명세력의 야수적공세로 말미암아 빠리의 거리는 꼼뮨용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고 빠리꼼뮨은 실패하고말았다.…

꼼뮨의 실패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철하게 분석하신 그이께서는

빠리꼼뮨은 혁명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그 지도밑에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겨놓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빠리꼼뮨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꼼뮨용사들의 영웅적투쟁업적과 그들이 남긴 교훈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운동사에 영원히 전해질것이라고 확신성있게 교시하시였다.

파쑈의 정체

주체 50(1961)년 7 월 20 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파쑈화의 길로 줄달음치는 남조선정세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국제로동운동사와 결부하여 남조선에 세워진 군사파쑈독재에 대하여 해설해주실것을 청드렸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시며 그들의 청을 쾌히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파시즘과 파쑈독재의 본질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파시즘은 극도로 타락한 소수 독점자본가계급의 가장 반동적인 정치리념이며 정치사조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파시즘이라는 말의 유래와 파시즘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생동하게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원래 파시즘이라는 말은 이딸리아의 파쑈두목 무쏠리니가 1919 년 3 월에 반동적인 장교들과 지주, 자본가의 자식들을 규합하여 파쑈단체인 《이딸리아전투자단》을 조작한 때부터 생겨났다고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단체》 또는 《단》, 《결사》라는 뜻으로 쓰이던 《파쑈》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파시즘이라는 반동적인 정치사조를 의미하는 술어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파시즘은 이딸리아에서 생겨났지만 도이췰란드의 히틀러에 의하여 극도에 이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히틀

러는 인류력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독재를 세웠던 극악한 파쑈분자라고 격분에 넘쳐 단죄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요즘 남조선에서는 지난날 도이췰란드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파쑈독재를 실시하던 때보다 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파쑈독재는 가장 반동적이고 야수적인 테로독재이다. 파쑈독재의 특징은 국가권력이 파쑈두목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통치배들의 수중에 집중되며 소수 통치배들이 무제한한 권력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마저 빼앗고 야수적인 테로와 폭압을 실시하는것이다. 파쑈독재란 파시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말하며 파쑈분자란 파시즘을 신봉하는자를 말한다.…

문제의 본질을 단 몇마디로 밝혀주시며 모든 문제를 력사적으로 폭넓게 전개해나가시는 그이의 놀라운 분석력과 해박한 지식에 깊이 감동된 학생들은 어려움도 잊고 알고싶었던 문제들을 다시금 말씀올렸다.

한 학생이 남조선사태와 결부시켜 파시즘의 대두와 파쑈독재의 출현을 불가피한 력사적현상으로 보아도 되겠는가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이것은 심중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 물음에는 두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가 포함되여있는것 같은데 하나는 파시즘의 출현이 필연적인가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쑈분자들이 정권을 잡고 파쑈독재를 세우게 되는것이 불가피한 현상인가 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파쑈독재의 수립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피치못할 현상은 아니라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단결되여있고 반파쑈민주력량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파쑈분자들이 감히 정권을 잡지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파시즘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 나타났지만 파쑈분자들이 정권을 잡고 파쑈독재를 실

시한 나라는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일본을 비롯한 몇개 나라뿐이고 프랑스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는 파쑈분자들이 정권을 잡으려다 좌절되고말았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사실은 민주력량이 단합되여있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반파쑈투쟁에 떨쳐나선다면 파쑈분자들의 책동을 얼마든지 저지파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도 지구상에는 파시즘이 없어지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군사파쑈독재체제를 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지는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파시즘은 망하기 마련이라고 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이 일시 시련을 겪고있는것을 보며 사람들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도를 우려하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사태를 예리하게 분석판단하시고 가장 과학적인 론단을 내리신것이다.

청년레닌과 11월의 10월혁명

주체 46(1957)년 11월 4일에 있은 이야기이다.

-레닌이 체득한 진리

이날 오후 학교민청실에서는 민청위원들이 얼마전에 번역출판된 중편소설 《레닌의 청소년시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있었다.

이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청실에 들어서시여 무슨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녀학생이 《레닌의 청소년시절》을 읽고 배울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댔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제나름의 생각들은 많이 말하였는데 청년 레닌의 혁명적성격형성에 관한 똑바른 견해가 서지

않아 갑론을박하고있다고 아뢰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중편소설 《레닌의 청소년시절》을 읽어보았는데 책을 재미있게 잘 썼다고, 민주청년사에서 중편소설 《레닌의 청소년시절》을 번역출판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이 소설은 레닌의 청소년시절이야기를 가지고 썼기때문에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인기를 끌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소설을 다 읽어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돌려가며 다 읽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다 읽어보았으면 좋다고, 동무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인상을 받은것이 어느 대목인가고 물으시였다.

레닌의 형이 로씨야군주인 짜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여 사형당하는 장면에서 감동적인 인상을 받았다는것과 형의 최후에서 큰 충격을 받고 혁명으로 부모형제의 원한을 풀 생각을 더욱 굳힌것같다는 두 학생의 말을 긍정해주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중편소설 《레닌의 청소년시절》을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대목이 레닌이 자기 형이 몇몇 사람들과 같이 테로적방법으로 짜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여 사형을 당하는것을 보고 누이와 동무들에게 《아니다, 나는 이 길로 가서는 안된다,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한 말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레닌의 이 말속에는 혁명은 몇몇 사람들의 힘이나 테로적방법으로는 할수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와 그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인민대중이 자기의 힘으로 착취와 압박에 기초한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설 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레닌이 청소년시절에 체득한 참된 진리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레닌은 이 진리를 저절로 체득한것이 아니

라고, 소설에도 씌여진바와 같이 레닌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으며 일단 결심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장을 내고야마는 강의한 의지를 가졌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특히 레닌은 중학교시절에는 불타는 정열로 사색과 탐구의 나날을 보냈으며 체르늬쉡쓰끼의 소설 《무엇을 할것인가》를 비롯하여 수많은 혁명적인 책들과 신문들을 탐독하였다고, 이 과정에 레닌은 혁명은 몇몇 사람들의 힘이나 테로적방법으로는 할수 없으며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였던것이라고, 자신께서도 중편소설 《레닌의 청소년시절》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에 매혹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들은 소설에서 나오는 레닌의 대사 하나를 놓고 그것이 시사하는 사상적내용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원리에 기초하여 부각시켜주시는 그이의 뛰여난 분석력과 레닌의 생활세부까지 엮어가시며 구수하게 이야기하시는 남다른 구술력에 연해연방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왜 10월혁명이라고 할가

이날 한 학생이 문득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날은 11월 7일인데 왜 10월혁명이라고 하는가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누군가가 음력으로 10월이여서 그렇게 부르겠지 하고 말했어도 납득이 되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리던 학생들의 눈길은 일시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로 향하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날은 우리가 지금 쓰고있는 양력으로 1917년 11월 7일이라고, 그런데 10월혁명이라고 하는것은 음력으로 10월이 아니라 구력으로 10월 25일에 혁명이 승리하였기때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처음 듣는 말이여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재차 청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음력은 달이 지구주위를 한바퀴 도는 시간 다시말하여 한달을 기준으로 만든 력서이고 양력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말하여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력서를 말한다. 그런데 양력에는 구력과 신력이 있다. 일명 구력을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며 신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한다. 유럽에서는 16세기전까지 율리우스력서를 써왔다. 그런데 이 력서에는 1년의 길이가 365.25일 즉 365일 6시간, 실제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시간은 365.2422일 즉 365일 5시간 48분 46초이므로 력서에서 1년의 길이가 11분 14초나 더 길어져있다.…

그이께서는 종이에 연필로 수자를 쓰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 11분 14초가 400년동안에 3일만 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 력서를 정확히 만들려면 400년의 력서길이에서 3일을 덜어야 한다. 율리우스력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1년을 365일 6시간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매해 생기는 11분 14초의 오차로 인하여 16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춘분날이 3월 21일이 아니라 3월 11일로 되였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교가 지배하고있던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였다. 왜냐하면 부활제날이 춘분날에 의해서 결정되기때문이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이의 설명에 주의를 집중하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부활제란 예수교에서 이른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봄철에 하는 의식을 말한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춘분후 만월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제날로 정하고 부활제 당일에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하군 한다. 그런데 춘분날이 3월 21일이 아니라 3월 11일에 오게 되였기때문에 당시 로마법왕 그레고리 13세는 력서개혁을 추진시켜 1582년 10월 5일부터 14일에 이르는 10일간을 력

에서 빼도록 하였다. 다시말하여 그해 10월 4일은 목요일이였는데 그 다음날인 금요일은 10월 5일이 아니라 10월 15일로 되도록 특령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력서를 법왕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거나 신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뒤떨어져있던 로씨야는 계속 구력을 써왔고 신력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1918년 1월 31일에 받아들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쏘련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날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신력으로 11월 7일이지만 당시 로씨야에서 쓰던 구력으로 10월 25일으므로 이로부터 10월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였으며 신력을 쓰게 된 1918년부터 11월 7일을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날로 기념하게 되였던것이다.…

들을수록 새라새롭고 어데 가서도 들을수 없는 이야기여서 학생들의 눈빛은 경탄으로 반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우리는 한가지를 알아도 정확히 알고 하나를 배워도 깊이있게 배워야 혁명에 필요한 산지식을 소유할수 있으며 쓸모있는 인재로 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끝났으나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왜 10월혁명이라고 하는가라는 물음의 답으로 참으로 풍부한 위인의 지식의 세계를 체감했으며 심오한 배움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머리숙인 알브라이트

주체 89(2000)년 10월 말경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가 200여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기 위하여 평양으로 왔을 때의 일이다.

-브로치

《유일초대국》을 떠드는 미합중국의 국무장관이 조미관계력사

상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세계를 놀래우기에는 충분했다.

그런데 그의 행동거지를 초점에 놓고 주시하던 세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큰 놀라움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여러번 바뀌여지는 알브라이트의 브로치를 통하여 본 그의 심리변화가 너무도 예상을 초월했기때문이였다.

아무리 녀자의 변덕이 심하다 해도 그 며칠동안에 그렇게도 심할수가 있는가.

도착 첫날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정중히 인사를 올린 그를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녁에 조선로동당 창건 5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함께 관람하시였다.

이때 알브라이트의 가슴에는 성조기브로치가 달려있었다.

외교에서 그 어떤 《미묘한 정치적메쎄지》를 갖가지 브로치로 표현하고 상대를 조정하는 특기를 가지고있다는 알브라이트에게 있어서 성조기브로치는 미합중국의 《위엄》을 상징하는것이였다.

다음날인 10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알브라이트를 만나 오랜 시간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담화에서 조미관계를 비롯하여 복잡하고 첨예한 국제문제들,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조선반도정세,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있는 미싸일문제 등 그가 관심하는 모든 문제들에 즉석에서 명쾌한 대답과 결론을 주시였다.

알브라이트는 귀국후 클린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정일**령도자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하여오던 그런 형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리론이 체계정연하고 매우 론리적이며 복잡하게 뒤엉킨 현 국제문제들을 환히 꿰들고있을뿐 아니라 그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문제처리에서 통이 크고 대범하며 명철하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김정일**령도자는 대화상대방의 발언을 매우 신중

하고 주의깊게 끝까지 들어주며 아량이 있으므로 대화할 재미가 있고 따라서 대화과정에 자연히 **김정일**령도자의 리론과 주장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다고, 총체적으로 **김정일**령도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광범위한 모든 문제들에서 리론이 명백하고 신심이 확고하며 대범하고 주도세밀한 매우 다재다능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다고 썼다.

평양에서의 짧은 체류기간 14시간동안이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행운을 지니고 떠나기 위해 비행장에 나온 알브라이트의 가슴에는 이미 평화를 상징한다는 목동브로치가 해빛에 반사되여 반짝이고 있었다.

-경탄

알브라이트가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과 관련한 여러가지 일화들이 전설로 전해졌다.

그중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연회때 있은 일화도 있다.

이날 연회에서 알브라이트는 뜻밖에도 좌중에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

열손가락을 가지고 수자 16이 나오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손가락으로 어떻게 수자 16이 나오게 할것인가?

좌석에는 잠시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이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으시고 대번에 그거야 뭐 힘들게 생각할것이 있는가고 하시며 두손을 모으시더니 엄지손가락 둘로는《×》표시를 하고 나머지 량쪽 네손가락을 쭉 펴보이시였다.

4 ×4=16

틀림없는 16 이였다.

순간 연회장에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3S 외교관

주체 51(1962)년 12 월 6 일 경제학설사 학과토론시간이였다.

한 학생이 토론을 하였는데 그 토론은 교원의 대단한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그가 참고서로 제시해준 《잉여가치학설사 <자본론> 제 4 권》을 읽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토론에 잘 리용한데 있었다.

일어원문으로 된 그 책을 자체로 번역하여 토론에 참고한 학생을 보며 부러워하던 다른 동무들은 휴식시간이 되자 약속이나 한듯이 그에게 몰려와 학습장을 구경하자거니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동무가 토론을 잘하였다고 치하해주시며 이것은 외국어를 아는것이 지식의 폭을 넓히고 과학리론적깊이를 보장하는데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고 하시였다.

과분한 치하의 말씀에 당사자는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다가 그이를 우러러 사실 소학교에서 좀 배우고 대학에 와서 짬짬이 자습하여 외국어를 좀 익혔을뿐이라고 정중히 대답올렸다.

그이께서는 둘러선 학생들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외활동을 할때에는 말할것도 없고 과학연구사업을 하자고 해도 외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나는 언제인가 어느한 외교관을 만나본 일이 있는데 그가 한 말이 참 교훈적이였다. 그는 외국어를 잘 모르는 외교관은 3S 라고 놀려준다고 하였다. 3S 가 무엇인가고 물으니 그가 하는 말이 《졸고있다》, 《담배피우다》, 《웃고있다》라는 단어는 모두 영어문

자 S 자로 시작되기때문에 결국 외국어를 잘 모르는 외교관은 통역이 없으면 외교석상에 앉아서 졸거나 담배를 피우고 웃고만 있다는 것을 조소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외교관은 3S 가 되여서는 안된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외국어학습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대학생들의 그릇된 관점을 순간에 바로잡아주게 하는 귀중한 격언이였다.

만능가가 되라

주체 48(1959)년 7 월 1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서 진행되는 제 7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조선대표단의 준비사업정형을 알아보시면서 한 일군에게 오스트리아에서 지난날 어떤 음악들이 나왔는지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슈베르트나 모짜르트를 념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고 일군이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그렇다고, 이번 축전이 진행되는 윈은 지난날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있었다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음악가들도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밖에도 오스트리아에는 하이든이라든가 요한 슈트라우스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부자음악가도 있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하이든은 오스트리아의 국가를 작곡한 사람이고 베토벤의 스승인 요한 슈트라우스는 왈쯔곡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시였다.

그런 작곡가들을 모르고있은 일군이 얼굴을 붉히는데 그이께서는 슈베르트를 가리켜 세상사람들이 《가요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작곡한 어떤 노래를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다시 생각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피뜩 떠오른것이 슈베르트의 《자장가》였다.

그이께서는 그럼 그 자장가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노래의 선률은 되살아나는데 가사가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하느적하느적 나비 춤춘다》는 구절만 입안에서 뱅뱅 돌뿐이였다.

그이께서는 윈으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 그 가사를 알아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슈베르트가 어떻게 되여 그 《자장가》를 짓게 되였는지 그 사연도 알아두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일군에게 다시 오스트리아의 국조는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마다 한가지 꽃을 국화로 정하고있듯이 어떤 나라들은 하나의 새도 국조라고 하면서 귀중히 여기고있다고, 오스트리아의 국조는 제비라고 한다고, 윈축전에 가거들랑 제비가 참 좋은 새라는 이야기도 하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외사업을 하려면 만능가가 되여야 한다고, 대외사업을 하는 일군들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력사와 지리는 물론 그 사람들의 세태와 풍속,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대외사업을 능숙하고 실속있게 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윈축전에 가서도 오스트리아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이든이나 슈베르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이 작곡한 노래까지 한마디 부른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게다가 우리 나라 《흥부전》에서 나오는 제비이야기까지 덧붙여서 그들의 국조를 지지해주면 제격이 아니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목표는 상식박사

주체 49(1960)년 12월 9일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은 휴식시간에 운동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러던중 한 학생이 인디아사람들의 생활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끌

었다.

그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듣고있던 학생들은 고양이뿔과 같은 자료를 많이 알고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때 곁에 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은 전공부문의 지식을 폭넓게 배우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대내외정책과 인민들의 생활풍습 같은 상식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 나라가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지는데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설명해주시고나서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대외활동은 외교부문에서 사업하는 일군들만 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업할수 있으며 더우기 대학을 졸업한 일군들은 대외활동에 많이 참가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의 대내외정책과 동향을 잘 알아야 그 나라와의 관계를 주동적으로 가질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인민들의 생활풍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을 우리 나라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표시한다는것, 그들은 옳다는 의사를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것으로, 그르다는 의사를 머리를 아래우로 끄덕이는것으로 표시한다는것, 또 손등을 아래로 향하여 손을 수평으로 펴고 손가락을 구부렸다폈다 하는것을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에게 접근해오라는 의사의 표시로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그것이 어서 물러가라는 표시로 된다는것, 시간관념도 같지 않다는것,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강하기때문에 약속한 시간을 5분만 어겨도 시간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는것, 그러나 어떤 지역의 사람들

은 시간관념이 약하기때문에 시간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며 별치않은 일로 여긴다는것, 음식을 숟가락이나 저가락으로 먹지 않고 순수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들도 있다는것…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학생들은 그들의 생활풍습을 모르고 대하다가는 본의아니게 오해를 사거나 실수를 할수 있겠다고 한마디씩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럴수 있다고 긍정해주시면서 그래서 대외활동을 하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풍습 같은것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베료즈까》무용단의 래력

주체 57(1968)년 11 월 24 일이였다.

쏘련의 이름있는 예술단체인 《베료즈까》무용단의 초청과 영접사업을 맡은 문화성의 한 일군은 그사이 사업진척정형을 보고드리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그이께서는 영접준비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괜찮게 되였다고, 《베료즈까》무용단이 올해에는 오지 못하고 다음해 붉은군대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오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준비를 잘하라고 이르시였다.

알았다고 대답을 드린 일군은 그런데 일부 일군들이 《베료즈까》무용단이 언젠가 조선에 온적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즉석에서 부정하시였다.

《베료즈까》무용단은 우리 나라에 와본적이 없다. 다만 1957 년에 빠슈끼르민족무용단이, 1960 년에 여러 단체로 무어진 예술단이, 1964 년에 국립크라스노야르스크씨비리무용단이, 1966 년에 우크라이나공훈인민합창단이, 1967 년에 태평양함대협주단이 우리 나라에 온것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전후부터 우리 나라에 온 그 나라 예술단체들의 명

칭과 년도 그리고 예술단들의 대표적인 공연종목까지 알려주시였다.

순간 일군의 눈은 휘둥글해졌다.

다른 나라 예술단들의 조선방문정형을 그토록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계시니 그이의 비상한 기억력에 놀라움과 탄복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베료즈까》무용단의 래력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알려주시였다.

1948 년에 창립된 무용단은 지난 20 년간 로씨야민족무용작품들을 기본으로 창작하여 300 여개의 도시들을 순회공연하였을뿐 아니라 세계 40 여개의 나라들을 방문공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1 년에 쏘련을 방문하시였을 때 공산당지도부에서는 수령님을 환영하여 이 무용단의 공연을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며 《베료즈까》무용단의 공연이 마음에 들었다고, 《베료즈까》무용단의 무용작품들은 우아하고 랑만적이며 자기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정서와 생활을 잘 반영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나라에서는 《베료즈까》무용단의 활동을 주제로 한 《처녀의 봄》이라는 예술영화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있다. 그리고 무용단의 총장은 그 나라의 국가상과 인민배우칭호를 받은 이름있는 발레무용배우이며 안무가인데 그는 이 무용단을 창립하고 수많은 무용작품들을 안무하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이 계속될수록 일군은 심한 가책으로 하여 머리가 숙여졌다.

《베료즈까》무용단의 초청 및 영접사업을 직접 담당한 일군으로서 대방예술단체에 대하여 모르고있는것이 너무도 많아서였다.

일군은 어떻게 다른 나라 무용단의 래력을 그리도 잘 아시는가고 문의의 말씀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그저 웃으실뿐이였다.

그러시다가 곧 미소를 거두시고 신중한 어조로 그런데 대외문화

교류사업을 맡아보는 일부 일군들은 이런것도 모르고 《베료즈까》 무용단이 우리 나라에 왔댔다느니, 공연종목이 좋지 못하다느니 하면서 무용단초청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촉진시켜나가는데 일정한 영향까지 미치게 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화성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쏘련국립《베료즈까》무용단을 초청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당에서 준 방향대로 《베료즈까》무용단영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베료즈까》무용단 총장이 나이가 많겠는데 오면 방은 어떤것을 주고 승용차는 어떤것을 주며 부단장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라는것, 무용단은 녀배우들이 많은 조건에서 침실과 식사보장은 어떻게 하라는것 등 그들이 체류하는 기간 공연활동과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제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으로 무용단에 대한 완전한 파악에 기초한 주도세밀한 영접의 례대책안이였다.

그후 《베료즈까》무용단은 조선에 와서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받아본적이 없는 우대를 받으면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조쏘친선의 꽃을 활짝 피웠다.

환영받은 연회음식

옥류관에서 말리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준비가 한창이던 주체 50(1961)년 9월 26일이였다.

일군들과 료리사들은 무슨 료리를 준비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너무도 멀고먼 나라이기때문이였다. 가본 사람도 없었고 그 나라에 대한 상식도 매우 희박했다.

그런 사정으로 말리는 더운 나라라니까 찬 음식을 좋아할것이라느니, 프랑스식민지로 있던 나라이니 포도주를 많이 마실거라느니

하는 지레짐작으로 료리차림표를 만들어놓았다.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차림표를 보시고 료리차림표를 보니 오늘 연회에 포도주를 많이 내놓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리사람들은 도수가 높은 술을 좋아하기때문에 그런 술을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다른 나라 료리전문가들로서 그래도 그 부문에서는 제노라던 료리사들이였으나 저들의 추측이 그리도 빗나갈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포도주문제만 하여도 그랬다.

오래동안 프랑스식민지로 있던 아프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은 프랑스《문명》의 풍습에 동화된 나머지 프랑스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즐겨마시였다.

그런데 말리사람들은 도수높은 술을 좋아한다니?…

일군들과 료리전문가들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말리라는 나라는 더운 지대이므로 갖가지 집짐승과 야생짐승들이 많아 그곳 사람들이 고기료리를 좋아할것이라고 생각하며 료리를 준비하려던 참이였는데 그 추측마저 빗나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으기 난감해하였다.

그런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오늘 연회에는 바다물고기로 만든 료리를 많이 내놓아야 하겠다고 따뜻이 일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말리는 아프리카대륙의 한복판에 위치하고있는 나라로서 바다가 없기때문에 바다물고기를 아주 귀해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료리를 다 차렸을 때였다.

생선튀기, 명태자반, 새우, 전복, 해삼료리, 말리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강냉이죽과 강냉이지짐, 녀성들이 좋아하는 쉬움떡, 주정이 높은 조선의 인삼술…

연회가 시작되자 말리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료리들에서 눈길

을 떼지 못하며 군침부터 삼키였다.

연회음식은 손님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희귀한 료리를 맛있게 든 손님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면서 조선료리사들의 료리솜씨가 제일이라고, 유럽《문명》의 발원지라고 하는 프랑스료리는 여기에 견줄바가 못된다고 하면서 연방 격찬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 그들을 보며 일군들과 료리전문가들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심리와 음식문화전통까지 환히 꿰들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문박식한 천재적예지에 다시금 경탄해마지 않았다.

통역원과 지배인의 실수

중국방문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72(1983)년 6 월 7 일 상해시의 어느한 통졸임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 공장일군이 멸균소독공정을 해설해드릴 때였다.

그이께서는 식료공장에서는 멸균소독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통졸임통의 멸균소독을 어떻게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일군이 올리는 대답을 통역원이 120℃의 온도에서 8 분동안 소독한다고 통역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우 의아해하시며 그보다 4~5℃ 더 높아야 되겠는데 라고 뇌이시는것이였다.

당황해난 통역원이 공장일군에게 온도가 몇℃인가고 다시 확인하고는 얼굴을 붉히며 자기가 통역을 잘못해드렸다고, 온도가 124℃라고 말씀드리였다.

기대의 소음때문에 그만 잘못 듣고 실수했던것이다.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럴것이라고, 124℃에서 8 분동안이면 충분히 소독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수행원들의 머리속에는 며칠전 청도맥주공장참관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그이께서는 공장지배인에게 통졸임통 안벽에 어떤 방부제를 쓰는가, 방부제를 쓰면 맥주맛이 달라지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전문가들이나 할수 있는 질문을 련속하시니 급해맞은 지배인이 얼결에 맥주맛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정말 그런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그제서야 그이께서 이 분야에 보통 박식하시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은 지배인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줍게 웃으며 사실은 맥주맛이 좀 달라진다고, 자기들의 공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통역원과 지배인의 본의 아닌 실수, 조중 두 나라 일군들은 그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다문박식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2. 경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90(2001)년 4월 11일 서함흥－서호사이 좁은철길을 전기화한 정형도 료해하시였다.

새로 전기화한 좁은철길은 서함흥－서호사이를 오르내리는 통근렬차철길로서 하루에도 수천수만명의 근로자들이 리용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크지 않은 역사를 돌아보시고 내연기관차로 운영하던 좁은철길을 전기화한 정형과 도자체로 기관차를 생산한 정형, 하루에 렬차를 리용하는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리시면서 좁은철길을 전기화하여 로동계급의 출퇴근문제를 푼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역홈에 세워놓은 객차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차안을 어떻게 거두었는가, 좌석수는 얼마인가를 친히 알아보시고 철길이 좁아서 그런지 차가 흔들린다고, 렬차를 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으며 도자체로 만든 《자력갱생-1》호전기기관차를 보아주시면서는 전기기관차를 자체로 만든것도 자랑할만 하다고 대견해하시였다.

이때 한 수행일군이 그이께 시간이 많이 지체되였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기관차를 마저 보고 가자고, 함흥시민들이 리용할 기관차인데 걸만 보고 가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몸소 기관차에 오르시였다.

기관차내부를 세세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고속도차단기가 어데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고압실에 설치된 고속도차단기를 가리켜드리자 그이께서는 고속도차단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도에서 자체로 만들었다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만족해하시며 직류전동기는 어데 있는가, 솔은 어데서 만들었으며 무슨 솔을 쓰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에 대하여 보고드리자 그이께서는 솔의 질이 어떠한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솔에 대한 파악이 깊지 못하여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주밋거리였다.

그이께서는 솔의 질이 낮을것이라고, 직류전동기에 흑연솔을 썼으면 회전자의 마모는 적어질것이지만 그 질이 낮아서 애먹을것이라고, 직류전동기와 고속도차단기를 비롯한 조작기구를 자체로 해결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런데 솔의 질이 문제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솔의 질?…)

여러달동안 전기화된 좁은철길을 운영하는 과정에 그들은 기관차가 자기 속도를 내지 못하는가 하면 도중에 서기까지 하여 적지 않게 애를 먹었다. 하면서도 그 원인이 직류전동기자체의 견인능력이 약한데 있다고만 여기였지 솔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기관차운행에서 지장을 받는 원인이 바로 솔의 질에 있다고 즉석에서 튕겨주시는것이였다.

그후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직류전동기를 놓고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시험을 거듭하는 과정에 기관차의 견인력이 높지 못한 원인이 흑연솔의 질이 낮은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은 작은 부속품들의 기술적특성까지 다 정통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과학기술적식견에 놀라움과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정확히 맞추신 -15℃

주체 90(2001)년 9월 1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실 때 있은 일이다.

부대에서는 갱도식랭장고를 자체로 만들어 사시장철 군인들의 식탁을 푸짐히 하는데 효과있게 리용하고있었다.

극동실안을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온도가 몇℃나 될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올리는 일군이 없었다.

아직 측정해보지 못했다는 부대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 -15℃ 될가 라고 하시며 성에가 낀 극동실안으로 들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무슨 미타한 생각이 드시는듯 잠시 온도를 가늠해보시다가 안되겠다고, 이런 온도에서 고기를 며칠 보관하겠는가고, 고기가 마르는가 안 마르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랭동된 고기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여 몸소 손으로 그것을 눌러보기까지 하시면서 고기는 원래 -25℃~-30℃ 돼야 완전히 랭동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15℃에서 이렇게 고기에 물기가 있으면 한두달 되면 변질될수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고기를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극동실을 나서시면서 그이께서는 부대일군에게 지금 동무네 극동실온도는 -15℃밖에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떠나가신 후 부대일군들은 극동실의 온도를 측정해보았는데 눈금은 정확히 -15℃를 가리키고있었다.

처음 듣는 《특별강의》

주체 91(2002)년 2월 2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대홍단감자술을 국제시장에 나가서도 소문이 나게 만들데 대해 가르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술은 주정에 따라 상표형식과 색갈도 다르게 하고 병모양도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구에게라없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술의 래력과 이름, 주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얼굴만 마주볼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미소를 머금고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소주가 유명한데 25%짜리 감자술은 왜 소주라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소주는 주정이 낮기때문에 옛날부터 덥혀서 마시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술의 래력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시였다.

일본의 청주는 16%짜리이다. 일본에서는 력사적으로 청주를 일러왔다. 그들은 소주도 독하다고 하면서 잘 마시지 않았다. 워드까의 조상은 로씨야인데 주정은 42%, 45%이다. 그 나라에서는 42%아래의 술은 생산하지도 않는다. 워드까를 차게 하여 마시면 아주 향기롭다. 로씨야사람들은 랭동기에 얼음덩이를 보관해두었다가 그것을 술에 넣어 마시군 한다. 워드까가 마시기는 좋다. 중국의 이름난 술은 모태주와 빼주이다. 그 술들은 주정이 높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조선소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름난 술과 래력, 주정과 지어 마시는 방법까지 설명해주시였다.

일군들은 재미난 옛말을 듣는것처럼 그이의 가르치심에 심취되였다.

그것은 처음으로 듣는 술에 대한 《특별강의》였다.

그이께서는 해박한 지식과 상식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술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대홍단감자술은 국제시장에 나가서도 소문이 나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바다가에서의 《특별강의》

주체 97(2008)년 5 월 10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대흥수산기업소(당시)를 찾으시였다.

기업소일군의 해설을 들으시며 직관도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붉은대게잡이작업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붉은대게잡이작업방법을 직관도로 설명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잡은 붉은대게는 로씨야에서 잡는 대게보다 작다고, 로씨야바다는 붉은대게뿐 아니라 우랄게라는것도 있는데 이 게는 다리가 한쪽에 4 개씩 있는 게로서 다리가 크고 그안에 살도 꽉 차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계적으로 분포되여있는 각종 게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의는 현지지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행되였다.

1 만 t 능력의 물고기저장고앞에서 그이께서는 몇℃까지 낮출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25℃~-27℃까지 낮출수 있다고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저장고는 무슨 식인가고 물으시였다.

암모니아식이라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저장고가 암모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장고에 물고기를 보관하면 물고기가 걸마르고 맛이 없어진다고, 이 기업소에서는 -35℃~-40℃까지 내려가는 저장고를 하나 따로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그런 저장고에 물고기를 한 200~300t 정도 보관해두면 좋을것이라고, 원래 국가적으로 잡은 희귀한 물고기, 특수한 물고기는 -50℃에서 초급동하여야 한다고, 초급동을 하면 순간에 얼고 순간에 풀리게 된다고, 초급동을 하여야 물고기선도가 보장되고 맛도 그대로 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서는 실리를 보장할수 없다고,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 원양어로를 하

지 않으면 이 기업소는 앞으로 더이상 발전시켜나갈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잠시후 부두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국제적으로 비싼 고기가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한 수행일군이 물고기이름을 말씀올리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신 그이께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비싼 물고기는 다랑어라고, 여느 물고기는 아무리 많이 잡아 랭동고에 채워넣어도 다랑어 1t 값도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안타까운 어조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물고기의 생태환경이 달라져 우리 나라의 가까운바다에는 물고기가 거의나 없으며 특히 고급어족이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 최근에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는것을 두고 가르치심을 주신다는것을 직감한 한 일군이 지금 배들이 낡아서 당장 먼바다로 나가기는 곤난하다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가까운바다에는 수산자원이 얼마없다고 다시금 뇌이시고는 공동어로와 원양어로를 하자면 배를 갱신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그전에 보내준 배들은 이제는 낡았고 도덕적마멸이 되였을것이라고, 배는 가만히 세워두어도 선체에 섭조개와 바다풀같은것들이 달라붙는데 그것들을 긁어내느라면 배가 점차 못쓰게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또 한번 놀랐다.

짧은 시간에 물고기의 특성과 물고기잡이, 가공 등 수산업과 관련한 실로 다양하고도 많은 지식과 상식을 가르쳐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시종 경탄하여마지 않던 기업소의 한 일군이 부두에 서있는 새형의 다기능화된 배들을 가리키며 저런 큰 배에 정상적으로 기름을 보장하기가 어려워 지금 작은 배들로 연안에서 물고기잡이를 한다고 자책어린 목소리로 보고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은 아이들의 장난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배를 갱신하는것은 자신께서 해결할테니 동무들은 맡은 초소를 잘 지키라고 당부하시고 《특별강의》를 끝내시였다.

동해:서해-1:1

주체 44(1955)년 9 월 16 일 오전수업을 마친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점심식사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반찬을 나누어주기도 하시고 동무들의것을 허물없이 들기도 하시였다.

그런데 식사도중 몇몇 동무들이 이면수반찬과 칼치반찬을 놓고 동해의 물고기맛이 제일이다, 서해의 물고기맛이 제일이다 하며 서로 우기는 바람에 자연히 동해편과 서해편으로 나누어져 제 주장을 고집하기 시작하였다.

식사는 끝났으나 여전히 아퀴를 짓지 못한 학생들은 그이께 결론해주실것을 청드렸다.

한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가만 보니 동해에 고향을 둔 동무들은 동해편이 되고 서해에 고향을 둔 동무들은 서해편이 되였다고, 자신께서는 고향이 동해도 아니고 서해도 아니니 동해편도 아니고 서해편도 아니라고 웃음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학생들이 그러니 가장 공평하게 판결하실수 있다고 하면서 동해것이 제일인지, 서해것이 제일인지 어서 가르쳐달라고 조르자 그이께서는 두편의 주장이 다 옳다고, 우리 나라의 바다는 예로부터 동해나 서해나 남해나 모두 맛있는 물고기가 많은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명백히 찍어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린시절 지구의앞에서 어머님의 말씀을 옛말처럼 듣던 일이 생각난다고, 어머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있는 세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고 땅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여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 먼저 동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동해는 물고기자원이 아주 많아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고 하시자 동해편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해는 물의 온도가 다양하고 바다생물이 사는데 필요한 산소가 많으며 물고기들의 먹이가 아주 많다. 또한 동해는 찬물의 흐름과 더운물의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기때문에 열대성물고기와 한대성물고기, 온대성물고기가 다 모여들며 또 바다가 깊기때문에 겉층과 가운데층, 깊은 층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다 살고있다.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동해에서 살고있는 동식물이 수천종이나 된다. 동해는 서해보다 물고기자원이 많다.…

동해편 학생들은 어깨가 으쓱해서 우쭐댔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그이께서 그대신 서해는 동해보다 고급물고기가 많다고 하시였던것이다.

서해편 학생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서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고급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까는데 알맞는다. 서해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많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여 바람을 잘 막아주며 파도를 막아주는 섬들이 많아 비교적 잔잔하다. 서해는 물이 얕아서 물고기들이 알을 잘 낳으며 잘 까날수 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사는데 알맞는 온도가 보장되기때문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급물고기가 현재 3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그이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서해편 학생들이 으시댔다.

그러는 학생들을 보는것이 즐거우신듯 미소를 짓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동해는 물고기자원이 많고 서해는 고급물고기가많으니 이 두 바다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얼마나 좋은가고, 오늘 동해편과 서해편은 결국 1:1로 비겼다고 유쾌히 결론하시였다.

《룡정어》

주체 99(2010)년 11 월 21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룡정양어장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가죽잉어못에서 그물로 팔뚝같은 가죽잉어들을 건져내고있는 모습을 보시고 볼만 하다고, 기분이 좋다고, 가죽잉어들이 먹음직스럽다고 하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가죽잉어는 맛이 좋고 비린내도 나지 않는다고, 가죽잉어는 먹성이 좋기때문에 대단히 빨리 자라며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가죽잉어에 대한 상식도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죽잉어새끼못에 이르시여 이 새끼물고기들이 지난 6 월에 깨운것들이라고 하는데 벌써 손바닥만 해졌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가죽잉어의 원산지가 유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고기가 아무것이나 닥치는대로 먹고 빨리 자란다고 하여 이스라엘돼지라고 한다고 한다. 유럽사람들은 또 제나름대로 유럽잉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또 그들대로 이 물고기의 맛이 달고 향기롭다고 하여 향어라고 부른다고 한다….

어쩌면 물고기 한 종류를 놓고도 그 생태학적특성과 세계적인 동향에 대하여서까지 상세히 알고계실가 하는 감탄의 목소리가 일행속에서 울려나왔다.

양어장일군이 그이께 자기들이 가죽잉어종자를 들여다 알을 깨워 번식시키는 조건에서 그 이름을 달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올렸다.

그러자 일군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자신의 생각에는 룡정양어장에서 처음으로 기르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에서 《룡정어》라고 부르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기념비적인것이란

한생을 대부분 외교부문에서 사업하면서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념비들과 기념비적건축물들을 거의나 다 가본 한 일군은 자주 참다운 의미에서 기념비적인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군 하였다.

그러던중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견에서 찾고싶어 주체 78(1989)년 5월 18일 그이를 모신 승용차에 자리를 같이한 기회에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세상을 다녀보면 별치 않은것을 가지고도 기념비적인것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기념비적인것에 대한 주체적인 리해를 가지고싶다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기념비적건축물에 대한 주체적인 리해를 깊이 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원래 기념비는 고대사람들이 어떤 의의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우기 시작한 때로부터 생겨났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기념비를 탑이나 대문형식으로 세우면서부터 기념탑, 기념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기념비적건축물,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말하고있으며 새로운 문학예술작품이나 새로운 기술발명을 하고도 그것을 기념비적인 작품, 기념비적인 발명이라고 말하고있다. 자기 인민의 창조적재능을 널리 자랑하기 위하여 기념비라는 말을 즐겨쓰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누가 주장한다고 하여 결코 기념비적인것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어떤것을 기념비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가고 일군이 청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이 만들어낸 창조물가운데서 전인류적인 가치와 의의를 가지는것만이 기념비적인것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이 전인류적인 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인것이 되자면 어떤 요구가 충족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자 그이께서는 전인류적인 의의를 가지는 기념비적인것이 되자면 일련의 요구가 충족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인민대중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시대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야 기념비적인것으로 될수 있다고, 자신께서 말하는 시대상이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시대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반영한것을 념두에 두고있다고, 에짚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비록 당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지혜와 재능이 충분히 반영되였지만 거기에는 지배계급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여있을뿐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반영되여있지 않다고, 그러므로 자신께서는 에짚트의 피라미드와 스핑그스를 이름난 고적으로 인정하지 기념비적인것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미래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야 기념비적인것으로 될수 있다고, 자신께서 말하는 인류의 미래상이란 앞날에 살게 될 사람들의 지향과 념원, 그 시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추세를 반영한것을 념두에 두고있다고, 미국 시카고의 실스백화점은 443m 의 높이를 가진 초고층건물이지만 인민대중의 요구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스백화점을 가리켜 《아메리카적인 위세를 돋구기 위해 건설한 졸작》이라고 말하고있는데 모름지기 후세 사람들은 그런 집을 무엇때문에 지었는가고 욕할것이라고, 오늘의 시대상과 인류의 미래상이 아름답게 조화되여 먼 후날에 가서도 인민들이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인류적인 창조물, 이것이 기념비적인 창조물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박식과 도식

주체 65(1976)년 5 월 7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기념비적건물의 건축장식도안들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도안미술가들을 친히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큰 대상의 장식미술을 맡아 수고하고있다

고, 가지고온 도안들을 보자고 하시였다.

여러가지 도안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도안을 보면 아직 우리 도안미술가들이 시야가 좁고 창작에서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도안미술가들도 박식하여야 한다고, 머리에 든것이 없으면 도식에 빠질수밖에 없다고, 도안미술가들이 시야를 넓히려면 학습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시야를 넓히고 창조성을 높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 다른 도안들을 보자고 하시였다.

벽등도안은 집이 높아서 그렇게 하였는지 형태가 모두 길죽하여 볼멋이 없다는 그이의 지적에 미술가들은 얼굴을 붉혔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벽등장식이란 일반적으로 집의 층고가 높기때문에 길죽길죽하게 하여야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있은 자기들이였던것이다.

결국 자기들은 시야가 좁아 도식을 범하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하나의 형식으로 하면 볼멋이 없다고, 크리브는 초롱꽃형이나 단지형 기타 여러가지로 자기의 뚜렷한 형태를 가지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어떤것은 벽등이지만 무리등과 같이 방울이 세개짜리도 있고 네개짜리도 있고 우물등과 같은 형식도 있으면 다양해질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미술가들은 경탄어린 눈길로 그이를 우러렀다.

자기들의 창조적사색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통절히 느끼였으며 그이의 건축예술학적예지와 식견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밤길에서의 가르치심

주체 68(1979)년 1월 10일 깊은 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건설형편을 료해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륜환선거리 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천년을 헤아리는 건축력사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처럼 인민을 위한 건축물을 짧은 기간안에 많이 일떠세운 례는 일찌기 없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고대에짚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비롯하여 크고 호화로운 건축물들을 많이 건설하였지만 그것은 례외없이 국왕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정신적 및 물질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복무하였지 인민을 위한것은 하나도 없었다. 고대에짚트의 어느 왕묘는 10만명의 노예가 20년동안이나 건설하였는데 그 기간에 희생된 노예만 하여도 수만을 헤아린다. 옛날 국왕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자기들이 사는 궁전에는 높은 성벽을 둘러쌓았으며 거기서도 왕이 들어있는 건물에는 복잡한 도로와 여러개의 방을 지나서야 들어갈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고대의 건축사까지 속속들이 꿰드시고 착취계급의 반동성을 적라라하게 발가놓으시는 가르치심이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인민의 리해관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반동적인 부르죠아형식주의건축조류가 판을 치고있다고 하시면서 부르죠아형식주의건축조류는 광고와 《인기제일주의》를 추구하면서 내용은 없이 겉치레만 함으로써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며 낡은 생활양식을 되살리는 아주 반동적인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겨안은 일군들에게는 지난날 건축가들이 건축의 본질적속성문제를 놓고 실용성이 위주냐 조형성(사상예술성)이 위주냐 하는 끝없는 론전을 벌려오던 일이 선히 떠올랐다.

한때 《건축대가》들은 실용성과 조형성의 련관관계를 옳게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실용성만을 절대시하면서 건축을 기능주의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였는가 하면 또 후에는 실용성을 거세하고 인기적이고 광고적인 측면만을 제창함으로써 건축을 부르죠아예술지상주의의 함정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기간 건축리론실천상에서 제기된 그와 같은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실용성과 조형성을 다같이 건축의 본질적속성으로 규정하시면서 사상예술성이 동반된다는데 과학기술로서의 건축이 다른 과학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실용성이 부여된다는데 예술로서의 건축이 다른 예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을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서로 련관시켜 해결하여야 건축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설계에서의 새 기법

주체 64(1975)년 11 월 8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서는 한 건물의 건설현장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일군들이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해드리려 하자 그이께서는 설계도면을 보는것보다 직접 안에 들어가 내부구조를 보는것이 더 낫다고 하시며 현관쪽으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건물내부를 돌아보시면서 미숙한 설계와 거치른 시공에 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바로잡아주시면서 건물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창문들을 보아주실 때였다.

한동안 방안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건물이 웅장하고 방들이 큰데 비하여 창문이 작고 형식이 단조롭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방들에 들어서면 창문이 보이는것이 아니라 기둥이 먼저 보인다고, 매 방에 들어설 때 첫인상에 안겨오는것이 기둥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새삼스런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정말 그랬다. 먼저 안겨오는것이 기둥뿐이였다.

(왜 이렇게 되였을가?)

일군들은 설계가들과 마주앉아 토론할 때의 일이 생각났다.

설계가들은 그때까지의 건축리론대로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의 한면에서는 창문규격이 같아야 하고 창문들의 간격도 같아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크고 웅장한 건물일수록 똑같은 규격의 창문들이 같은 간격으로 놓이는것, 바로 그것이 규칙이고 건축미라는것이였다.

일군들이 오랜 기간 공인되여온 그 리론을 감히 부정할념을 못한채 설계를 시공단계에 넘겼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번에 설계의 부족점을 간파하신것이였다.

며칠후 그이께서는 단조롭던 창문들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수정한 설계를 다시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념비적건축물들에서는 기법이 중요하다고, 설계일군들이 새롭게 착상한것이 없다고, 건물의 형성안자체가 매우 단조롭고 양상이 다양하지 못하며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설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계에서 직선이 아니면 반원이나 그릴줄 알지 엑스자는 그릴줄 모른다고, 아빠트표준설계하듯이 만년대계의 건물에 그런 기법을 쓰면 되겠는가고, 기법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설계를 보면 양상이 이미 건설해놓은 건물들과 어슷비슷한데 결정적으로 고쳐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과 설계가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자로 하여 마침내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설계를 완성하였다.

완공된 건물은 말그대로 웅장화려한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솟아올랐다.

한순간에

주체 65(1976)년 1월 8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전람회장을 돌아보시다가 새로 꾸릴 전람관의 설계를 보아주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응접실을 설계대로 밖에 꾸리면 전람관을 참관할 때 응접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해서 들어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어디에서 휴식하게 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라고 하시였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여서 동행한 일군들은 아무런 대답도 올리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전람관에 모셔야 하겠는데 휴계실이 있어야 하겠다고, 수령님을 전람관에 모실 때에는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도 오고 간부들도 많이 오기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휴계실이 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전람관을 다른 나라 전람관식으로 올라가보고 내려가보고 하게 하지 말고 그저 평평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새로 꾸리는 전람관에 수령님을 모시자면 결정적으로 한번만 2층에 올라가서 돌아보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실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고나서 전람관과 휴계실사이에 련결복도를 만들데 대해서와 그 설계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련결복도문은 개방문으로 해도 좋은데 겨울에는 유리창문이나 유리미닫이문을 달게 하고 여름에 더울 때에는 떼버리게 하여야 한다고, 련결복도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 설계도면을 보신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였다. 그런데 도면의 부족점을 순간에 찾아내시고 그것을 고칠 방도까지 완벽하게 가르쳐주신것이다.

일군들에게는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되새겨졌다. 그날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한 대상건물의 설계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해 그이의 집무실로 찾아갔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였다.

그이께서 자신은 설계도면을 보는것이 재미있어 시간가는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설계도면에 방이름들을 쓰지 말라고 이르시였던 것이다.

게다가 그이께서는 한장도 아닌 수십장의 복잡한 설계도면을 자신께서 식별할터이니 안내글마저 쓰지 말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복잡하기 그지없는 구조물의 전모를 한순간에 파악하시는 비상한 안목!

그것이 어찌 건축에 대한 식견이 높고 넓어서만이랴.

영원히 타오르는 봉화

지금까지 세계에는 여러가지 기념비들이 많았지만 아직 사상을 칭송하여 세운 탑은 없었다.

이딸리아 삐사의 사탑, 영국 런던탑, 프랑스 빠리의 에펠탑…

그러나 주체사상탑은 그 모든 탑과는 전혀 다른 사상의 기념탑이다.

주체 68(1979)년 5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이 만든 형성안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도사상을 기념비화한다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창작가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탑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이기때문에 자신께서도 깊이 생각해보았다고 하시면서 주체사상을 탑으로 기념비화하는데는 여러가지 형상방도가 있겠지만 봉화가 제일 상징적일것이라고, 주체사상탑은 봉화탑으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많은 창작가들이 오래동안 고심하던 문제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순간에 해결되였다.

그이께서 여러 기회에 걸쳐 주체사상탑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가르치심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탑에 봉화를 올려놓아 붉게 타오르게 해야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물론 미래시대 사람들도 주체사상은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할것이다.

● 탑은 주체사상의 응당한 력사적지위에 맞게 화강암으로 탑신을 쌓고 《주체》라는 글발을 새겨넣어야 세계최상의 석탑으로서 평양의 하늘가에 영원히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 탑에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는것을 밝히는 헌시를 새기며 탑신은 수령님탄생 70돐에 건립한것을 상징하여 수령님의 로작을 쌓는 형식으로 70단을 쌓아올려야 한다.

● 탑앞에는 당마크를 든 로동자, 농민, 지식인 3인군상을 세우고 량옆에 조각군상을 앉혀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그 생활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 탑을 여러 나라에서 보내오는 진귀한 나무들과 지성품들로 잘 꾸려 그야말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충성의 마음에 떠받들리여 일떠선 결정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드디여 대동강반에 주체사상탑이 거연히 솟아올랐다.

과연 땅탓인가

주체 62(1973)년 11월 2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천군 화산협동농장(당시)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관리위원장과 함께 포전을 돌아보시며 알곡생산계획은 수행할수 있는가, 논벼는 정보당 얼마나 날것으로 예견하고있는가, 현금은 얼마씩 돌아갈것 같은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이 보고드리는 알곡예상수확고며 현금분배량

은 그리 시원치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농사가 잘 되였지만 화산협동농장에서는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농사가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관리위원장은 원래 이 고장은 땅이 척박한데다가 랭습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알곡소출이 낮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이 벌이 왜 척박하다고 그러는가, 이런 벌이 척박하다면 우리 나라에서 기름진 벌을 찾아보기 힘들것이라고 하시면서 농장관리위원장이 농사가 잘되지 않는 원인을 땅이 척박한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예로부터 부지런한 농사군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책감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를 보시고 지금은 하늘이나 땅을 믿고 농사지으려고 해서는 안되며 과학농사의 시대에 맞게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면 지금보다 알곡생산을 훨씬 더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장에 비료는 제대로 공급되는가, 지난해 토지개량사업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관리위원장은 비료공급정형을 보고드리고 토지개량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하여 솔직히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땅이 나쁘다면서 토지개량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알곡소출이 어떻게 올라갈수 있겠는가고, 땅에 정성을 쏟아붓기 전에는 풍년결실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준절한 어조로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땅이 척박한데는 흙깔이를 하고 유기질거름도 많이 내며 랭습지에는 땅속도랑을 설치하여 랭습피해를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들을 배치하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며 논물대기와 비료주기

를 비롯하여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절대로 지난날과 같이 낡은 농사방법에 매달려 농사를 일률적으로 지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는 골짜기마다 기후가 다르고 필지마다 토양성분이 다르기때문에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분석카드를 만들어놓고 그에 맞게 거름도 내고 비료도 구색이 맞게 제철에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히 하게 되면 알곡소출을 지금보다 2배는 더 낼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강령고구마

주체53(1964)년 8월 19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령군의 어느 한 리에서 태풍에 넘어진 산기슭의 강냉이들을 보시고 승용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와 군의 일군들로부터 태풍피해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군들에게 하시는 교시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골밭은 태풍피해를 좀 덜 받을줄 알았는데 피해를 받기는 매한가지라고 하시며 태풍이 수확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이 정도의 태풍피해를 받으면 강냉이 정당수확고가 적어도 30%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농장일군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태풍피해를 많이 받는 강령과 옹진일대의 밭들에는 강냉이를 심지 말고 태풍에 견딜수 있는 작물을 심어야 한다고, 강냉이를 계속 심어서는 농민들의 사기만 떨어뜨렸지 옹근소출을 걷을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밭에는 일률적으로 강냉이를 심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있던 일군들은 저으기 안타까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리가 나지 않아 누구도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는 그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름지기 강령군에도 농장원들과 담화해보면 그런 작물이 있을것이라고 튕겨주시였다.

한 젊은 일군이 있다고, 고구마라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주변밭들의 색갈이며 토양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시다가 확신성있게 강령군에서는 예로부터 조와 고구마를 많이 심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붉은 땅에는 고구마가 잘 될수 있다고, 고구마는 다수확작물이기도 하지만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피해가 없을것이라고, 강령군에서는 고구마를 심는것이 제일 안전할것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군의 실정에 맞는 다수확품종을 선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도에서 작물배치를 농장이 처한 구체적인 형편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정해주도록 말해주어야 하겠다고, 지금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라고 하였다고 과학적인 담보도 없는 작물을 내려먹이기때문에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떨어뜨리고 인민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국가계획위원회에 이야기하여 지금부터 고구마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령군사람들이 고구마의 덕을 톡톡히 볼수 있게 군소재지에 고구마가공공장도 건설하는것이 좋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령지구의 기후풍토에 맞는 보다 훌륭한 고구마다수확품종을 육종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강령군을 고구마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군의 식량문제를 풀고 다른 고장에도 보내주는 전도유망한 고구마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였다.

해마다 풍작을 이룩하여 군과 도는 물론 수도시민들에게까지 구수한 군고구마향기를 안겨주는 강령고구마는 바로 이렇게 태여났다.

대홍단감자농사

주체 87(1998)년 10월 1일 대홍단군종합농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감자농사형편을 알아보시였다.

일군은 그이께서 보내주신 우량감자종자를 심어 정보당 20t을 내다보고있는데 어떤 품종은 정보당 30~40t, 《라야》품종은 그보다 훨씬 더 날것 같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라고, 우리 당은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감자농사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신심에 넘쳐 가르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감자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다수확작물이라고, 강냉이를 심어서는 정보당 1t, 2t밖에 낼수 없는 고산지대의 밭에 감자를 심으면 정보당 20t, 30t씩 낼수 있으며 좋은 종자를 심고 비배관리를 잘하면 60t, 80t도 낼수 있다고, 감자를 정보당 30t씩 내도 알곡으로 환산하여 7~8t씩 생산하는것으로 되고 60t씩 내면 알곡을 15t 생산하는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대단한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쁨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 오늘 대홍단군종합농장에 온것은 감자농사정형을 알아보고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대홍단군에 와서 감자농사형편을 알아보니 우리 나라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감자농사는 한번 달라붙어 해볼만 한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시였다.

어떻게 다 아실가

주체 52(1963)년 8월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갑산군의 어느한 농장 호프포전을 찾으시였을 때의 이야기이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성한 잡초를 헤치시며 둔덕우의 호프밭으로 오르시였다.

호프줄기마다에는 꽃들이 탐스럽게 피여나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에게 호프는 몇년 자라야 수확을 하는가, 몇년 자란것이 수확이 제일 높은가, 그루바꿈은 몇해만에 하는가 등 호프재배의 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런데 누구도 똑바로 대답을 올리는 일군이 없었다.

호프농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탓도 있겠지만 기술학습을 잘하지 않은것이 분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의 일군들에게 호프는 량강도에서만 심는 추위견딜성작물이라고, 더운 곳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호프농사를 크게 해보지 못했기때문에 경험도 없고 기술지식도 부족한데 량강도에서 연구사업을 많이 해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호프뿌리를 파보자고 하시였다.

그러자 한 수행일군이 농장일군에게 빨리 가서 호미를 가져오라고 재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을 제지시키시고 웃으며 호미를 찾을것이 있는가고, 호프뿌리는 땅속에 깊이 들어가지만 뿌리들이 연하기때문에 나무꼬챙이로도 쉽게 파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손수 나무꼬챙이를 하나 찾아드시더니 그것으로 뿌리를 덮은 흙을 뚜지기 시작하시였다.

일군들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쯤 흙이 헤쳐지자 뿌리가 드러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손칼로 한뽐가량 잘라내시여 흙을 깨끗이 턴 다음 수령님께 올리시며 이것은 1958 년에 심었다는데 앞으로 한 20 년은 문제없겠다고 하시였다.

호프뿌리를 쉽게 파내실뿐 아니라 한눈에 뿌리의 영양상태를 헤아려보시고 그루바꿈시기까지 가늠하시는 그이를 우러러 일군들은 경탄과 함께 의문을 감추지 못하였다.

(개마고원의 호프밭에 처음 오셨겠는데 어떻게 호프재배에 대해서 전문가들처럼 다 아실가?!)

장군님께서는 이어 일군들에게 과학적자료가 없이 주먹치기로 호프농사를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루바꿈문제, 호프농사의 기계화문제, 가을철에 로력지원을 널리 조직하여 서리가 내리기 전에 호프꽃을 수확할데 대한 문제, 류산동을 절약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조선소로 더 많은 젖을

주체 50(1961)년 3 월 30 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덕천군 제남리 평화농업협동조합(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소에서 젖을 짜는 작업모습도 보아주시였는데 순하게 생긴 암소의 젖통에서는 하얀 젖이 쭉쭉 잘 나왔다.

그것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소에서도 젖이 잘 나온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평화농업협동조합에서는 조선소 한마리에서 젖을 하루에 8L 는 능히 짤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젖을 한해에 200 일 짜는것으로 보아도 1t 500 ㎏이상 문제없이 짤수 있다고, 조선소에서도 젖이 잘 나온다고 가르치시였다.

조선소에서 설마 그렇게야 나오랴 하고 생각하던 일군들은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였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창성군에서는 조선소 한마리에서 젖을 하루에 18L까지 짠다고 한다. 평화농업협동조합과 창성군의 경험은 조선소에서도 얼마든지 젖을 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과학자들과 축산기술자들은 조선소를 가지고서는 젖을 짤수 없다고 하였다. 평화농업협동조합의 이 조선소만 보더라도 젖이 잘 나오는데 왜 조선소를 가지고 젖을 짤수 없겠는가. 이제는 조선소에서 젖을 짤수 없다는것이 허무주의리론이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 나라 수의축산대학에서 리용하는 교과서들은 대체로 다른 나라의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번역하여 만든것이다, 수의축산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소도 다른 나라의 소를 연구하다보니 자기 나라의 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절름발이기술자가 되고말았다, 사회과학부문은 물론 자연과학부문에서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우선 수의축산대학 교과서들을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 편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자기들은 부림소로나 리용하던 조선소에서 이렇게 많은 젖을 짤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댔다는 일군들의 대답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젖소를 사들여올것이 아니라 조선소를 개량하여 젖을 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야 우리 나라에서 젖소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젖을 많이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선소가운데서 젖을 많이 짤수 있는 우량종을 골라내여 젖짜는 소마리수를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조선소에서 젖을 짜자면 먹이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젖소에 대하여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젖소라는것이 별다른 소가 아니다. 젖소에게는 풀도 많이 먹이고 풀김치도 만들어 먹여야 한다. 풀김치는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세멘트탕크를 만들어놓고 강냉이짚이나 풀을 썰어 거기에 소금을 친 다음 탕크에 채워넣으면 된다. 젖소에게는 호박과 단백질이 많은 칡 같은 먹이를 먹여야 젖을 많이 짤수 있다. 강냉이짚이나 콩깍지를 분쇄하여 오리제균처리를 한 다음 젖소에게 먹이는것도 좋을것이다. 집짐승에게 솔잎을 먹이면 집짐승의 위장도 튼튼해지고 소화기능도 좋아진다고 한다. 먹이가 부족하여 젖소에게 먹이를 잘 먹이지 못하면 젖을 많이 짤수 없다. 젖소마리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마리당 젖짜는 량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어느 지방에서나 다 젖소를 기를수 있고 먹이용으로 강냉이와 호박을 다 심을수 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모든 농업협동조합들에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젖소를 15～20 마리씩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완성된 다음에는 부림소를 농사일에서 해방시켜 젖소로 전환하면 젖도 더 많이 짜먹을수 있고 새끼를 내여 고기도 먹을수 있으며 가죽도 쓸수 있다.…

일군들은 그이의 해박한 지식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안남도에서 덕천군을 조선소를 젖을 짤수 있게 잘 기르는 시범단위로 만들고 그 경험을 다른 군들에 일반화하여 도안의 모든 군들에서 조선소를 잘 길러 우유를 생산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군당위원장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농업협동조합들에서 조선소를 젖을 짤수 있게 잘 기르면 우유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동무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반드시 관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선소에서 젖을 짤수 없다고 하던 일군들의 그릇된 견해는 바로잡혀졌으며 그후부터 이곳 조합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젖소에 대한 사양관리를 잘하여 마리당 하루젖생산량을 12L로 늘이였고 매일 400여L의 우유를 생산하여 군안의 어린이들과 공장로동계급에게 공급하게 되였다.

기술자가 무릎을 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6(1967)년 1월 5일 평양시의 어느한 가금목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이미 어둠이 깃든 때인지라 닭들은 바닥에 놓인 먹이그릇에 적지 않은 먹이를 그대로 남겨놓은채 모두 홰대에 올라 잠을 청하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닭들이 먹이를 먹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기술자는 닭들이 어두우면 먹이를 먹지 않고 홰대에 오른다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그러면 왜 닭우리에 불을 켜지 않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닭우리에 불을 켜다니?!)

기술자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는 기술자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에서 여름철 밤에 이집저집에서 모기성화를 피하느라고 처마에 전등불을 내걸고 마당에는 모기쑥불을 피워놓은 다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새끼도 꼬고 재미나게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그때 닭들도 불빛 환한 마당가를 계속 돌면서 밤가는줄 모르고 열심히 먹이를 쫓는다고, 닭의 그 생활습성을 리용하면 비육속도를 빨리 높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밤에 닭우리에 불을 켜고 먹이를 주면 닭들이 저녁 일찍 홰에 오르지 않고 계속 먹이를 먹을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닭을 빨리 키울수 있을것이라고, 이것은 별로 품이 드는 일이 아니므

로 조금만 관심을 두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기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하면서 닭의 비육상태를 관찰하였다. 하였더니 63일령 닭무게가 종전보다 0.6~0.8㎏이나 더 늘어났다.

기술자는 무릎을 치며 탄성을 올렸다.

닭들이 싸움을 그만두다

주체 58(1969)년 6월 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황해북도 송림시의 어느한 닭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알낳이호동가운데서 한 호동만 기계화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닭은 몇마리나 넣었으며 그중 알낳는 닭은 몇마리나 되는가, 하루에 닭알은 얼마나 낳는가고 물으시였다.

호동에 닭을 14만마리를 넣었으며 그중 알낳는 닭은 6만 5천마리이고 하루 알낳는 량은 4만 5천개정도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럼 알낳이률이 얼마나 되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62%밖에 안된다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알낳이률이 62%이면 닭 한마리가 226개 낳는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낮은 수준이라고, 닭 한마리가 적어도 1년에 250개는 낳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순간에 년간 닭 한마리의 알낳는 수자를 계산해내시는 그이의 비상한 암산력에 일군들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이께서는 호동에 들어서시여 기계화정형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시고 황해제철소에서 적극 도와준데 대하여 평가하신 다음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목장을 기계화하여 알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여야 황해제철소 로동계급과 시민들에게 닭알을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다. 3.8닭알목장에서 204호동의 기계화를 잘하였는데 그 경험에 토대하여 모

든 호동들을 기계화하고 점차 생산공정을 다 자동화하여야 한다. 황해제철소에서는 앞으로도 3.8닭알목장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 호동들에 배풍시설을 갖추어놓아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시고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환기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때 닭상자안에서 갑자기 닭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닭들이 계속 저렇게 싸움을 하는가 하는 그이의 물으심에 관리공은 닭들이 서로 싸우다가 어떤 때는 털이 다 빠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닭싸움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별로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다는 관리공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주둥이를 잘라주면 닭들이 싸움을 하지 못하기때문에 병아리때 주둥이를 전기로 지지든가 쇠꼬치를 달구어 지지면 된다고, 그래도 먹이를 쪼아먹거나 크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였다.

일군들과 관리공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처음 들어보는 닭싸움방지대책이였던것이다.

비상한 암산력, 신통한 닭싸움방지대책…

참으로 놀랍기만 하였다.

그후 닭알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였더니 닭알생산량이 껑충 뛰여오르고 닭들도 싸움을 그만두었다.

닭의 신경질

주체 56(1967)년 9월 1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한 닭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병아리들을 보고 만족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아직 큰닭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종자알을 낳는 엄지닭도 있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큰닭을 좀 보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를 큰닭들이 있는 호동으로 안내하여드리면서 이 호동에 있는 닭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알을 깨워 키운 첫 고기용닭들이라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몸집이 큰 아주 좋은 닭이라고, 이런 큰닭을 처음 본다고, 닭을 잘 키웠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수령님께서 구상하신대로 우리 나라 가금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귀중한 밑천이 마련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동무들이 수고했다고, 정말 큰일을 해놓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고기용닭무리에 섞여있는 닭 한마리를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저 닭도 고기용닭이 옳은가고, 신경질적으로 모이를 쫓는 저 닭이 혹시 알용닭이 고기용닭무리에 섞인것이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들이 의아하여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고기용닭은 성질이 느긋하여 덤비지 않지만 알용닭은 신경질적인것이 특징이라고, 모름지기 저 닭은 알을 많이 낳는 닭일것이라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그 닭을 붙잡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무게가 가볍고 앞가슴골격이 알용닭과 같았다. 그리고 그 닭이 낳은 알을 보니 크기가 작고 색갈도 흰색이였다.

그이께서 짐작하신대로 그 닭은 고기용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알을 많이 낳는 닭이였다.

일군이 이 닭이 고기용닭이 아니라 알용닭이 분명하다고, 그런데 이 닭도 같은 품종이긴 하다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이 닭이 다른 품종이였다면 숱한 잡종이 생길것이 아닌가고, 또 그 닭이 같은 품종이라고 하지만 2~3 대에 가서는 고

유한 특징이 없어질것이 아닌가고 하시면서 심중히 타이르시였다.

서로 다른 품종이나 같은 품종이라도 계통이 다른것이 섞이는것은 결국 원종육종사업의 실패를 의미한다. 원종은 나라의 가금업에서 핵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원종육종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잡종화되여 원종육종사업을 망칠수 있다. 서로 다른 품종이나 계통이 단 한마리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시고는 지금처럼 넓은 닭우리안에 칸이나 몇개 막아서 닭을 사양하는 방법으로는 순종을 유지할수 없다고,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바구니 같은데다 병아리를 개별적으로 받아 기르는 방법도 있을수 있지 않는가고 일군들의 생각을 틔워주시였다.

오리《종합강의》

주체 93(2004)년 10 월 9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오리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오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종금으로 키우는 순안종오리가 제일 크고 잘 생겼다고 하시며 순안종오리는 다른 오리들에 비하여 체통이 크고 목이 짧으면서도 굵은것이 특징이라고, 순안종오리는 알깨움률도 높고 종자 한마리당 고기생산량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리는 군집력이 매우 강하다. 아마 집짐승들가운데서 군집력이 제일강한것이 오리와 말일것이다. 오리와 말은 자기 무리와 떨어져 있는것을 싫어하며 자기 무리를 보면 그곳에 찾아가지 못하여 안달이 나한다. 그리고 오리와 말은 서로 뭉쳐돌아가기 좋아한다. 오리는 무리중의 한마리가 어디로 가면 그 무리의 오리들이 다 따라가

고 한마리가 소리를 지르면 모든 오리들이 다 소리를 지른다. 오리는 쌍붙기도 자기 무리의 오리와만 하려고 하지 다른 무리의 오리와는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리는 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면서도 습기는 싫어한다. 오리들의 영양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것은 털의 윤기와 부리색갈, 눈자위를 보고 알수 있는데 사양공들이 오리의 이런 특성들을 잘 알고있어야 오리사양관리를 잘 할수 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일군들에게 오리는 공기요구량이 다른 가금들에 비하여 4배나 높기때문에 호동안에서 기르는것보다 야외오리사에서 기르는것이 낫다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야외오리사에서 얼마든지 오리를 기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오리생태전반에 대한 《종합강의》였다.

토끼종축사에서

주체 97(2008)년 1월 25일 해도 뜨지 않은 이른새벽부터 장강군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평협동농장(당시) 토끼작업반에도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퍼그나 늘어난 토끼사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토끼종축사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 8년전에 돌아보신 건물이였다.

인민군대에서처럼 토끼를 많이 기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토끼사를 전보다 4배 되게 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잘하였다고, 대단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량옆으로 특색있게 꾸려진 우리안에서는 여러종의 토끼들이 재롱스레 뛰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이건 무슨 품종인가고 물으시였다.

대관얼럭토끼와 자산회색토끼라는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대관얼럭토끼에 대해서는 자신께서도 파악이 있다고 하시면서 토끼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였다.

그 토끼우리는 그이께서 인민군대토끼목장을 돌아보시면서 높이 평가하신 굴형식토끼우리에다가 상자식을 배합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아주 잘하였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에서 굴형식의 토끼우리를 만들어놓은것을 보고 새로운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오늘 여기에 와보니 인민군대에서 한것보다 또 새롭게 하였다고, 인민군대에서 만든 토끼우리를 좀더 발전시켰다고 교시하시였다.

새로 개건한 토끼사와 약제조실, 실험실 등을 빠짐없이 돌아보시면서 좋은 점을 평가해주신 그이께서는 토끼기르기를 더 잘하기 위한 이런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 토끼기르기에서도 종자가 기본이다. 앞으로 더 좋은 우량품종의 토끼들을 많이 길러야 하겠다.

● 종축칸에서 새끼밴 토끼와 쌍붙이기를 한 토끼, 쌍붙이기를 하지 않은 토끼들을 갈라놓고 관리를 하면서 새끼를 생산하고있는것은 좋은 방법이다.

● 새끼토끼들을 많이 받아내여 군안의 농장세대들뿐 아니라 로동자, 사무원세대들에도 공급하여야 한다.

● 수토끼와 새끼낳이률이 떨어지는 토끼들을 비육시켜 인민군대에도 보내주고 작업반을 관리운영하는데도 쓰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다.

● 토끼기르기를 잘하자면 우량품종의 토끼를 많이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수의방역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하다. …

타조가금업의 탄생

주체 86(1997)년 11월 22일이였다.

이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만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타조에 대해서 아는것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타조를 동물원이나 TV화면에서 몇번 본것외에 아는것이란 별

로 없었던 그 일군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밋거리였다.

그러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타조기르기가 매우 흥미있다고 하시며 타조를 많이 길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타조고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먹이단위는 소고기를 생산하는것보다 10 분의 1 이나 적고 양고기를 생산하는것보다도 훨씬 적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타조를 기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타조는 병에 잘 걸리지 않을뿐 아니라 1 년정도 키우면 몸무게가 120 ㎏이상 되며 알 한개의 무게는 평균 1.5 ㎏으로서 닭알 40~50 개와 맞먹는다고, 가죽과 털의 질이 좋아 국제시장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타조야말로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리상적인 가금이라고 하시며 타조의 생태학적특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사실 그들은 머나먼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사는 타조를 동물원의 관상용만으로가 아니라 조선에서도 가금으로 기를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고난의 행군시기에 조선에서는 타조가금업이 탄생하였으며 인민들은 특색있는 타조고기료리를 맛볼수 있게 되였다.

깨여진 과수《법칙》

주체 56(1967)년 10 월 7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해기슭에 자리잡은 국영온천과수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두그루의 사과나무를 가리키시며 이쪽 나무에는 사과가 많이 달리고 알도 굵은데 저쪽 나무는 왜 그렇지 못한가, 같은 밭인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고 물으시였다.

두그루의 사과나무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한그루에는 사과가 많이 열려서 가지가 휘늘어졌는데 다른 한그

루에는 알수도 적게 열린데다가 사과알도 크지 못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과가 적게 달린 사과나무는 키도 더 크고 잎도 무성하였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사과가 적게 달리고 알이 작은것은 지력이 높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지력을 높이자면 땅을 깊이 파고 3요소비료와 유기질비료, 미량원소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지에 달린 사과알을 보시면서도 땅속깊이의 미묘한 세계를 속속들이 꿰뚫어보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린비료를 많이 주어야 알이 커지고 맛도 달다고 하시면서 시비량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윽고 사과나무앞으로 다가가신 그이께서는 사과가 많이 달린 나무에서 가지 하나를 휘여잡으시고 꽃눈을 손수 세여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사과달림률을 높이자면 수세를 좋게 하는것과 함께 가지자르기를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과나무세력이 좋아지는데 따라 가지자르기를 기술적으로 잘하여야 한다고, 가지자르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나무의 수세를 바로잡고 과일을 많이 달리게 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지자르기를 잘해야 태양광선을 잘 받고 통풍이 골고루 되며 빛합성이 잘된다고 하시면서 가지자르기에서 중요한것은 결과부위를 많이 남기는것이라고, 가지끝을 자르면서도 쓸모없는 가지만 자르는것이 좋겠다고, 사과나무는 키가 큰데 사과가 달리지 않은것은 가지자르기를 기술적으로 하지 못한데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예리한 통찰력에 또다시 탄복하여마지 않았다.

그해 봄 과수농장에서는 나무모양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꽃눈을 고려함이 없이 가지들을 지나치게 잘라버리였던것이다.

그러나 일군들은 사과가 많이 달리지 않은것을 해거리현상으로 해석하면서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한데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어떤 수종의 과일나무이건 한해동안 결실이 좋으면 그 이듬해에는 수확고가 떨어지기마련이라고 하는것은 오랜 세월 과수업부문에서 화석처럼 굳어진 하나의 《법칙》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수업부문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이 기존개념에 구애됨이 없이 사과나무의 모양새를 보시면서 과학적인 가지자르기방법을 밝혀주시는것이였다.

하나의 범상한 현상에서도 사물의 본질을 속속들이 꿰뚫어보시는 그이의 예지에 의하여 과수부문에 화석처럼 굳어졌던 《법칙》은 깨여지고 과일농사에 새 방법이 도입되게 되였다.

1 000=2 만

주체 99(2010)년 6 월 6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아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이날 일군들을 황홀하게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과수원 1 000 정보를 조성하면 논밭 2 만정보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였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은데 만족하지 말고 계속 분발하여 과수밭면적을 더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나라 산간지대나 강냉이와 벼가 잘되지 않는 지방에서는 과수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더 실리가 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 그전에 여기에 과수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논과 밭에서 벼와 강냉이를 정보당 5~6t 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과수밭을 조성하여 사과를 정보당 50t 생산하는것으로 보면 그것을 팔아 강냉이는 100t 이상, 벼는 80t 정도 사올수 있다.

지금 국제시장에서 사과값이 쌀값보다 더 비싸다.…

그이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생산하는 사과는 공해를 입지 않았기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것이라고, 그러니 웬만한 땅에는 과수원을 꾸리는것이 결국 벼나 강냉이농사를 하는것보다 훨씬 더 실리가 있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얼른 속구구를 해보았다.

정보당 강냉이와 벼소출이 5t 정도인 논밭을 과수원으로 전환해서 정보당 50t 의 사과를 생산하여 팔면 100t 의 강냉이를 사올수 있다. 결국 정보당 20 배의 강냉이를 생산하는셈이다.

20 배, 그러니 1 000 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면 2 만정보의 밭을 얻게 되는것이다.

1 000=2 만!

일군들은 입을 딱 벌렸다. 굉장한 실리였다.

잠업에 대한 조예

주체 47(1958)년 9 월 18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어느한 원잠종제조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마주누에잠실에 이어 먹이풀밭을 돌아보시는 동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과 대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원잠종제조소에서 누에원종을 생산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원원종을 받아다가 실고치누에알을 생산하는 원종을 제조하고있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원원종은 어디서 받아오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농업성 잠업모종장에서 받아온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원원종은 모종을 량적으로 늘여 원종이나 쉬붙임원종을 생산하기 위한 누에알이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그렇다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잠업에 대한 책을

읽어보았는데 잠업에서 순종보존을 위한 모종, 원원종, 원종보존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며 원종보존체계를 세우는데서 이곳 원잠종제조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일군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분명 중학교학생인데 잠업에 대한 조예가 참으로 깊구나!...)

그이의 해박한 잠업지식은 시간이 갈수록 일군을 더욱 놀래웠다.

그이께서는 잠업을 발전시켜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비단생산의 원료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누에고치생산을 늘이자면 누에알을 많이 마련해야 하며 좋은 누에알을 제철에 원만히 공급하자면 누에치기를 잘하고 종자고치보호, 알받기 및 알보호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가둑나무번식시험포전과 뽕나무밭을 돌아보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뽕나무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가이상의 가르치심을 주시여 일군들을 놀라게 하시였다.

누에치기를 널리 벌리자면 뽕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그러자면 산간지대, 중간지대의 비탈밭에 뽕밭을 많이 조성해야 한다. 뽕나무는 심기만 해서는 안된다. 뽕나무를 잘 가꾸어 뽕잎의 질을 높여야 한다. 뽕잎의 질을 높이자면 질소, 과석을 비롯한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뽕나무에는 꼭 과석을 주어야 한다. 뽕누에와 함께 피마주누에, 가둑누에도 많이 쳐야 한다. 길섶이나 공지에 피마주도 많이 심고 야산들에 가둑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면 먹이문제가 풀릴것이다.…

원종누에생산뿐 아니라 뽕나무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다시금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어쩌면 저리도 박식하실가?!)

3. 문 화

교원들의 자책과 감탄

주체 51(1962)년 5 월 25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리학부 경제지리강좌사무실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경제지리는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며 나라의 국토건설총계획과 경제발전전망계획작성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목이므로 누구든지 홀시하면 안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조선경제지리교육이 자기의 사명에 맞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있는감이 든다고 하시며 가지고오신 조선경제지리교과서를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과서가 우리 당의 경제정책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하여 잘 만들어지지 못한것 같다고, 생산력배치문제가 바로 그렇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력배치문제는 경제지리과목의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라고, 조선경제지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력배치문제를 우리 당의 경제정책에 맞게 옳게 풀어야 한다고, 그런데 조선경제지리교과서에서는 생산력배치문제가 우리 당의 경제정책에 맞게 바로 서술되지 못하였다고, 조선경제지리교과서에는 나라의 생산력은 《국제분업》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씌여있다고, 나라의 생산력을 《국제분업》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생산력배치를 《국제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는것은 뒤떨어진 나라를 특정한 나라의 경제적부속물로 만들려고 꾀하는 대국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그이의 지적을 받고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이께서 밝혀내신 교과서의 치명적인 결함은 투철한 당정책적

안목과 주체적립장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간파할수 없는 심중한 리론실천적문제였다.

당시의 조선경제지리교과서에 서술된 《국제분업》이란 흐루쑈브를 괴수로 하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쎄브의 경제운영방법을 념두에 둔것이였다.

교원들은 교과서를 당장 개작하겠다고 말씀올리면서 이번 기회에 생산력배치문제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실것을 청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생산력배치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요구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경제부문들사이에 옳은 균형을 보장하고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며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원칙에서 생산력을 배치하도록 하고있다. 생산력배치에서는 국방상요구도 고려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생산력배치상태는 전후 몇해사이에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조선경제지리교과서에 생산력배치문제를 우리 당정책에 맞게 고치는것이 좋을것 같다.…

강좌장이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교과서내용을 빨리 수정해야겠다고 하면서 그이께 교원들의 교수방법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경제지리교수방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고있는 교수방법도 일부 고쳐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조선경제지리과목교수에서 생산력배치의 일반적원리와 우리 당의 경제정책에 기초하여 현존생산력배치의 합리성과 함께 부족점을 밝히고 그 개선방향을 제기하며 나라의 지리적조건을 경제발전에 어떻게 전망성있게 리용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깊이있게 강의할데 대한 의견을 주시였다.

교원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이 심화될수록 자책이 컸고 동시에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해박한 식견에 거듭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선생의 선생

주체 46(1957)년 1 월 29 일 조선지리수업시간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리교원은 조선자연지도에서 금강산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 학생들에게 금강산에 대하여 누가 아는껏 말해보라고 하였다.

어떤 학생은 금강산에는 금이 많아 금강산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금강산은 경치가 멋있다는 등 어디서 들었거나 책에서 본 어정쩡한 대답들을 하였다.

이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금강산은 예로부터 절승경개로 이름난 천하의 명산이라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봄이면 새싹이 움트고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다고 하여 금강산, 여름이면 나무가 우거져 그 그늘이 좋아 봉래산, 가을이면 온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풍악산, 겨울이면 흰눈에 덮인 기암절벽들이 보기 희한해 개골산으로 불리왔다고, 금강산은 이렇게 천하의 절승일뿐 아니라 땅속에는 중성광을 비롯한 자연부원이 무진장한 보배산이라고, 금강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와 이곳 인민들의 투쟁이야기도 깃들어있다고, 금강산은 앞으로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계인민들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문화휴양지로, 명승지로 더 잘 꾸려질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교원은 선생인 자기보다 아시는것이 더 많은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다시 상기시킨 다음 수업을 마치였다.

교원이 교실문을 나섰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따라나오시며 수업에서 금강산과 같은 아름다운 명승지들과 주요도시, 항만, 공

장들을 배워줄 때에는 사진과 같은 직관물을 리용하면 더 좋을것 같다고, 오늘만 봐도 학생들이 책에서나 보고 말로만 들은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진 명산인지 잘 모르는것 같다고, 현지에 가보면서 수업을 하였으면 실감이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직관물을 리용하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본다고 하시였다.

교원은 정말 그렇다고, 앞으로 직관물을 리용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싶은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겸허하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모든 수업을 순수 지식만 넣어주는데 그치지 말고 학생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과 결부시키는것이 좋겠다고 본다. 오늘 금강산에 대한 수업에서도 그렇다. 금강산은 우리 나라의 자랑인데 이 이름난 금강산을 취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제 나라를 잘 알고 제 나라를 귀중히 여길줄 아는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줄수 있다고 본다. 그러자면 교원들이 강의안을 잘 작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의안에 강의제목과 과목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정책적요구를 반영하면 수업이 우리 당의 교육목적에 맞게 진행될수 있다고 본다.…

교원은 다시한번 놀랐다.

그러면서 조국의 자연지식에 해박하실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수업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의 리익과 나라의 현실에 맞는 새롭고도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계시는 그이를 배우는 학생으로만 대할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교원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선생의 선생이심을 확신하였으며 그이를 학생으로가 아니라 스승으로 존경하였다.

중학시절과 독서

주체 44(1955)년 7월 23일 방학간 등교일이여서 학교에 나가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동무를 데리고 댁으로 돌아오시였다.

그이께서 학습하시는 방으로 들어서던 학생은 깜짝 놀랐다.

도서관같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책장마다에 빼곡이 차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굳어진듯 서있는 학생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왜 그러고 서있는가, 어서와서 마음에 드는 책을 뽑아서 보라고 이르시였다.

학생은 책장앞에 다가섰지만 무슨 책을 볼지 몰라 망설이였다.

책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은 물론 각종 정치도서들, 문예서적들과 과학기술도서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도서들이 정연하게 꽂혀져있었다.

학생은 그중 여러권의 책을 뽑아놓고 펼쳐보았다.

그런데 책들마다에는 중요군데들에 밑줄을 그으시였거나 참고부호를 쳐놓으신것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읽으신 흔적과 활달하신 필체로 책의 간단한 내용과 느낀 점을 써넣으신 종이들이 끼워져있었다.

학생은 다른 책들을 더 뽑아보았다.

《닭기르기》, 《무선공학》, 《화단조성과 꽃재배》, 《조선기후자료집》…

역시 그 책들에도 그이의 필적이 어리여있었다.

전문기술서적들을 비롯하여 실로 그이께서 보시지 않는 책이 없었다.

학생은 경건한 마음으로 어느 시간에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으셨는가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그저 짬짬이 보았다고, 책읽는데 열성만 있다면 시

간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아버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자는데 있다고,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룩하자면 앞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우리들이 책을 많이 보고 많은것을 깊이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들이 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자라날수 있으며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학생은 다른 책들은 몰라도 《닭기르기》라든가 《화단조성과 꽃재배》와 같은 책은 전문가도 아닌데 읽으시여 무슨 소용이 있는가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버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고 닭기르는 방법을 연구하고계시기에 자신께서도 보았다고 하시며 무엇이나 다 알아두는것이 좋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은 그제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예지와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계시는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고, 특히 중학교시절에 책을 많이 보아야 한다고, 중학교시절에 책을 많이 보아야 여러 분야의 지식을 많이 습득할수 있고 쓸모있는 인재가 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학생이 골라놓은 몇권의 책들에 흰종이들을 끼워주시면서 무슨 책이나 읽는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깊이 새기면서 읽고 느낀 점을 여기에 적어넣으라고 이르시였다.

내각도서실에서

주체 51(1962)년 12월 16일 오후 내각사무국 도서실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나온 철학교재들과 참고서들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여러권의 철학도서들을 가져다드리며 새로 출판된 《변증법적 및 력사적유물론》과 《조선철학사》, 《맑스-레닌주의철학》, 《철학사》라고, 그런데 철학도서들은 리해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리였다.

철학이 좀 힘들다고, 대학생들도 철학과목을 힘들어한다고 응수하신 그이께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철학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철학을 알아야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적세계관?!...)

여태 철학이란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힌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라는 개념외에 혁명적세계관과 련관시켜 생각해본적이 없었던 일군들이였다.

일군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지 알고싶다고 청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철학공부를 하는데서 철학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로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철학의 사명을 바로 리해하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목적과 내용, 방법론을 옳게 선정해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철학계에서는 철학의 사명을 밝혔다고 하지만 주체적립장에서 밝히지 못하고있다. 로동계급의 철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형이상학적철학세계관과 관념론적철학세계관이 대두하여 정신이 1 차인가, 물질이 1 차인가를 놓고 수세기동안 론쟁을 벌리였다. 19 세기 40 년대에 나온 맑스주의철학은 이 상반되는 철학사상의 대립과 론쟁을 계급투쟁의 반영으로 보고 철학의 사명을 계급투쟁에 복무하는데 귀결시켰으며 철학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해방투쟁의 정신적무기로 되여야 한다는 혁명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철학이 발생하여 한세기나

넘는 이때까지도 철학의 사명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의 운명개척에 복무하는 무기로 보지 못하고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철학교재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았고 참고서들에서도 언급된것이 별로 없다. 맑스는 실천에 이바지하는것이 철학의 사명으로 된다고 보았다.…

그이께서는 물론 인식과 실천의 호상관계에서 보면 철학의 사명이 실천에 복무하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벌리게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는가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라고 본다고, 따라서 철학의 사명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철학의 사명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

철학의 사명을 실천에 이바지하는것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초월하여 인간활동의 목적과 직결된 심오한 사명이 담긴 전무후무의 탁월한 명제였다.

인류의 철학사가 아직도 숙제로 남긴 철학의 사명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드디여 내려지는 사변적인 순간이였다.

철학계의 높은 연단이 아닌 수수한 도서실에서 인류철학사의 제한성을 순간에 밝혀내시고 철학의 사명을 주체적인 견지에서 새롭게 정립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지성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철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기뻐하는 일군들을 미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그런데 지금 철학교재나 참고서들 1 에 철학의 사명이 명확히 해설되여있지 못하다보니 대학생들도 무엇때문에 철학학습을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모르고 무턱대고 암송하는 식으로 학습하고있다고, 그러니 철학공부가 따분하고 힘들수밖에 없다고, 철학교재들의 체계와 내용을 철학의 사명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잘 편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운명에 대한 철학강의

주체 76(1987)년 2월 15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과 함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감상하신 다음 교향곡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괴로와하며 몸부림치는듯 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작품의 제목이 《운명》인데 운명에 대해서는 판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곡이라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어보면 자기앞에 부닥친 불우한 운명에 저항하려고 몸부림치는 그자신의 의지를 읽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으시였다.

도이췰란드의 이름난 작곡가인 베토벤은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 자기집 문을 《탕, 탕》 두드릴 때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아,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과연 어떤 운명의 문이 열릴것인가? 내 운명은 이렇게 되여야만 하는것일가?》라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기의 고뇌를 선률에 그대로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교향곡 《운명》이였다.

결국 참다운 운명개척의 방도를 모르고있었던 베토벤은 자기의 슬픔과 번뇌를 교향곡에밖에 담을수 없었고 불안과 고독, 절망속에서 한생을 불우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들이라고, 주체사상은 이 진리를 핵으로 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전개되여있다고,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진수이며 여기에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이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고,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것이라고, 철학의 기본사명은 바로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하나의 교향곡으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길지 않았지만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심오한 사상이 담긴 철학강의였다.

주체철학과 인간철학

주체 63(1974)년 4월 2일 한낮무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사회과학자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여왔는데 그는 편지에서 주체철학을 인간철학으로 풀었다고, 그가 사람을 동물과 대비하면서 마치 동물의 속성이 사람의 속성으로 발전완성된것처럼 썼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철학에 대하여 그전부터 생각해오는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리론을 하는 동무들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주어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그날 당리론선전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주체철학에 대한 리해를 옳바로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따뜻이 맞아주신 다음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고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면서 주체철학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철학이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위주의 철학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편지를 보내온 사회과학자의 견해를 보면 주체철학을 마치 인간철학과 같이 리해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래 인간철학은 발생한지도 오래고 또 여러가지 류파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순수 인간문제를 대상으로 하고있다고, 인간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하고 주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문제를 론하는 하나의 인생철학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주체철학은 이와는 다르다고, 주체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철학의 근본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이며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단순히 인생관이 아니라 세계관을 밝힌 원리이라고,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철학은 인간에 대한 견해도 선행철학과는 달리 새롭게 밝힌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한 맑스주의 고전가들도 인간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지만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전면적으로는 밝히지 못한데 대하여, 오직 주체철학만이 처음으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해명,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준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고, 이것은 그 어떤 철학사상도 이룩할수 없었던 주체철학의 커다란 공적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민족의 징표

주체 49(1960)년 10월 4일 조선력사강의가 한창인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1학년 교실의 분위기는 자못 팽팽하였다.

조선민족의 형성문제에 대하여 강의하던 교원은 고전에 서술되여있는대로 민족을 특징짓는 네가지 공통성 다시말하여 언어의 공통성, 지역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화생활의 공통성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성격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어야 한 민족으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민족문제를 자본주의시대에 형성된 력사적범주로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공통성가운데서 어느 한가지만 빠져도 한 민족이 될수 없다고 하였다.

강의가 끝날무렵 한 학생이 일어나 민족의 형성문제를 고전에 비추어 평가하게 된다면 해외에서 사는 조선동포들은 조선민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고 질문하였다.

해외동포들이 조선민족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였으나 고전의 명제를 가지고 풀자니 똑똑한 해답을 찾을수가 없었다.

교실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휴식종이 울렸다.

교원은 학생들에게 좀더 연구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강의를 마쳤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속에서 벌어진 론쟁은 오전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였다.

학생들의 열기띤 론쟁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이상 정확한 해명을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된다고, 민족은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강토안에서 한피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같은 조선민족이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못이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이다. 그런것만큼 재일동포들이 지금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있지만 그들도 조선민족이다.…

그러시고는 선행고전에서 그 어떤 만능의 공식을 찾아보려는 그릇된 관점, 고질병을 뿌리뽑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수령의 결정적역할

주체 52(1963)년 6월 12일이였다.

이날 두번째 강의가 끝난 다음 대학생들은 늘 그러하듯이 강의에서 취급된 내용을 가지고 론쟁을 벌리였다.

론쟁의 초점은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이라고 보는 유물사관의 원리에 기초한다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어떻게 보는것이 정확하겠는가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인가 아니면 인민대중의 역할인가 하는것이였다.

여러 학생들이 인민대중이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요인을 인민대중의 역할로 보아서는 안된다는것,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 요인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로 보는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유물사관의 원리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사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고 한 학생이 물음을 심화시켜 제기하자 누구도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하였다.

학생들의 론쟁을 주의깊게 들으시면서 그들스스로가 옳은 해답

을 찾을것을 기대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실 결심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전쟁승리의 요인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고 한것은 옳다고 보지만 론쟁문제를 잘못 선정한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과 수령의 역할을 대립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것은 아마 수령을 탁월한 개인으로 본것과 관련되여있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맑스주의유물사관에서는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수령의 역할을 개인의 역할의 테두리안에서 취급하였다고, 수령의 역할을 탁월한 개인의 역할의 테두리안에서 보는것은 옳은 분석방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것을 리해하자면 맑스주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였는가 하는것을 력사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18세기 프랑스의 전투적유물론자들, 맑스전의 최대의 유물론자였던 포이에르바흐, 엥겔스, 로씨야의 인민파들과 그 반대자인 쁠레하노브 등의 주장을 거론하시며 이 문제에 대한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맑스주의이전에는 개인들의 취미, 감정, 의지가 사회발전의 근본요인으로 되며 걸출한 개인들, 영웅들에 의하여 력사가 창조된다고 보는 주관주의적사회력사관이 지배하였다.

맑스주의유물사관은 물질적부의 생산자인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며 대중에 복무하는 개인은 력사발전에서 긍정적역할을 하지만 대중의 의사를 거역하는 개인은 부정적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유물사관이 나온 이후에도 로씨야의 인민파들은 계속 《적극적

영웅론》과 《소극적대중론》을 설교하면서 개인테로전술에 의거함으로써 로동운동과 맑스주의를 결합시키는데 부정적작용을 하였다.

맑스주의자들은 인민파의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였으나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던 나머지 수령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수령을 개인으로 보는 오유를 범하였다.

이때로부터 맑스주의철학서적에서는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과 개인의 역할이라는 문제가 설정되고 해설되였으며 수령의 역할도 개인의 역할의 테두리안에서 취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역할을 걸출한 개인의 역할로 고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가르치시였다.

대학생들은 놀랐다.

그것은 맑스주의철학의 허점을 정통으로 찌른 가르치심이였던 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이전의 걸출한 개인들은 전체 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대표자였으며 사회적운동에서 일시적으로 선도자의 역할을 하였으나 대중의 요구에 맞게 그들을 향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수령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론거에는 실로 빈틈이 없었다.

마디마디, 구절구절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 다시말하여 그이에 의하여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창시되는 수령론의 알맹이와 같은 명제들이 주옥같이 번쩍이고있었다.

그이께서 가르치신 수령론의 알맹이와 같은 명제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전체 인민의 리익의 최고대표자이다.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출한 역할을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뇌수의 지위를 차지한다. 개별적사람의 뇌수가 유기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관할하는 중심으로 되듯이 수령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단합되지 않는다면 인민대중은 사분오렬되고 무기력한 존재로 되고말것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령도함으로써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은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된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이자 곧 수령의 결정적역할이다.

좌중에서 탄성에 이어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것은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청년대학생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매혹과 격동의 폭발이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수령을 단순한 개인으로 묘사하고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과 신뢰를 《개인미신》이라고 모독하고있다고, 이것은 수령과 대중을 대립시키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수령과 인민대중은 혼연일체를 이룬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인민대중 전체를 위한것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수령님의 령도밑에서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서는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무장시키고 탁월한 전략전술로써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타승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긍지높이 교시하시고 론쟁을 결속하시였다.

다시 검토된 모순법칙

주체 52(1963)년 4 월 26 일이였다.

강의를 마친 학생들속에서 론쟁이 벌어졌다. 론점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서 배운것처럼 모순이 발전의 원인과 동력으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이였다.

-모순이 많을수록 사회발전과정이 촉진된다.

-모순법칙이 사물발전에서는 타당하지만 이 법칙을 절대적인것으로 보아서는 안될것 같다.

대체로 우와 같은 주장들이였지만 누구도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지는 못했다.

학생들은 미소를 지으고 자기들의 론쟁을 듣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이 문제를 해명해주실것을 청드렸다.

그 청을 쾌히 받으신 그이께서는 철학의 원리는 혁명실천과 결부시켜 연구하여야 정확히 리해할수 있지 일부 동무들처럼 혁명실천과 동떨어져 연구하면 리해할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헤겔의 관념변증법에 대하여 개괄하신 후 맑스-레닌주의철학에서는 관념변증법을 유물론적으로 개작하여 변증법을 전개하고 모순을 운동, 발전의 원천으로 보는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모순을 자연, 사회발전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레닌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이 변증법의 핵심으로 된다고 보았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내놓게 된것은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와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고, 그때에는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이 대립되여있었으며 로동계급은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자본주의제도를 없애고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다고, 이런 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모순이 사물발전의 원인, 동력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하게 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맑스주의철학이 밝힌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원리

에는 오늘의 혁명실천의 견지에서 볼 때 다시 음미하여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사고하며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인민의 혁명실천에 복무하도록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도덕적통일이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공고성의 기초이며 사회발전을 떠밀고나가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고, 이러한 현실은 모순이 발전의 원인과 동력이라는 리론으로써는 설명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당의 불패성의 원천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당을 강화발전시키자면 당내에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요소와의 투쟁을 강화하여 그것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때 종파분자들은 모순이 발전의 원천이라는 기성리론을 악용하여 당이 발전하려면 당안에 모순이 있어야 하며 당내모순을 조장시키자면 종파가 있어야 한다는 허황한 《종파유익설》을 들고 우리 당에 도전해나섰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 당은 당안에서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불건전한 요소를 철저히 뿌리뽑고 당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당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놓고보면 모순을 사물발전의 원천으로 보는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부정당한 자연사적과정

《공산당선언》은 맑스와 엥겔스가 공동집필하여 1848 년 2 월에 내놓은 맑스주의의 대표적저서의 하나이다.

인류사상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공산당선언》에 밝혀진 사

상이 지난 시기 로동계급이 혁명을 하는데서 지침으로 되여온것으로 하여 1960 년대초까지만 하여도 학계에서는 이 저서에 서술된 내용들은 모두 완전무결한것으로 인정되여왔다.

주체 50(1961)년 1 월 26 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대학생들이 《공산당선언》에 대한 토론과 론쟁을 벌릴 때의 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산당선언》을 학습하면서 서문내용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엥겔스가 1883 년 《공산당선언》의 도이취어문판 서문에서 자본주의에 이르러 억압받고 착취받는 계급인 로동계급이 사회를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인 자본가계급으로부터 해방될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사상이 《공산당선언》을 일관하고있는 근본사상이라고 쓴데 대하여 언급하신 다음 이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사회발전과정을 물질적부의 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적필연성에 따라 진행되는 자연사적과정으로 보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고 교시하시였다.

학생들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들도 동감이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속하여 하시는 가르치심은 실로 뜻밖이였다.

그이께서는 그런데 사회력사를 자연사적과정으로 본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력사는 사람의 목적의식적활동에 의하여 발전한다고,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는 사람이라고,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떠나서는 사회법칙이 작용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도 객관적인 사회발전의 법칙이라고, 그러나 이 법칙도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떠나서는 작용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객관적인 법칙의 작용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고, 사회력사발전과정은 반드시 사람의 발전정도와 그들의 목적의식적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유물사관이 완벽한가

주체 52(1963)년 7 월 19 일이였다.

이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철학과목에 대한 학과토론이 한창 열기를 띠고 벌어지고있었다.

주되는 론제는 맑스주의학설의 력사적지위문제였다.

한 학생이 엥겔스의 저서 《맑스의 분묘앞에서 한 조사》에 기초하여 맑스의 사상리론적업적을 평가하였는데 그만 도수를 넘다나니 맑스가 서거한 다음에는 그가 발견한 원리를 조건과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 발전시킬수는 있었지만 누구도 어떤 새로운 원리를 발견할수 없었다는 식으로 토론하였던것이다.

물론 유물사관과 잉여가치학설의 발견은 인류사상사발전에 이바지한 맑스의 2 대발견이다. 그렇다고 하여 맑스의 유물사관을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있는가.

그럴수 없다.

그러면 맑스의 공적은 무엇이며 유물사관이 완벽한가.

론의는 분분하였다.

일부 학생들의 교조주의적사고방식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맑스의 유물사관을 더 발전시킬 여지가 없는 완전무결한것으로 평가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심오한 사상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상리론은 력사적으로 발전한다고, 사상리론은 새로운 명제로 보충될수도 있고 원리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전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레닌은 맑스의 학설을 제국주의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명제로 맑스주의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으나 원리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맑스와 레닌이 비록 자본주의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활동하기는 하였지만 다같이 자본주의시대에 살며 활동하였기때문이다. 레닌은 맑

스의 원리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으며 새로운 원리를 첨가하지도 않았다. 원리에서의 근본혁신은 아무때나 가능한것이 아니다.…

하다면 새로운 사상은 어느 시대에 나오게 되는가.

그이께서는 저으기 흥분어린 어조로 사상이 차지하는 력사적지위는 그것이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어떤 내용을 새롭게 담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상을 요구한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지도리념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시대도 제국주의시대도 아니며 세계적범위에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하고있는 력사의 새시대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사상발전에 참말로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창시는 선행사상가들의 과학적발견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교조주의, 사대주의적사고방식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주체의 세계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연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장군님의 저술방법

주체 79(1990)년 10 월 하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한 지방에 내려가 여러날째 현지지도의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그러던 10 월 25 일 아침이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두툼한 종이묶음을 끼시고 일군들이 모인 방으로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지난밤에 동무들을 돌려보내고 글을 썼다

고, 이것이 그 원고이라고, 이 원고를 돌려보아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원고를 읽어보는 동안 잠간 바람이라도 쏘이시려는지 밖으로 나가시였다.

일군들은 긴 탁상에 앉아 원고를 한장씩 읽고 곁사람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륜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첫장을 받아 제목을 읽어보는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제목만 보아도 그이께서 글에서 다루신 주제령역이 심오한 철학문제라는것을 대뜸 짐작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바쁜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나마도 간밤 몇시간사이에 이런 글을 쓰시다니?!

처음부터 놀라운 심정에 잡혀 원고장이 넘어오는족족 받아읽은 일군들은 어느사이에 무아경에 빠져버렸다.

주옥같은 명제인 원고에서는 우선 주체철학을 유물변증법과 결부시켜 해석하려는 일부 사회과학자들의 견해의 부당성이 사리정연하게 밝혀지고 주체철학의 독창성이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되여있었다.

다음으로 주체철학이 밝힌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진화론적, 생물학적견지에서 분석하려는 비과학적인 학설이 심오히 분석비판되여있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새 사회건설의 3대개조사업 즉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사업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주어져있었다.

원고는 그야말로 대단한 저작이였다.

그런데 이런 저작을 그토록 짧은 시간에 집필탈고하시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실이였다.

그들이 원고를 다 읽고났을 때 그이께서 방안으로 들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주체철학의 원리문제에 대하여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그릇되게 소개하다보니 주체사상이 외곡선전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였다고 허두를 떼시고는 일군들에게 의견을 말하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자자구구 명언이라고, 글에 취해서 시간가는줄 몰랐다고, 이 원고를 당장 단행본으로 찍어 학자들과 일군들을 교양했으면 한다고 자기들의 소감을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의견이 없다면 발표하도록 하자고 하시며 겸허하게 웃으시였다.

원고출판문제가 일단 락착되자 한 일군이 스스럼없이 그이께 현지에서 바삐 보내시면서 그처럼 깊이있는 글을 어떻게 그리도 빨리 쓰시였는가고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자신에게는 글 쓸 시간이 따로 없다고, 그런데 써야 할 글은 많다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격으로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일을 하면서 머리속으로 글을 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일을 하면서 늘 사색한다고,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해답을 주어야 할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머리속으로 글을 쓴다고, 밥을 먹으면서도 문장을 만들고 길을 걸으면서도 문맥을 이어나가며 차안에서도 론제를 세우고 사업을 토의하면서도 짬짬이 내용을 전개해나간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이렇게 머리속으로 글을 써서는 그것을 외워둔다고, 자신께서 정작 방에 앉아 글을 쓰는 시간은 머리속에 써서 외워둔 그 글을 종이에 옮겨놓는 시간이라고, 말하자면 필사시간이라고 하시였다.

그 누구보다 긴장하게 사업하시면서도 동시에 머리속으로 저술사업을 하시는분!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비범한 자질에 경탄하고 또 경탄하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속필로 쓰신 글이 바로 그이의 유명한 로작 《주체철학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였다.

생산의 세요소

주체 49(1960)년 12월 28일 대학생들이 얼마후에 있게 될 시험과목에 대한 학습에 열중하고있었다.

어떤 동무들은 소곤소곤 토론을 하고 어떤 동무들은 중얼중얼 외우기도 하고…

맑스의 《자본론》에 있는 생산의 세 요소에 대한 내용이였다.

그런데 모두가 《자본론》에 서술된 리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부지런히 외울내기를 하는 한 동무에게 한가지 물어보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생산의 세 요소를 로동, 로동대상, 로동수단이라고 하는데 로동이 어떻게 되여 생산의 한 요소로 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강의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씌여있기때문에 로동이 생산의 한 요소라는것을 법칙적인 개념으로 알고있다고 대답올렸다.

그이께서는 고전가들이 내놓은 명제라고 하여 또 교과서에 그렇게 씌여있다고 하여 그 뜻을 음미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일수야 없지 않는가고 가벼이 나무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학생들에게 누구든지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깨치며 그이께서는 시험에 앞서 집체토론을 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학습하는데 제머리로 사고하지 않고 교조적으로 사고하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고 하시면서 학습에서는 언제나 창

조적립장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시고는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볼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선행고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방금 진행한 학습토론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학습토론과정에 토의된 생산의 세 요소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져야 하겠다. 일부 동무들은 맑스가 《자본론》에서 로동과 로동대상, 로동수단을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뜻을 따져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있는데 이것은 좋은 학습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고전에 있는 명제를 그대로 외우지 말고 우리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옳게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가져야 한다.…

신중한 생각에 잠겼던 동무들이 이구동성으로 생산의 세 요소에 대한 그이의 견해를 알고싶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생산의 요소라고 하는것은 물질적부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말하는것이다. 물질적부의 생산은 로동력을 가진 사람이 로동수단을 가지고 로동대상에 작용하며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맑스는 로동력이 아니라 로동을 생산의 요소로 보았다. 로동은 로동력을 소비하는 과정 다시말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로동은 생산과정에서 사람이 가지고있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생산의 한개 요소로 되는 물질적실체는 아니다. 그러한 로동이 물질적실체를 이루는 로동대상, 로동수단과 한 계렬에서 생산의 요소를 이룰수는 없다. 로동은 생산과정의 한 계기로 될수는 있으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질적요소로 될수는 없다.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로력, 설비, 자재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이미 《자본론》에 씌여있는것이라고 하여

로동대상, 로동수단과 함께 로동을 생산의 한개 요소라고 하는것은 교조적인 태도이다. 생산의 요소로는 로동이 아니라 로동력이 되여야 한다. 우리는 생산의 세 요소를 로동력을 가진 사람과 로동수단, 로동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생산의 요소문제에 대하여 더 연구해보는것이 좋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한다는것은 기성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받아물지 말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이라고, 자기 머리로 사고한다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정책에 기초하여 사고한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다시 쓴 론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어느날 대학의 한 교원은 제국주의의 죄상을 폭로하는 제강을 학술적으로 잘 만들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대학안에서 제국주의와 관련한 학술분야에서는 권위자로 인정되여있던 그는 별로 어렵지 않게 여기고 곧 제강작성사업에 착수하였다.

마침 자신이 이미 준비했던 학위론문을 요약하여 제강화하는 작업이다보니 글쓰는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 제강작성사업이 거의 끝날무렵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집필하신 학과론문에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론문제목이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였던것이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이의 학과론문을 펼쳤다.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에 대하여, 현시기 제국주의침략의 악랄성과 교활성에 대하여,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부인하는 수정주의자들의 견해의 반동성에 대하여라는 체계로 집필된 학과론문은 지

금까지 정치경제학계에서 취급해본적이 없는 론문이였다.

론문의 서론부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여있었다.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를 맑스와 엥겔스는 밝히지 못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독점전자본주의시기에 활동하였으므로 제국주의를 보지도 못하였고 론의할수도 없었다.

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은 레닌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를 비롯한 일련의 저서들에서 19 세기말 20 세기초에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난 새로운 현상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의 특징과 력사적지위를 밝히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보다 새롭고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여 현대제국주의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과 침략적본성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궤변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론문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를 밝히고 현대제국주의는 단순한 독점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구식민주의가 아니라 신식민주의에 의거하고있으며 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종속적으로 재편성되고있으며 장성강화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쇠퇴몰락하면서 최후발악하고있는 제국주의라고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을 정식화하고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이께서 천명하신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은 제국주의에 대한 종전의 모든 견해들을 멀리 밀어제낀 전혀 새롭고 위대한 발견이였다.

그때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반세기전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하여

산업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제국주의일반에 대해서만 론의하였으며 현시기 제국주의의 제 현상에 대해서도 개개의 사실과 사건들을 폭로하는것으로 그쳤다.

그러다보니 그가 쓴 학위론문이나 당시 대학에서 강의하고있던 정치경제학의 제국주의편 그리고 순회강연을 위해 썼다는 제강도 이 틀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이리하여 그 교원은 위대한 장군님의 학과론문에 준하여 학위론문집필과 제강작성을 다시하게 되였으며 그후 정치경제학교재의 제국주의편도 다시 쓰게 되였다.

조세와 현물세

주체 51(1962)년 1 월 13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학급에서는 정치경제학과목시험을 앞두고 조세문제와 관련한 토론이 열기띤 분위기속에서 벌어졌다.

농업협동조합에서 국가에 바치는 현물세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의 일종인데 그렇다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조세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론의의 초점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 4 차대회 보고에서 가까운 앞날에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신것으로부터 출발한 론쟁이였다.

선행리론에서는 조세문제를 국가의 존재와 결부시키면서 조세의 성격도 국가의 계급적성격에 기초하여 규정하였고 조세의 본질도 국가가 국민소득을 재분배하여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선행리론으로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과업을 타당성있게 해명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으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조세문제를 국가의 존재, 그 기능과만 결부시켜보았기때문

이였다.

그들의 론쟁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세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한 학생에게 물으시였다.

그 학생은 조세 그자체가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나서부터 수천년동안 존재해온것이기때문에 국가의 존재와 결부시켜보아야 할것 같다고 대답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조세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동무들이 토론한것처럼 지금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고있는 현물세는 조세의 일종이다. 조세는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나서부터 수천년동안 근로자들을 수탈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주민들에게 조세부담을 들씌우며 그 수입으로 통치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통치배들은 국가권력을 쥐고있기때문에 조세를 인민들에게 강요할수 있었던것이다. 지금까지 조세라면 의례히 국가권력과 련관시켜 생각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다. 지난날의 재정리론들도 거의다 조세문제를 국가의 존재와 결부하여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가 주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경제적기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과 같이 조세를 국가의 존재와 결부시켜 설명하면 조세페절문제는 비교적 장구한 기간 해결할수 없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며 아직도 조세문제를 국가의 존재문제와만 결부시켜보아야 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학생들은 서로 마주보며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세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려면 조세문제를 국가와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제와도 결부시켜 잘 설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여야 인민대중의 원한이 스며있는 조세의 략탈적 성격과 그 역할을 제대로 밝혀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세는 사적소유에 의거하고있는 착취사회의 고유한 경제적현상이라고, 국가가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소유,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다면 국가와 사회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세공간을 리용하지 않고도 국가소유의 기업소들에서 얻어낼수 있을것이라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시였다.

황당무계한 《리론》

주체 51(1962)년 10월 24일 한 일군을 만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보시던 문건을 보여주시며 이 자료들을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것은 통신자료였는데 거기에는 《계획, 리윤, 상금》이라는 《쁘라우다》에 실린 하리꼬브공업대학 교수 리베르만의 경제론문이 전재되여있었다.

일군은 한번 얼핏 읽어보기는 하였는데 기억에 남은것은 그리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그러면 점심시간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남아있으니 이야기나 좀 하자고 하시며 그 일군과 외국학자의 경제론문을 놓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이 글이 문제가 있는 글이라고 하시면서 글의 내용을 설명해주시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유럽의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경제건설에서 일정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경제장성속도가 떠지고 기술발전이 낮은 수준에 놓이였다. 이렇게 되자 많은 나라들에서 그 타개책을 사회주의적방법이 아니라 자본주의적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제리론이 바로 리베르만의 《리론》이였다.

리베르만이 주장하고있는 《리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관리에서 《리윤본위제》와 《자치제》를 실시하자는것이였다.

그의 론리에 의하면 어느 사회에서나 경제발전의 종합적인 지표는 자금과 리윤이며 그것을 더 많이 얻자면 기업체들이 이런저런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해야 하며 상금과 같은 우대제를 많이 적용하여 생산자들의 로동의욕을 자극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지어 그는 《리윤은 황소의 코와 같다. 그것만 틀어쥐면 사회주의경제라는 황소는 저절로 끌려온다.》고 하면서 리윤경제를 극구 주장하였다.

그이께서는 이런 《리론》이 과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맞는것이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하여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일군은 좀더 연구해보아야 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리베르만의 《리론》에 대하여 확고한 주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리베르만의 《리론》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개별적단위의 리윤추구와 자유화를 찬미하는 그자체에 벌써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런데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제관리에 받아들여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경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관리운영되여야 한다고 본다고, 만일 침체상태에 들어간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출로를 모색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적방법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경제를 망쳐먹는 결과를 가져올뿐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 그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한마디로 리베르만의 《리론》은 사회주의사

회라고 하는 전기기관차를 낡은 증기기관으로 운전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는 황당무계한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정확한 사상과 리론이 없다보니 각양각색의 범벅리론이 다 나돌고있다고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유럽의 한 랑만주의작가는 《칼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고 돈은 사람의 정신을 죽인다.》고 하였는데 경제의 자유화는 리베르만이 주장하는데로 결코 많은 리윤을 가져다주지 못할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불피코 심각한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우려된다.…

일군은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높은 정치적식견에 거듭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력사는 그이의 예언의 비범성을 뚜렷이 증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벌써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근 30년후에 빚어질 파국적인 후과를 환히 내다보시였던것이다.

위인의 졸업론문

주체 53(1964)년 초봄에 들어서자 대학과정을 마치게 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저저마다 졸업론문을 쓰느라 여념이 없었다.

따라서 자연히 모두의 관심은 이제 곧 발표하게 될 졸업생들의 론문에 쏠리고있었다.

그중에서도 류달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쓰시는 졸업론문이였다.

-그이의 선택

위대한 장군님께서 졸업론문집필을 준비하실 때 한 교원은 그이께 론문제목을 알고싶다고 청드리였다.

그의 청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졸업론문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문제를 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교원은 저으기 놀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사상은 혁명실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였는데 그때까지만도 그것을 깊이있게 해설하고 론증한 글은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바로 그 문제를 졸업론문으로 선택하신것이였다.

이로부터 교원은 외람되게도 졸업론문과제로서는 문제가 너무 방대하고 집필기간도 짧을것 같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내용과 정당성을 론증하는 글을 쓰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가볍게 웃으시던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정당성이야 이미 증명된것인데 그것을 또 증명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옳은 방도가 무엇인가를 찾는것인데 대학강의를 들어보아도 추상적인 일반론이 많고 이런 면을 밝히는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성리론이나 증명하는 론문은 한갖 리론에 지나지 않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론문이라야 혁명과 건설을 위한 사상적무기로 될수 있다는 심오한 의미의 말씀이였다.

결국 그이께서 쓰시려는 론문은 단순히 대학졸업을 장식하고 학력과 준비정도를 평가받는 글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사상의 본질과 정당성, 그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정확히 깨우쳐주고 인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리론활동이였다.

다시말해서 그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가장 완벽한 체현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구현자만이 내릴수 있는 력사의 선택이였다.

-변론장을 휩쓴 열풍

주체 53(1964)년 3월 18일, 대학의 졸업론문변론장은 수많은 학자들과 교원, 학생들로 붐비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론문제목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이였다.

연단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먼저 사회주의건설의 원대한 전망을 내다보시고 군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이번에 발표하신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

군의 역할을 높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이다.

현시기 군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이어 그이께서는 론문의 첫째체계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고 둘째체계에서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의 역할과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론문의 셋째체계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련계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도시와 농촌사이의 경제적제공간과 그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변론을 마치시면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력사적의의와 정당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언명하시였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해설하면서 그것이 선행리론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에 제기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실천하여본 일이 있었던것처럼 주장하고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한다.

…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장내는 열광적인 박수갈채로 떠나갈듯 하였다.

일찌기 그 어느 철학가도, 그 어느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농촌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명하신 그이앞에서 누구인들 격동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변론장을 휩쓴 감격의 열풍이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론문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며칠이 지나간 어느날 웬일인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침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였다.

기다리다 못해 한 녀성일군이 집무실로 찾아갔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문건을 보고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녀성일군이 아침식사시간이 퍼그나 지났다고 조용히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미안하다고, 곧 가겠다고 하시였지만 그로부터 한동안이 지나도록 여전히 내려오지 않으시였다.

녀성일군이 망설이다가 다시 계단에 올라서려 하는데 마침 그이께서 두툼한 문건을 그냥 보면서 내려오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식탁을 마주하시고서도 문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국이 다 식는다고 말씀올리면서 그가 안타까와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이윽고 문건에서 시선을 떼신 그이께서 마감장을 덮으시더니 훌륭하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며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것이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영문을 몰라하는 그에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보내온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론문인데 제목도 새롭고 내용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아주 잘 썼다고, 아직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였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격정을 누르시는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흥분된 어조로 이르시였다.

나는 지금까지 혁명을 해오면서 책을 많이 보았다. 맑스나 엥겔스, 레닌이 쓴 고전들은 물론이고 한다하는 교수, 박사들이 썼다는 론문들과 제노라 하는 리론가들의 글도 보았으며 소설도 많이 읽었다. 그중에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준 책들도 많다. 그래서 나는 항상 책을 인민대중 다음가는 스승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도 이 론문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 이 론문은 정말 흠잡을데 없는 만점짜리 글이다. 정연한 론리와 일목료연한 체계,

명확하면서도 풍부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거창한 미래를 담고있는 이런 론문은 말그대로 사상리론의 대가만이 쓸수 있다. 내가 글을 보면서 오늘처럼 기쁘고 흥분하기는 처음이다. …

(수령님께서 사상리론의 대가로 불러주신 그분은 과연 누구일가?)

일군이 이런 의문에 잠겨있는데 그이께서는 나직이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외우신 다음 그는 자신의 사상을 100% 계승하고 자신께서 개척한 혁명위업을 100% 완성할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며 사상리론의 천재이라고 감동에 겨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세상사람들이 아직 그가 써낸 글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깜짝 놀랄것이라고, 그에게는 사실 천재라는 말이 부족하다고 교시하시였다.

끝없는 환희로 가슴들먹이던 녀성일군은 불쑥 그이께서 아직 아침식사를 들지 않으셨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마음을 다잡고 어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오늘아침엔 먹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기쁘면 저절로 배가 부르는 모양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더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라고,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그가 있는 한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크나큰 만족감을 표시하시였다.

《구석기문제, 연구해볼것!》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신 얼마후였다.

조선력사시간에 원시사회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교원은 강의에서 당시 학계가 정립한대로 조선에는 구석기시대가 없었다고 하면서 신석기시대문제만을 취급하였다.

모두가 흥미진진한 눈으로 교원을 바라보며 강의에 집중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혹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고급중학교시절에도 이 문제를 놓고 밤을 새우시며 연구하고 론

쟁을 벌리신적이 있었지만 끝내 아퀴를 짓지 못하신것인데 다시 부닥치고보니 이번엔 그냥 스쳐지날수 없으시였다.

한것은 그것이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기원문제, 조선력사의 유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더욱더 심각하게 부각되여 안겨오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펼쳐놓은 학습장에 힘있게 쓰시였다.

《구석기문제, 연구해볼것!》

그로부터 며칠후인 주체 49(1960)년 9월 29일이였다.

학생들속에서는 조선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열기띤 론쟁이 벌어졌다.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누구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에게로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벌렸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려면 반드시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하여야 한다고, 지금 일부 고고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아직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는 구석기시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것은 과학리론적으로 심히 그릇된 견해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지난날 일제어용학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시대유적이 발굴되지 못한것을 기화로 하여 조선에는 원래 구석기시대가 없었고 그때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일제어용학자들의 주장은 조선민족의 《렬등성》을 《론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며낸 허황하기 그지없는 날조품이다. 우리 나라에서 아직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발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없었다고 단정할수가 없다.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에서도 이미 구석기시대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였는데 그가운데는 우리 선조들의

거주지역과 아주 가까이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 나라와 가까운 주변지역들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 문제는 아직 구석기시대유적들이 발굴되지 않았을뿐이지 태고적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이께서는 구석기시대유물이 아직 발굴되지 못한 원인도 일부 력사학자들의 사대주의적관점과 결부하여 보아야 한다고,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의 존재문제는 반드시 주체적립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구석기시대의 유물과 유적들도 많이 찾아낼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구석기시대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학술토론회가 벌어지고 구석기시대유물조사발굴대가 무어져 여러 지방에 파견되게 되였다.

3 년후에 함경북도 선봉군 굴포리(당시)에서 구석기시대 중기의 유적이 처음으로 발굴되였고 몇년후에는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당시)에서 구석기시대 전기의 유적이 새롭게 발견되였으며 련이어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과 평양시 력포구역 등지에서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뼈화석과 수많은 유적들이 나타났다.

인류는 이렇게 되여 또 하나의 자기 발원지, 자기 문화의 발상지를 찾게 되였다.

《삼국통일》론을 검토하라

주체 49(1960)년 10 월 29 일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과 그 력사적의의》에 대한 학과토론시간때였다.

이날 토론은 신라에 의한 삼국의 통일이 정설이라는것을 인정한 기초우에서 그 력사적의의와 개별적인물들의 공헌을 찬양하는 마당으로 되였다.

토론과정은 순조로왔다.

학생들의 열의는 높았고 교원도 만족해하였다.

그런데 강의가 거의 끝나갈무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어서시여 자신께서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 그자체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제의를 하시였다.

뜻밖이였다. 모두가 놀랐다.

그것은 학생들의 토론문은 물론 교원의 교수안도, 지금까지 써오던 교과서와 참고서들까지도 다 검토하여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이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지금 력사학계에서는 지난 시기에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되였다고 한 자료를 인정한데로부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신라가 매우 큰 역할을 한것으로 보고있으며 7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우리 나라 력사를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있다고, 그러나 력사적자료들을 분석하여보면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되였다고 하는것은 사실과 맞는것 같지 않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신라는 대동강이남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대동강이북의 옛 고구려땅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국이 창건되여 200여년간 존재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있던 령토에 두개의 서로 다른 주권국가인 발해와 신라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되였다고 말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우리 나라를 강력한 통일국가로 만들려는 지향을 가지고있지 않았으며 삼국통일을 실현할만 한 힘도 없었다. 신라통치배들은 다만 백제와 고구려를 침공하여 령토를 넓히려는 야망밖에 가지고있지 않았다. 당시 신라통치배들의 대표자였던 김춘추는 당나라 통치배들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데 대한 비밀협약을 맺었다. 그는 당나라 통치배들과 신라와 당나라가 련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대동강이남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대동강이북의 넓은 고구려땅은 당나라가 차지할것으로 흥정하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오히려 삼국을 통일할 지향을 가지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것은 고구려였다는데 대해 론증하실 때 아쉽게도 강의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학과토론을 집행한 교원은 후에 자기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또 제기된 문제가 하도 심중하여 학과토론을 결속하지 못한채 강의를 끝냈다고, 휴식시간이 되자 그이께 말씀을 드려 채 발표하지 못하신 학과론문을 받아가지고 강좌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

그 학과론문이 바로 오늘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이다.

교원이 그날 정신을 집중하여 읽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론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력사적사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지향하지 않았으며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있다. 삼국을 통일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나라는 고구려였다. 그러나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은 신라와 당나라 통치배들의 침략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좌절되고말았다.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고려는 신라가 차지하고있던 대동강이남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 북쪽에서 이주하여온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하나의 주권밑에 통합하였다. 고려라는 이름도 고구려에서 유래한것이다.

●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하는것과 함께 삼국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력사적사실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하여야 한다.

삼국통일에 대한 신라통치배들의 견해는 호전성에 기초한 반동적인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한 김춘추

와 김유신을 비롯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끌여들여 동족의 나라를 반대한 침략전쟁을 조직지휘한 신라통치배들은 전쟁의 성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것이다.

신라통치배들이 벌린 전쟁이 침략적인 전쟁인것만큼 지금 그릇되게 평가하고있는, 신라군대와 끝까지 싸운 백제군대와 계백장군의 투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세 나라 인민들의 투쟁성격도 바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당나라 침략자들은 《라당련합》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신라까지도 침략하려고 하였다.

당나라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인민들의 투쟁은 빼앗긴 자기 강토와 겨레를 다시 찾기 위한 전쟁이였다.

● 삼국통일문제와 함께 발해를 어떤 위치에 놓고 취급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지금 력사학계에서는 발해를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부분에서 마지막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발해가 논 역할을 무시하는것으로 된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런것만큼 7세기말부터 10세기초에 이르는 우리 나라 력사서술에서 발해를 신라와 함께 기본체계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해사를 옳게 해명하는것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이였다. 그러나 당시 학계에서는 발해를 정통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력사무대에 잠간 나타났다가 사라진 《혹》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가 하면 그것이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유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말갈족들의 나라인듯이 그릇되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였다는 력사적사실로부터 《통

일신라》라는 표현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신라》라는 말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하나의 통일국가로 되였다는 말이므로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교원은 론문의 마지막페지를 덮고 눈을 꾹 감았다.

론문이 일으킨 거대한 충격파에 한순간 머리가 뗑해졌다.

주장의 독창성, 분석의 과학성, 론리의 째임성, 결론의 명백성…

실로 바늘들어갈 짬도 없는 완벽한 론문이였다.

그의 귀전에 미구에 김부식이 1145년에 신라중심주의, 사대주의적관점에서 편찬한 민족고전 《삼국사기》로 하여 정설로 되여온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이 비과학적인것으로 락인되여 800여년만에 붕괴되는 폭음이 울리는듯싶었다.

그리고 그 폭약이 위대한 장군님의 론문이라고 확신하였다.

(아, 학생 **김정일**, 당년 18살, 이분이시야말로 백발의 로교수도 머리숙일 력사학의 거장, 희세의 위인이시구나!)

위대한 장군님께 매혹된 교원의 심장의 웨침이였다.

그후 조선력사학계에서는 원사 교수 박사인 박시형이 쓴 《발해사의 연구를 위하여》를 비롯한 가치있는 론문들이 여러건 발표되였으며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은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언제인가 **김일성**종합대학에 찾아왔던 남조선의 한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원문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를 보자 《풀렸다!》하고 환성을 올렸다.

그의 말이 1960년대까지도 《신라정통설》을 고집해오던 남조선 력사학계에서 갑자기 삼국을 통일할 마음과 힘을 가지고있은것은 고구려이며 그것을 실현한것도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라는 리론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주장이 너무도 새롭고 완벽하여 출처를 몹시 알고싶었댔는데 수십년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여기서 그 대답을 찾게 되였다는 것이였다.

옛무덤의 주인공

주체 51(1962)년 1 월 24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분을 찾으시였다.

고분안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벽화들을 사색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번쩍이는 왕관을 쓴 주인공이 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장면, 씨름하는 장면, 춤추는 장면,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 벽화의 그림들은 모두 조선의 풍습도들이였고 적지 않게 탈색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법도 간결하고 선명한 조선화기법이 확연하였다.

그이께서는 관리원에게 이 고분은 누구의 무덤인가고 물으시였다.

나이지숙한 관리원은 조선사람의 무덤이라는 설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의 무덤이라는 설도 있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당시 학계에서 론의되고있는 그대로의 대답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 사가들은 사대주의적력사관을 버리지 못한데로부터 아무런 과학적근거도 없이 안악고분의 주인공을 어느한 나라의 망명객이라고 주장하고있었던것이다.

그림의 주인공이 외국망명객이라면 어째서 왕관을 쓰고앉아 조선인신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을수 있겠는가, 또 어째서 조선고유의 풍습도들로 벽화의 전면을 채웠겠는가.

많은 의문설을 안고있는 벽화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안악고분은 조선사람의 무덤이라고 확신성있게 교시하시고 천정을 올려다보시였다.

섬세하게 다듬어진 8 각기둥과 력학적으로 잘 맞물린 기둥머리와 보…

조선고유의 건축술이였다. 예로부터 유명한 조선의 독특한 고임식건축술을 이 묘에도 적용했다는것이 알렸다.

그 모든것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고임식건축술과 벽화의 채색은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자기의 고유한

기법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고, 우리는 이 고분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인가를 잘 알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날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오랜 기간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고분의 주인공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내는데서 지침으로 되였다.

얼마후 조선 고고 및 민속학자들과 린접나라 력사학자들의 합동연구가 현지에서 진행되였는데 그 결과 안악 3 호무덤이 고구려의 왕이였던 고국원왕의 무덤이라는것이 확증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랜 력사속에 파묻혀있던 고분의 주인공을 순간에 찾아주신것이다.

명장전의 부족점

주체 46(1957)년 12 월 6 일 학생들이 새로 출판된 력사전기도서 《해동명장전》을 놓고 옥신각신하고있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들곁으로 다가오시였다.

한 학생이 그이께 력사전기도서의 제목과 내용이 잘 리해되지 않아 이렇게 옥신각신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미소를 지으시고 책과 학생들을 번갈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종이우에 책의 제목을 한자로 쓰시고나서 동무들이 《해동명장전》에서 《해동》이란 뜻과 책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해동》이란 뜻은 한자로 《바다 해》자와 《동녘 동》자를 쓰는데 옛날에 우리 나라를 황해의 동쪽에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동명장전》은 중세기 조선의 이름난 장군, 무관들의 전기를 서술한 책이라고,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백수십년전인 1794 년에 홍량호라는 사람이 세나라시기부터 17 세기초까지 52 명의 명장들과 무관들의 전기를 쓴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나 《해동명장전》은 원래 봉건왕조에 대한 충의사상을 선전할 목적으로 편집출판되였고 필자자신의 계급적제한성과 당시의 력사적조건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다고, 그것은 이 책에 인민출신의 의병장이나 농민전쟁의 지휘관들의 전기는 하나도 없고 백제의 반역자 흑치상지와 같은자를 《명장》으로 취급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해동명장전》의 저자인 홍량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나라의 기본적인 사업을 문화사업과 국방사업으로 갈라보았는데 이것은 옳은 견해라고 볼수 없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정치도 있어야 하고 경제도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국가사업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네 부문으로 갈라볼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나라의 대업을 문화와 국방으로 갈라보았다. 그러나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주장은 옳은 견해이다. 서문에 있는바와 같이 세나라시기 고구려가 강국으로 존재할수 있은것은 국방을 강화하였기때문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국방을 소홀히 하고 무관을 비천하게 여기면서 문관만 내세운 결과 임진조국전쟁때와 같이 나라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말기에는 나라를 일본놈들에게 먹히우고말았다.…

그이께서는 책을 손에 드시고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립장에서 외적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명장들의 이야기를 자료적으로 주고있는데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특히 중세기전쟁사와 군사예술사 및 명장들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참고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책의 편찬목적과 저자의 계급적제한성, 당시의 력사적조건 등으로 하여 당대의 반동지배계급과 외적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들속에서 나온 명장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일깨워주시였다.

새롭게 정립된 반거란전쟁사

주체 49(1960)년 12월 2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사시험을 치르시였다.

그런데 구답의 형식으로 진행된 문제에 대한 그이의 답은 실로 놀라운것이였다.

고려인민들의 반거란전쟁사의 성격과 그 승리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에서 기성의 견해와는 다른 주장들을 피력하시고 새롭고도 독창적인 견해들을 정립하시였던것이다.

-전쟁의 성격

시험문제는 《10~11세기 거란의 침략을 반대하는 고려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였다.

학생들의 눈길이 집중된 속에 교탁앞에 나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의 자랑찬 반침략, 조국방위투쟁력사에서 10세기말~11세기초에 벌어진 반거란전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반거란전쟁은 고려에 의하여 국토의 통일이 실현된 이후 우리 인민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적의 침공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친 대표적인 첫 반침략투쟁이였다고, 반거란전쟁은 993년부터 1019년까지 근 30년기간에 세차례나 있었다고, 제1차전쟁은 993년, 제2차전쟁은 1010년-1011년, 제3차전쟁은 1018-1019년에 있었다고 개괄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그이께서는 반거란전쟁의 력사를 학습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반거란투쟁의 성격과 그 의의를 옳게 파악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결론적인 어조로 반거란전쟁은 밖으로부터 달려드는 외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고, 반거란전쟁은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과 고구려, 발해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결합되여 벌어진

의의있는 투쟁이였다고 천명하시였다.

순간 대학생들은 물론 교원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서나 참고도서에 고려인민들의 반거란전쟁을 고려의 령토와 인민을 지킨 반거란침략전쟁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단순히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뿐 아니라 조상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과 결합하여 분석하신것이였다.

력사의 한페지가 과학적으로 새롭게 정립되고있는 시각이였다.

청중의 눈길을 모으시며 그이께서는 답변으로 그 근거를 론증하시였다.

반거란전쟁이 고구려, 발해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과 결합되여 벌어지게 된것은 당시 력사발전의 필연적결과였다.

고려는 대동강이남의 후백제와 신라는 물론 그 이북에 있는 고구려, 발해의 옛 령토를 포괄하는 강대한 국가를 일떠세울것을 지향하였다.

고려사람들의 지향은 고구려사람들의 삼국통일정책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계승한것이였다.

고려사람들은 자기들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국초기부터 남과 북의 두 전선에서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발해를 침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란통치배들은 고려사람들의 북방진출이 저들의 침략정책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로부터 거란통치배들은 무력침공의 방법으로써라도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고려사람들의 념원과 지향을 압살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저지파탄시키며 나아가서 고려자체를 병탄할 목적밑에 고려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고려인민들은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동시에 고구려

의 옛 땅을 내놓지 않으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고구려, 발해의 옛 땅과 관련된 자기들의 립장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결론하시였다.

반거란전쟁의 성격이 명명백백해졌다.

-서희-소손녕담판의 실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구려의 옛 땅문제를 둘러싸고 적아간에 얼마나 심각한 대결이 벌어졌는가 하는것은 고려와 거란사이의 담판과정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모두가 귀를 바싹 강구었다.

993 년말경에 고려의 중군사 서희와 적장 소손녕사이에 담판이 벌어지게 되였다. 담판에서 중심적으로 론의된 문제는 고구려의 옛 땅문제였다.

담판장에서 적들은 두가지 문제를 들고나왔다.

적들은 우선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것은 그 무슨 《침식》으로 된다고 하면서 고구려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였다.

적들이 들고나온 다른 하나의 문제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국교를 맺자는 《절송조료》문제였다.

송나라는 당시 중국을 통치한 봉건왕조이고 료나라는 그의 적수인 거란을 의미한다.

고려측 서희는 거란의 침략행위를 준렬히 규탄하면서 당당한 론거를 가지고 적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론박하였다.

서희는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그래서 나라이름도 고려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은 응당 고려가 차지하여야 하며 경계를 가지고 론한다면 거란의 동경도 고려가 차지해야 할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서희는 《절송조료》문제에 대해서도 론의의 초점을 고구려의

옛 땅문제로 끌고갔다. 그는 압록강안팎이 원래 다 우리 나라 땅인데 지금 녀진이 그곳을 강점하고 길을 막고있기때문에 거란과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거란과의 국교는 고려가 녀진을 내몰고 압록강안팎의 땅을 회복한 다음에야 가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희는 이렇듯 정정당당한 론리로 적장의 주장을 론박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데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하였다.

적들은 고려의 이 정당한 주장앞에 말문이 막혀 마침내 굴복하고말았다.

지금까지 애국명장 서희와 적장두목 소손녕과의 담판에 대한 사실을 단편적으로밖에 몰랐던 교원과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실과 예리한 문제분석으로 담판과정을 생동하게 부각시키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담판의 실상을 처음으로 똑똑히 알게 되였다.

-승리의 요인

거란침략자들을 물리친 고려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의 성격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대한 침략자를 반대하는 장기적인 투쟁에서 고려가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서도 옳은 리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반거란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시기 봉건시대 력사가들은 반거란전쟁에서의 승리를 오직 강감찬이나 서희와 같은 개별적인 명장들의 활동과만 결부시켜보면서 그 모든것을 개별적인 명장들의 공로로 평가하군 하였다.

그러한 견해는 당시 조선력사학계에서도 크게 달라진것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봉건사가들의 주장은 력사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활동을 무시하는 그릇된 사회력사관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인

류력사는 인민대중의 활동을 떠나서 그 어떤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인민대중의 활동을 통해서만 사회가 발전하고 력사가 전진한다고,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이라고 강조하시고 반거란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할수 있었던 결정적요인은 고려인민들의 애국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에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 고려인민들이 전투장마다에서 결사적으로 싸운 실례들을 드시였다.

둘레가 1 000m 도 못되는 자그마한 토성에 의거하여 수십, 수백배가 넘는 대군을 맞받아 물리친 993 년 안융진방위자들의 투쟁, 《몸이 비록 가루가 되더라도 나라의 천년위업을 길이 받들 결심》을 안고 40 만대군의 포위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 성을 끝까지 지켜낸 1010 년 11 월 흥화진군민들의 투쟁, 정예를 자랑하던 수만명의 적기병부대를 삽시에 녹여낸 1019 년 2 월 구주대첩…

그렇다. 개별적명장들이 제아무리 날고뛴다 해도 수십만 대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가.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단합된 군민의 애국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에 있다.

력사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주장대로 승리의 요인을 새롭게 서술해야 한다고 학생들은 생각하였다.

-왜 의병활동이 없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반거란전쟁시기 인민들의 투쟁에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과 같은 부대들의 활동을 크게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옳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반거란투쟁에서 인민들은 언제나 결정적역할을 하지만 인민들의 투쟁은 여러가지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봉건통치배들이 외적에 대하여 비겁한 태도를 취하거나 봉건적중앙집권력이 약화된 시기에 벌어지는 인민들의 투쟁은 많은 경우 의병과 같은 형식을 띠고 전개되였다고, 그러나 중앙집권력이 강하고 집권층이 외적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시기에 벌어지는 인민들의 투쟁은 많은 경우 군대에 참가하거나 군대와 힘을 합쳐 싸우는 형식으로 전개되였다고 해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거란전쟁시기에 의병과 같은 부대들의 활동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을 이런 각도에서 설명해야 하리라고 본다고, 그러므로 반거란전쟁시기에 의병부대들의 활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인민들이 이 시기 반침략투쟁에서 논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그 어떤 의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반거란전쟁시기 적들과 결사적으로 싸운것은 방어군과 그 대오에서 같이 싸운 인민들이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외래침략자들과의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승리할수 있은 결정적요인을 철저히 인민대중의 역할에서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력사관, 다른 시기의 반침략전쟁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의병들의 투쟁이 없은 객관적원인, 그로 하여 인민들의 투쟁이 미약한것으로 볼수 있는 편향을 미연에 바로잡아주시는 그이의 명석한 분석과 판단은 청중모두를 크게 감동시켰다.

-국력의 강약과 애국명장들

시험문제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답변은 더욱 심화되였다.

그이께서는 고려가 반거란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던것은 고려봉건국가의 강한 중앙집권력, 강감찬을 비롯한 애국

명장들의 역할과도 일정하게 관련되여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력의 강약과 집권자들이 실시하는 정책들은 반침략투쟁의 실제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였다고, 동서고금의 력사는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10~11 세기 고려봉건국가를 례로 드시였다.

당시 고려봉건국가는 비교적 강력한 중앙집권력을 행사하고있었다.

그리고 한두달사이에 20 만~30 만의 대군을 편성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었다. 또 고려의 집권자들은 유명한 락타교사건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외적에 대하여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의 강한 국력과 고려정부의 강경정책은 반거란전쟁승리에 일정한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개별적인 애국명장들이 반침략투쟁에서 논 역할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고 절대화해도 안되지만 그들의 역할을 무시하고 왜소화해도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봉건시기 애국명장들도 그들이 지녔던 애국주의의 계급적본질을 비판적으로 보는 동시에 그들이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논 역할과 공적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반거란전쟁시기에 강감찬, 서희, 양규를 비롯한 애국명장들은 군사전략과 전술을 옳게 세우고 부대지휘를 능숙하게 하여 전쟁승리에 기여하였다. 강감찬과 서희는 통치층에서 나타났던 투항주의적경향을 막아내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서희는 능란한 외교활동으로 담판에서 적을 눌러놓음으로써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애국명장들의 역할과 공적을 어디까지나 력사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활동과 결부시켜보아야 한다. 강감찬을 비롯한 애국명장들이 아무리 훌륭한 군사적재능을 가지고있

었다 하더라도 광범한 인민대중의 활동과 결합되지 못하였더라면 그것이 은을 낼수 없었을것이며 서희가 아무리 능숙한 외교술을 지녔다 하더라도 각지 인민들의 영용한 투쟁이 안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담판장에서 적들을 굴복시키기 어려웠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서희-소손녕담판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담판을 한번 시도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군사적으로 일정한 우세를 보이고있던 적들의 오만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초에 파탄되고말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반거란전쟁의 력사는 담판장에서의 승리가 담판장밖에서의 군사적승리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993년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데서 담판이 중요한 작용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결정적인 작용을 논것은 전선에서 벌어진 군민들의 애국적투쟁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량대비에서 적을 압도하여야 적과의 담판에서도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에는 아직 새롭게 해명하여야 할 문제도 많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도 많다고 하시면서 력사를 바로 서술하려면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고, 주체적립장에 서야 력사자료를 정확히 취사선택할수 있고 력사적사실들을 옳게 분석평가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과목담임교원은 오늘 시험에서 **김정일**학생은 고려인민들이 벌린 반거란전쟁사의 전모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새롭고도 독창적인 견해를 발표하여 반거란전쟁사를 새롭게 정립하였다고, 우리 력사학계는 구태를 털어버리고 이 견해를 심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리고 한마디 부언하건대 력사전문가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로부터 매우 훌륭한 강의를 받았음을 자인한다고, 고맙다고 말씀올리였다.

민속전통계승 《특강》

주체 98(2009)년 11월 20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의 민속전통에는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이 깃들어있으며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세태가 반영되여있다고 하시면서 민속전통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살려나간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전해오는 미풍량속과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창조물들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민속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사람들에게 민족의 넋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주어 그들이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계속 꽃피워나가게 할수 있다고, 이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옛날에 함경남도의 일부 지방에는 부모들이 시집, 장가를 가는 자식들에게 조선기와를 마련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들은 기와터에서 뿐아니라 부엌아궁에 불을 지필 때마다 생기와를 한두장씩 넣어 구워냈는데 한해동안이면 집 한채에 이을 기와를 다 장만하였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 고장들에 가면 어느 집에 가나 기와를 쌓아놓은것을 볼수 있었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것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지난해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면서 도에서 집들에 조선기와를 쌓아놓는 풍습을 살려나가라고 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우수한 민속전통을 적극 찾아내여 그것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가지한가지씩 실례를 들어가며 깨우쳐주시였다.

● 숯을 구워 일상생활에 널리 리용한것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숯을 잘 만들었다. 숯을 잘 구워가지고 호미와 낫을 비롯한 생산수단과 창과 칼을 벼리였으며 불고기도 하고 화로도 피웠다. 그런데 지금은 숯을 온전하게 구워내지 못하고있다. 새 세대들은 숯구이방법에 대하여 모를뿐 아니라 지어 숯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있다.

●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도자기그릇을 많이 만들어 리용하였다. 고려시기의 청자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백자기는 오늘도 유명하다. 우리 나라 도자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하고있다. 경질유리그릇이 나온다고 하여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난 시기 지방들에서 생산하던 도자기제품들을 계속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술부문에서는 민속전통을 살려나가지 못하고있다. 우리 사람들은 황해도지방의 민속무용인 봉산탈춤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다. 봉산탈춤은 봉건관료배들과 중들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인민들의 항거정신을 반영한 춤과 노래, 재담형식으로 되여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봉산탈춤이라고 하면 그저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만 알고있다.

● 절을 하는 우리 식의 고상한 인사법도 잘 살려나가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절을 하는것이 아니라 악수를 하고있는데 그런것도 우리 민족의 풍습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

고려자기를 놓고도

주체 50(1961)년 3월 27일 오전강의가 끝난 후 대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자신께서도 들어보자고 하시며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한 대학생이 대성산의 력사유적이야기를 하던중이라고, 그런데 력사에 대하여 아는 동무들이 없어서 영 재미가 없다고, 력사유적

과 관련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청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사강의시간에 교원이 고려자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현재 도달한 과학기술로는 고려자기와 같은 빛갈을 내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동무들의 생각은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저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는데 견해가 서로 달라 자연히 론쟁으로 넘어갔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론쟁을 흥미있게 들으시다가 동무들속에 혹시 그 비결을 아는 동무가 있을가 하여 물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겠다고, 자신께서도 아직 정확히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이 창조한 재부이니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때 가서는 그 비결을 알아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려자기는 예로부터 색갈이 독특하여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고려자기의 색갈을 대표하는것은 비색이라고 볼수 있다고 하시였다.

누군가가 비색이란 어떤 색인가고 호기심을 표시하자 그이께서는 비색이라는 말은 원래 록청색의 빙취옥과 같은 색갈이라는 뜻에서 나온것인데 우리 나라의 맑게 개인 가을하늘빛처럼 맑으면서도 포근한감을 준다고, 이 색갈을 얻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때문에 비색이란 말을 고려의 도자기공들만이 낼수 있는 비밀색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때 한 학생이 고려자기는 그 색갈과 문양 그리고 모양이 독특하고 기막히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쾌히 응하시면서 고려사람들은 자개박이와 금은실박이기술을 도자기공예에 받아들여 상감이라는 문양수법을 널리 써왔다고 하시며 한 학생에게 상감수법을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상감수법이란 도자기표면에 문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문양대로 홈을 파고 거기에 여러가지 색갈의 흙을 밀어넣은 다음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수법을 말한다고, 그런데 독특하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단조로운 문양수법 같다고 아는껏 말씀드렸다..

그의 대답에 그이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고려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였다.

상감수법은 문양의 립체감을 안겨준다. 상감으로 새겨진 고려자기의 문양은 다양하면서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 모양들가운데는 호수가에 실실이 늘어진 수양버들과 쌍쌍이 헤염쳐 노니는 물오리들, 뭉게뭉게 피여나는 구름과 훨훨 날아가는 학들, 활짝 핀 갖가지 꽃들과 푸르싱싱한 소나무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다 펼쳐져있다. 이렇게 고려자기는 은은한 비색바탕에 립체감을 주는 아름다운 문양이 한데 어울려 이채를 띤다. 상감을 한 고려자기를 상감자기라고 하며 비색바탕에 상감을 한 자기를 비색상감자기라고 부른다. 세상사람들이 보통 고려자기라고 할 때에는 비색상감자기를 념두에 두고있다....

학생들은 모두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 고려자기를 놓고도 조선민족의 슬기와 지혜, 우수성을 더욱 뚜렷이 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한밤중의 력사강의

로씨야방문중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 도착하신것은 주체 90(2001)년 8 월 6 일 9 시경이였다.

그러니 모스크바로부터 그곳까지 밤새워 렬차행군을 하신셈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길의 로독을 푸실사이없이 그길로 참관의 길에 오르시였다.

거의 10 개 대상에 대한 참관과 회담, 예술공연과 연회…

이렇게 분망하게 보내신 그이께서 일군들과 조용히 마주앉으신것은 자정이 가까와올무렵이였다.

그 자리에서 한 일군이 그이께 크레믈리를 참관하실 때도 그렇고 이번 에르미따쥬박물관을 참관하실 때도 그렇고 짜리 1 세와 예까쩨리나 2 세에 대하여 어찌나 잘 아시는지 로씨야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매우 좋아하더라고 허물없이 말씀올렸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게 무슨 크게 놀랄것이나 되는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력사인물에 대한것쯤은 상식적으로 알고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사업할 때 의사소통도 잘 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담화는 자연스레 력사강의로 번져가 로씨야의 인물평으로 넘어갔다.

-뾰뜨르 1 세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사실 자기는 지난 시기 짜리 1 세와 예까쩨리나 2 세에 대하여 더러 들은 이야기도 있고 자료도 본적이 있지만 얼굴들은 모르고있었는데 이번에 장군님께서 알려주시여서야 그들의 얼굴을 알게 되였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럼 한턱 단단히 내야 하겠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동무가 짜리 1 세라고 한것은 정확한 표현이 못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이 어리둥절해하자 그이께서는 오늘 오전 에르미따박물관을 돌아볼 때 자신께서 말한 그 인물은 짜리 1 세가 아니라 뾰뜨르 1 세이라고, 짜리 1 세와 뾰뜨르 1 세라는 말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리유를 설명해주시였다.

…짜리라는 말은 고대로마국가의 독재자였던 케자르의 이름에

서 유래된 말이다. 케자르가 황제통치의 기초를 마련하여놓았는데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 왕들이 그를 우상화하면서 그의 이름을 본따 자기를 부르게 하는것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였다고 한다. 케자르의 이름으로부터 황제를 게르만어로는 카이제르라고 하고 슬라브어로는 짜리라고 하였다. 로씨야의 첫 황제였던 이완 4 세도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짜리라고 하였으며 사람들도 그를 짜리라고 부르게 되였다. 그렇게 된것이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굳어지다보니 이완 4 세라는 이름보다 짜리 1 세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게 되였다. 로씨야력사에 이름을 남긴 짜리들가운데는 뾰뜨르 1 세도 있다.…

일군들은 그이의 박식함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그이곁에 더 바투 다가앉았다.

그이께서는 로씨야력사에 짜리전제제도통치의 대표적인물로 이름을 남긴 뾰뜨르 1 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다.

그는 40 년동안의 통치기간 군대를 개편하고 함대도 편성하여 로씨야의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뻬쩨르부르그를 대도시로 일떠세우고 로씨야력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였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가혹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치게 되였는데 1698 년에 일어난 근위병들의 폭동도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뾰뜨르 1 세에 대한 인물평을 마치시면서 그에 대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는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긴 짜리전제제도의 반인민적통치의 응당한 결과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예까쩨리나 2 세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예까쩨리나 2 세에 대하여서도 좀 말씀해주시였으면 하고 청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는 자신이 무슨 력사학자나 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 같다고, 력사학자는 아니지만 동무가 알고싶어하니 그에 대하여서도 아는껏 이야기해주겠다고 하시며 예까쩨리나 2 세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예까쩨리나 2 세는 뾰뜨르가문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몰락한 도이췰란드귀족의 딸로서 1745 년에 뾰뜨르 3 세에게 시집온 후 왕위에 오른 자기 남편을 퇴위시키고 녀황제로 군림하게 되였다. 정권욕과 공명심이 남편을 밀어내고 황제자리에 올라앉게 한것이다. 집권후 그는 서부우크라이나와 벨라루씨의 대부분과 리뜨바를 병합하는 공적을 세웠다. 그러나 그도 인민을 너무 가혹하게 착취하고 자기의 부귀영화만을 일삼았기때문에 인민의 원성을 사게 되였다.…

한 일군이 그 녀자가 청나라 말기 중국의 녀황제였던 서태후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그의 생각을 긍정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가 오전에 본 에르미따쥬박물관도 바로 사치와 사리사욕에 피눈이 되였던 예까쩨리나 2 세의 독재정치의 산물로 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는 선대황제들이 꾸려놓은 동궁도 모자라 그 주변에 정원과 궁전들을 확장하여 짓고 동서방의 많은 나라들에 특사들을 파견하여 명화들과 골동품들을 끌어들였다. 인민들은 극도로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들의 피와 땀을 짜내여 향락만을 추구하였으니 그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이 왜 높지 않았겠는가. 뿌가쵸브농민전쟁과 같은 국내전쟁이 일어난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는 법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보게 하는 가르치심이였다.

-강의결속

-뽀뜨르 1 세나 예까쩨리나 2 세가 실시한 독재정치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담화를 결속에로 이끌어가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기하신 물음이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제기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르시듯 묵묵히 방안을 거니시다가 뽀뜨르 1 세나 예까쩨리나 2 세는 다같이 로씨야력사발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인민대중을 천시하고 멸시하다보니 지지를 받을수 없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실시한 전제주의적군주통치의 종말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통치자는 망하기 마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해오시였으며 자신께서도 역시 인민대중을 력사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하고있다고, 인민대중을 위한 우리 당의 정치는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시며 강의를 결속하시였다.

경탄을 자아낸 학과토론

주체 46(1957)년 2 월 11 일 한 교원은 복습시간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 문자의 발전력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학과토론을 조직하였다.

그 동기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조선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견해를 정확히 세우지 못한탓에 조선어문법과목을 매우 어려워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많은 학생들이 승벽내기로 토론에 참가하였다.

누군가가 조선문자는 어음구조에 맞고 쓰기 쉬우며 배우기가 헐

한 글이라고 하자 다른 학생은 조선말은 어음구조에 따라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로 나타내는 소리는 다 글로 옮길수 있다고 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한자의 음을 따서 만든 리두문자보다 훨씬 좋다는것을 말하였다.

교원이 해당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할데 대해 이야기하자 교실에는 갑자기 고요가 깃들었다.

이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여러 학생들이 조선문자의 우수성에 대하여 비교적 옳게 말한데 대하여 긍정하신 다음 토론을 시작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문자인 훈민정음은 세계에서도 매우 우수한 문자중의 하나이다.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인민은 주로 리두문자를 썼다. 그런데 이 리두문자는 한자의 음이나 운을 따서 만든것이기때문에 우리 인민의 언어와는 잘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의 언어를 더욱 자유롭고 정확하게 나타낼수 있는 문자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이렇듯 조선문자가 나오게 된 력사적필연성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통찰한 우수한 학자들에 의하여 1444년 1월에 조선어의 어음구조와 문법구조에 잘 맞을뿐 아니라 문자체계의 과학성자체에 있어서도 아주 뛰여난 문자인 훈민정음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1446년 10월에는 한권의 책으로 세상에 발표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문자의 창조과정과 그에 기여한 학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민정음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자음글자 17자와 모음글자 11자로서 모두 28자였다고, 자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각각 그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딴것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그가 나타내는 소리가 나오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문자는 세계적으로 없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대중을 무식하게 만들어 마음대로 억압착취하기 위해 인민적성격을 띤 훈민정음이 광범한 인민들속에 퍼지는것을 방해해나섰다고 격하신 음성으로 단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러나 우리 인민은 훈민정음을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였으며 발전시켜왔다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 말에 맞는 글을 쓰자는 《언문일치운동》을 벌리였다고, 이와 같은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 훈민정음은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쓰는 문자로 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토론을 결속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나라 문자발전의 력사를 똑똑히 알고 고유한 우리 말을 잘 살려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6 자모》의 위험성

주체 53(1964)년 2 월 20 일 **김일성**종합대학 기숙사의 어느한 호실에서는 대학생들이 그날호 《로동신문》에 실린 총련의 어린이가 조선글을 쓰는 사진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바로 이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호실에 들어서시였다.

학습토론을 하고있다는 학생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지난 1 월 3 일에 하신 교시사상에 기초하여 언어와 민족의 호상관계문제를 토론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라고, 재일동포들이 비록 일본땅에서 살지만 조선사람으로 되는것도 다름아닌 피줄과 언어가 우리와 같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한 학생이 불쑥 《6 자모》를 화제에 올리면서 김두봉이 《6 자모》를 내놓은것을 보면 조선민족을 갈라놓으려고 한짓이 틀림없는것 같다고 하자 모두가 옳다고 언성을 높였다.

《6 자모》란 김두봉이 이른바 조선말 표현을 구체화한다고 하면

서 조선인민이 쓰고있는 40 개의 자모외에 여섯개의 《자모》를 더 만들어낸것이였다. 그자는 형용사와 동사들중에서 일부 표현들이 말뿌리는 갈지만 토가 달라질 때 발음과 철자가 차이나는 표현들을 《정확히》 쓰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나름대로의 《자모》를 만들어 쓰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6 자모》는 과학적타당성도 없을뿐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전반을 혼란에 빠뜨릴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종의 《문자개혁》이였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두봉이 이른바 《6 자모》라는것을 만들어 그것을 곧 쓰자고 주장해나섰던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이것은 언어를 민족문제와 관련시켜볼 대신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이름이나 남겨보려는 공명주의적사고방식에서 나온것이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가 분렬되여있는 상태에서 만일 우리가 문자를 고쳐쓴다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서로 출판물도 읽을수 없고 편지를 해도 알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며 그것은 조국통일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게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어와 문자의 공통성을 없애는것은 하나의 민족을 이질화하고 민족을 분렬시키는 반민족적행위로 된다고, 나라가 분렬되여있는 오늘 언어를 민족문제와 밀접히 련관시켜 고찰하는것은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통일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펼쳐주신 신비로운 수학세계

-수학의 력사

주체 46(1957)년 10 월 31 일 교내주변정리를 끝낸 학생들이 교재림가까이에 모여앉아 수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이야기는 로마수자와 한자수자에 대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

라비아수자에로 이어졌다.

결국 아라비아수자가 왜 광범하게 쓰이게 되였을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벌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흥미있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아라비아수자가 다른 수자들에 없는 《0》을 가지고있고 여러 자리수를 표시하는 체계가 아주 간편하기때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동무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의아한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0》이 그처럼 큰 의의를 가질가?)

그이께서는 땅바닥에 《2》자를 쓰시고 여기에 《0》을 덧쓰면 몇이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누군가가 《20.》이라고 대답하자 그이께서는 거기에 《0》을 하나 더 쓰면 몇인가고 물으시였다.

《200.》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니까 《0》에서 《9》까지 열개의 수자로 된 아라비아수자는 아무리 큰 수자나 아무리 작은 수자도 다 표시할수 있으며 또 사칙계산도 로마수자나 한자수자에 비하여 대단히 편리하게 할수 있다고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로마수자는 일체 계산에서는 쓰지 않고 다만 부류(차례)표시나 책의 장, 절표시 그리고 시계문자판 같은데나 쓰이고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옛날에는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수를 적은 글자가 각이하였다. 그러나 그 수자들에서 공통적인것은 수자의 모양이 대체로 개수를 나타내였다는것이다. 례를 들면 우리들이 쓰고있는 아라비아수자는 물론 로마수자 역시 개수에 기초했다.…

그이께서는 땅에 한자수자를 가로긋기로 하나, 둘, 셋으로 표기하시고 로마수자는 세로긋기로 하나, 둘, 셋을 쓰신 다음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수자를 표시하는 글자는 나라마다 달랐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나라들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점차 각이한 수자들이 다듬어지고 완성되여갔으며 큰 지역별로 통합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편리한 수자인 아라비아수자가 쓰이게 되였다.…

그러시고는 수자기호에서 《0》이 발견되고 아라비아수자가 쓰이게 된것은 수학의 발전에서 커다란 전환과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고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였다고 수자의 력사를 선명하게 개괄해주시였다.

-거미줄과 자리표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동무들을 둘러보시며 한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거미줄이 수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고등수학을 낳게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이 생길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수학공부를 할 때 《X》축과 《Y》축, 《Z》축을 그려서 자리표계를 만들군 하는데 이것을 누가 발견하였는지 생각나는가고 물으시였다.

동무들이 데까르뜨라고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긍정하시고 데까르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주시였다.

데까르뜨(1596-1650)는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가이다. 그는 스콜라철학을 배우다가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한후 제대되여 집필과 연구사업에 몰두하였다. 1649 년에 스웨리예녀왕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에 옮겨갔으나 추위와 과로로 그 다음해에 사망하였다. 그는 명백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단순한 요소를 찾아내고 그로부터의 론증에 의해서 한걸음씩 나아가 전체의 인식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근대과학을 특징짓는 분석적방법을 정식화하였으며 수학에 처음으로 자리표법과 변수, 함수를 도입하여 수학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이께서는 데까르뜨 이전에는 상수와 고정된 도형만을 연구하는 초등수학만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초등수학의 시대는 B.C. 5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략 17세기초까지로 보고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초등수학의 시대에 와서 수학이 독자적인 과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단계의 수학을 변하지 않는 수와 간단한 도형에 관한 수학 즉 불변량에 관한 수학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5~6세기에는 오늘 우리가 쓰고있는것과 같은 아라비아수자가 발견되였으며 그후 이 상용수자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쓰이게 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있는 수학은 다 초등수학의 시대에 발전한것이라고, 대수학에 문자를 도입한것도 16 세기말부터이며 허수나 로그수도 초등수학시대에 발견되였다고, 15세기 후반기부터 생산력이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운동하고 변하는 사물현상에 대한 해석 즉 변량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였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시기에 데까르뜨는 좌표법을 발견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되였다.

데까르뜨가 군대에 복무할 때였다. 어느날 그는 병실의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다가 깨여나 한동안 천정만 바라보고있었는데 천정과 벽사이의 한곳에서 거미 한마리가 줄을 치고있었다. 거미가 줄을 치는것을 주의깊게 보고있던 데까르뜨는 정신을 번쩍 차리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병실을 오가며 거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는 거미가 줄을 치는것을 보고 자리표법을 착안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그후 자리표법이 기하학에 도입되였고 그것을 데까르뜨자리표법이라고 부르게 되였다는것, 데까르뜨자리표법에 근거하여 변수와 함수의 개념이 나오게 되였는데 이것은 초등수학으로

부터 고등수학에로 비약할수 있는 근본토대로 되였다는것,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각 변량에 관한 수학의 시기로서 해석수학, 해석기하학 등 고등수학이 형성된 시기였다는데 대하여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지칠줄 모르는 정열, 이것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학습하여 깊은 과학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놀라운 비결

주체 42(1953)년 2월 3일 만경대혁명학원의 산수시간에 있은 일이다.

담임선생님이 속셈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어떤 수를 덜어 나머지가 2가 되게 하는 수를 속셈으로 구하라는것이였다.

얼마간 지나서 선생님이 답을 낸 학생이 있으면 대답하라고 하자 세 학생이 련이어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10과 8, 5라는 수자가 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으로 되는것이였다.

왜 그렇게 되는가고 선생님이 물었으나 모두가 머리를 기웃거릴뿐 대답이 없었다.

문제에 작용하는 리치가 무엇인지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것이다.

이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지금까지 세 동무가 말한 대답이 다 맞는다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어느 수자를 대도 다 맞게 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속셈문제에서 답이 2가 되게 하자면 처음의 어떤 수와 마지막에 덜어주는 어떤 수를 똑같은 수로 정하여 0으로 되게 하면 된다고, 그러므로 어떤 수를 10, 8, 5 등 아무 수자를 정

해도 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순간에 교실은 탄성으로 가득찼다.

어떤 수든 일정한 값을 덜고 더하면 본래의 수가 나오게 된다. 다시말해서 10에서 8을 덜면 2가 꼭 나오기마련인것처럼 아무런 수를 정해도 값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진리란 알고보면 단순한데 이렇게 뻔한 리치를 왜 모르고있었을가 하고 학생들은 의아해하였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동무들은 그이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한시바삐 어려운 산수문제풀이도 척척 해내시는 신묘한 비결을 알고싶었던것이다. 그러는 그들을 미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선생님이 낸 그 문제를 리치적으로 잘 따져보았을뿐 이라고,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문제도 그 리치를 알면 쉽게 풀수 있다고본다고, 그러므로 무엇을 하나 배워도 그 리치부터 알아야 산 지식으로 써먹을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의 강의를 받은 교원

주체 46(1957)년 11월 23일이였다.

이날 오후 화학교원은 실험실에서 다음날 수업시간에 하게 될 실험과 관련한 교수준비를 하고있었다.

이때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도 좋은가고 물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방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미소를 머금으시고 교수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고 겸허하게 문의하시고나서 어제 화학시간에 제기된 문제때문에 왔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교원은 뜻밖이였다.

전날 화학시간이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부하시는 학급에 들어가 물질의 질량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수업을 마치고 의문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였다.

이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신 그이께서는 질량보존의 법칙은 화학변화의 모든 경우에 다 맞는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열이나 빛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반응들에서도 반응전과 반응후 물질의 질량이 같은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싶다고 하시였다.

한순간 교원은 당황해났다.

교원의 설명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인 학생들과는 달리 사색을 심화시켜 물질변화의 각종 형태까지 포착하고 하시는 뜻밖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수 있는 준비가 되여있지 못했던것이다.

생각을 더듬던 교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다음시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는 수업을 마치였었다.

그런데 그이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것이다.

교원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밤새워 참고서들을 뒤져보았는데 아직 명백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때문에 선생님과 자신, 이렇게 두사람이 다 밤을 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그 문제와 관련하여 리해한것은 이렇다고 하시면서 량해를 구하시고 자신의 견해를 내놓으시였다.

보통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원자핵주위에 있는 전자들의 배치가 달라지기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때의 에네르기변화를 보면 수eV(전자볼트)나 수십eV정도밖에 안된다. 물론 반응전후에는 에네르기변화에 따르는 질량의 변화가 생기나 이 질량의 상대적값은 매우 적은 값으로 나타나고 보통의 천평으로는 이 변화를 측정할수 없으므로 보통화학반응에서는 이 질량변화를 무시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질량보존의 법칙은 상대성리론이 나온 후에도 오늘까지 기본법칙으로서 과학과 생산활동에서 과학적지침으로 된다고 본다.…

그이께서는 이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 참고서들을 보시며 물질

의 질량과 에네르기사이관계에 대한 공식과 수자적자료들을 적은 학습장을 펴놓으시였는데 거기에는 우라니움의 핵분렬반응때 내는 에네르기와 이때 줄어드는 질량 등도 수록되여있었다.

교원은 그이의 학습장을 보기가 면구스러웠다.

자연의 법칙을 당연한것으로 보고 누구도 파헤쳐보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그것도 화학에서 무시해버리는 바로 그런 질량변화까지도 포착하시고 밝혀내시는 그이의 비상한 탐구력과 창조력앞에서 교원은 그저 탄복을 금치 못할뿐이였다.

더우기 아직 수업에서 취급하지도 않은 물리학의 현대적리론인 상대성리론까지도 꿰들고계시는 그이의 폭넓은 지식의 세계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진정으로 감동된 교원은 그이께 어떻게 상대성리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환히 알고계시는가고 문의의 말씀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구상을 실현하자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고, 상대성리론만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심오한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다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들여보느라고 했는데 아직 모를것이 많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상대성리론의 학습은 바로 련관과 운동속에 있는 자연현상을 변증법적으로 보고 분석할수 있는 눈을 틔워준다고, 량자화학이나 원자탄의 발견도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리론이 나온 후에 이루어진것이 아닌가고 반문하시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연과목교과서들이 아직 부족점이 적지 않은것 같다고, 보다 긴밀히 련관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가르치심은 길지 않았으나 심오한 깊이를 가진 하나의 완벽한 강의안이였다.

그러니 결국 교원이 학생의 강의를 받은셈이였다.

참으로 뛰여난분

주체 48(1959)년 1월 5일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한 교원에게는 그즈음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학생들속에서 그가 맡은 과목인 진화론강의가 리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자꾸 제기되고있었던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찾을수 없었던 교원은 이날은 꼭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결심하고 민청사무실의 문을 조심히 두드렸다.

교원을 반겨맞으신 그이께서는 자기의 강의를 리해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르치심을 받고싶어 왔다는 그의 이야기를 미소속에 들어주시였다.

당시의 진화론교과서로 말하면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번역한것이였다.

조선의 실정과는 맞지도 않는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자니 교원들은 불안하고 따분하기만 하였다. 하면서도 강의내용을 개선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교원의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교재를 기계적으로 리용하면 리해하기 힘들뿐아니라 실지 써먹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련관시켜 생물계의 진화리론과 법칙을 연구하여 토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나라 동식물들을 결부하여 리론을 전개하면 알기도 쉽고 산 지식이 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선생님생각에는 어떤가고 겸허하게 물으시였다.

교원은 옳다고, 가르치심을 듣고보니 학생들이 리해하기 힘들어하는 원인을 잘 알겠다고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원에게 의자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는 천

천히 방안을 거니시면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자기 나라 동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서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다른 나라의 식물을 학습하는것보다 례를 들어 우리 나라 북부지방의 내한성품종과 남부지방의 우량종을 접하여 자강도나 함북도 같은 북부지방에 풍토순화를 시키는 실천적문제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나 사과, 배, 추리, 포도, 살구를 무르익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부지대의 추위에 잘 견디는 나무에 남쪽지방의 우수한 품종을 접하여 새 품종을 만드는 등 생물진화의 법칙과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과수를 접하여 번식시키는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벌써 수백년전에 적용되였으며 현재도 많이 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영양접종법은 300 년전에 하였는데 례를 들어 사과나무는 매지에, 배나무는 돌배나무에, 감나무는 고욤나무에 접하여 추위에도 잘 견디는 우수한 품종을 얻어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것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이고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해야 한다. 례를 들어 체중이 큰 《바꾸샤》와 같은 돼지를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 어떻게 적용시키겠는가, 씨비리의 세모종과 같은 양을 우리 나라와 같이 더운 조건에서도 어떻게 하면 털을 가늘고 길게 자래울수 있겠는가 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보니 교원은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지난 시기 자기는 진화론교과서에 씌여진 그대로 강의시간에 다른 나라의 우량종을 장황하게 소개하기만 하였을뿐 그것을 조선에서 도태되지 않게 연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 꼭 교수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올렸다.

비범한 관찰력과 탐구심

주체 45(1956)년 2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온실을 돌아보시였다.

일행이 갖가지 식물들을 구경하면서 선인장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득 한 학생에게 선인장의 잎이 어느것인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생활의 여러 계기에 선인장을 보면서도 잎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던 그는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알수 없어 슬쩍 동무들을 곁눈질해보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머리를 기웃거릴뿐이였다.

이렇게 되자 그는 나무잎도 풀잎도 모두 넙적하게 생겼으니 선인장도 아마 같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손바닥같이 넙적한것이 잎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럴줄 알았다고, 선인장은 다른 나무나 풀과는 달리 뾰족하게 생긴 가시가 바로 잎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모두의 눈이 커지는데 그이께서는 선인장이 열대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것을 알면 의문이 풀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열대사막은 물이 없고 몹시 뜨겁다고, 이곳에서 살아가자니까 선인장은 자연히 이에 적응하게 생태적변화를 가져왔다고, 선인장은 자기에게 빨아들인 수분을 적게 증발시키기 위하여 잎이 점차적으로 퇴화되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잎이 가시로 되고말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어떤 식물들은 즙을 뿜어 곤충을 잡아먹는가하면 어떤 식물은 역한 냄새를 풍기여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시면서 한 학생에게 어느한 식물을 흔들어보라고 이르시였다.

식물의 줄기를 잡고 흔들던 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냄새가 역하다고 말했다.

그이께서는 이 식물은 꽃아욱이며 이것이 바로 역한 냄새를 풍기여 자기를 보호하는 식물중의 하나라고 알려주시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함수초의 잎을 건드리시며 이것 보라고, 이 식물은 조금만 다쳐도 이렇게 잎이 오무라진다고 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양을 자세히 보아주시였다.

잎이 가시로 된 선인장과 역한 냄새로 자기를 보호하는 꽃아욱, 다치면 오무라드는 함수초.

다채롭고 신비한 식물세계앞에서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이께서는 온실에 있는 식물들의 종류나 외적형태를 아는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매 식물의 생물학적특성과 재배방법, 환경적응성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식물학을 배우는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식물학을 배우는 것은 식물의 생태적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인간생활에 리롭게 변화시켜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식물의 주위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잘 리용하면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유용한 식물들을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얼마든지 적응시킬수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다수확품종도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자연과학분야의 과목들을 학습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력을 키우고 나타나는 현상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인내성있는 탐구를 하는것이라고, 동무들은 나라에 쓸모있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기 위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력과 탐구심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꽃의 세계

주체 96(2007)년 11 월 18 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가지 품종의 고운 꽃들을 많이 재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재배하고있는 꽃은 종류가 많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다보니 꽃상점들에 내놓고 파는 꽃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꽃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다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식물도감이나 그림 같은것을 보아야 세 0 상에 어떤 꽃들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게 되여있고 어른들도 꽃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고 하시며 실례를 드시였다.

코스모스는 꽃색갈이 여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코스모스의 꽃색갈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고있다. 노래 《철산봉에 코스모스 만발합니다》의 가사에《붉은색 파란색 천만꽃송이 산정길에 울긋불긋 피였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코스모스꽃가운데는 파란꽃이 없다. 그래서 그 가사를 고치도록 하였다. 코스모스꽃가운데는 연분홍색, 빨간색, 흰색을 비롯한 여러가지 색갈의 꽃이 있지만 파란 색갈의 꽃만은 없다. 이런것을 보면 우리 작가들도 꽃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것을 알수 있다.…

얼굴이 붉어지는 일군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사람들이 꽃에 대한 넓은 상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꽃의 세계를 보다 넓혀주시였다.

튤립을 많이 재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튤립은 꽃색갈이 다양하고 곱다. 지금 유럽나라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나라들에서도 튤립을 많이 심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청춘남녀들이 결혼할 때 튤립알뿌리를 례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기념품으로 주고받기도 한다. 튤립이 국화로 되여있는 나라도 있다. 튤립은 주로 알뿌리로 번식하기때문에 그것을 재배하자면 품을 들여야 한다. 지금 튤립을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재배하고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재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미도 꽃색갈이 곱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장미를 더 많이 재배하여 중요대상에 대한 록화와 도시미화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으로 그이의 꽃의 세계에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콤퓨터앞에서

주체 88(1999)년 1월 1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자공학연구기지의 기본청사로 향하시면서 한 일군에게 여기에 설치한 콤퓨터는 어떤 부류의 것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망설이였다. 최신콤퓨터의 여러가지 부류들을 서로 대비하면서 오랜 시간 설명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나름의 걱정때문이였다. 하지만 공연한 근심이였다.

그가 망설이며 싼급이라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싼급콤퓨터인가고, 알겠다고 하시였던것이다. 흔치 않은 전문분야의 최신형콤퓨터에 대해서도 환히 알고계시는것이였다.

이윽하여 어느한 연구실에 들어서시여 잠시 콤퓨터들을 일별하신 그이께서는 설계프로그람들을 일식으로 갖추고있는 콤퓨터앞에 이르시여 이 콤퓨터의 프로그람용량이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프로그람용량이 4GB이면 작업공간은 나머지 4GB정도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콤퓨터의 총기억량에 정통하신 그이께서 작업공간에 대한 계산을 순간에 하시고 수행일군들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치심이였다.

일군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 프로그람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였다.

일군의 이런 생각은 그이께서 어느한 콤퓨터의 프로그람을 보아주실 때 더욱 굳어졌다.

한 청년과학자가 마주하고있는 콤퓨터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그가 한다하는 나라에서 개발한 고급한 수준의 프로그람을 자체의 힘으로 해석해내고 연구사업에 리용할수 있게 완성시킨데 대해 보고받으시고 만족해하시며 콤퓨터화면에서 프로그람을 한번 보자고 하시였다.

연구사가 당황해하자 그이께서는 덤비지 말고 콤퓨터를 가동시켜 보라고 이르시면서 차림표를 보자고 하시였다.

그제야 어지간히 긴장을 푼 연구사는 유표를 움직여 차림표를 현시하였다.

그이께서는 라이쎈스를 찾으라고, 다음 원천을 찾으라고 하시였다.

연구사는 그이께서 부르시는 순서대로 콤퓨터를 조작하여 화면에 현시하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화면을 찬찬히 훑어내려가시다가 이것 말고 화면을 절반 잘라서 한쪽에는 해득하지 않은 프로그람을, 다른쪽에는 해득한 프로그람을 대치시켜보라고 이르시였다.

연구사는 프로그람을 화면의 량쪽에 대치시켜 현시하였다.

그이께서는 한행 또 한행 화면에 현시된 프로그람의 내용을 따져보시고는 《스크롤》이라고 하시였다.

다른 화면이 전개되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청년과학자를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로 이끌어가시는것이였다.

이윽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연구사를 치하해주시였다.

김삿갓의 시를 놓고

주체 51(1962)년 3월 20일 오후 강의실에서였다.

한 학생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를 한수 읊는것이였다.

일시에 학생들의 눈길이 그에게 쏠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도 쓰시던 글을 멈추고 웃으시면서 언제 방랑시인의 시구절까지 다 외워두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저 귀동냥으로 얻어들었던것이라고 말씀드리자 느닷없이 김삿갓이 화제에 오르게 되였다.

헌데 누구도 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학생들은 그이께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것을 청드리였고 그이께서도 쾌히 응하시였다.

김삿갓은 옛날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시인의 한사람이였다. 널리 알려진 김삿갓이라는 이름은 그가 방랑생활을 하면서 늘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하여 사람들이 별명삼아 부르던 이름이고 본명은 김병언이였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지만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것이 문제로 되여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근 40 년세월 전국각지로 방랑하다가 57 살에 객사하였다.…

김삿갓의 불우한 한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그이께서는 김삿갓의 시작품을 보면 풍자의 대상이 넓고 풍자의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고, 김삿갓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풍자의 대상은 량반이였다고, 량반통치배를 극도로 미워하였던 김삿갓은 주로 풍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폭로하고 조소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삿갓이 즐겨쓴 풍자의 수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였다.

김삿갓은 우선 소리 같은 말을 리용하여 량반을 조소하였는데 이러한 수법은 매우 이채로운것이다. 그는 언제나 기발한 착상과 능숙한 수법으로 량반을 비롯하여 무위도식하는 무리들을 풍자하였다. 량반을 풍자한 김삿갓의 시에는 량반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규탄과 경멸의 감정이 반영되여있다. 여기에 김삿갓의 작품이 가지는 진보성이 있다. 김삿갓은 또한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 시들을 많이 썼는데 시형식도 당시 량반들이 쓰던것과 다르다. 이것은 량반들에 대한 그의 반발의 표현인것이다.…

그이께서는 이어 김삿갓의 시를 흥미거리로만 보지 말고 김삿갓과 그의 시작품들도 옳게 평가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봉건사회가 몰락하여가던 시기에 활동한 재능있는 시인이였던 김삿갓을 응당 평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물론 김삿갓의 시작품에는 부족점도 있다고, 김삿갓이 개별적인 량반관료들을 풍자하고 조소하는 시들을 썼지만 당시 사회제도자체를 비판하거나 폭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조건과 김삿갓의 세계관에서의 제한성을 보여준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들의 놀라움은 이를데 없었다.

귀중한 력사자료도 아니고 봉건사회말기에 활동한 방랑시인의 작품은 물론 그의 창작수법과 특기, 심리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문박식에 그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3 명의 똘스또이

주체 56(1967)년 6 월 27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새로 번역되여나온 예술영화를 보게 되시였다.

그이께서 이제 보게 될 예술영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자 한 일군이 쏘련예술영화 《고난의 길》을 보았는데 그것이 똘스또이작품이더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고난의 길》은 아. 똘스또이의 작품이지만 이제 보게 될 《깝까즈의 포로》는 레브 똘스또이의 작품이라고 알려주시였다.

일군은 똘스또이라는 작가가 쏘련에 두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그이께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쏘련에 똘스또이라는 작가가 두명이 아니라 세명이 있었다고, 레브 똘스또이와 아. 똘스또이 그리고 아. 까. 똘스또이

이렇게 3명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였다.

레브 똘스또이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82살까지 창작활동을 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였는데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좋은 작품을 많이 쓴 사람이였다.

아. 똘스또이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중엽에 62살까지 창작활동을 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였는데 장편소설 《고난의 길》을 비롯하여 좋은 작품을 많이 쓴 사람이였다. 그리고 아. 까. 똘스또이는 19세기 중엽에 창작활동을 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였는데 풍자시 《뽀뽀브의 꿈》, 서정시 《로씨야국가의 력사》와 단편적인 소설, 극작품들을 쓴 작가였다.

아. 까. 똘스또이의 작품들은 세계문학사에서 취급하지 않았기때문에 그의 이름은 로씨야문학계에만 알려져있다. 세계문학사에 일류급의 작가로 알려진 레브 똘스또이와 아. 똘스또이는 로씨야귀족출신으로서 부르죠아교육을 받았으며 부르죠아군대의 장교생활을 하다가 탈퇴하여 인민의 편으로 돌아선 량심적인 애국자들이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나신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레브 똘스또이가 장편소설 《부활》을 몇년동안 썼는지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7년동안 썼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레브 똘스또이가 7년동안 쓴것은 《전쟁과 평화》였고 《부활》은 10년동안 썼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스스로 10년동안 당대 사회의 불합리성과 계급적모순을 분석비판한 글을 썼다는것은 장편소설 《부활》이 량심적인 창작태도와 진지한 노력의 산물임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레닌은 레브 똘스또이를 가리켜 《로씨야의 거울》이라고 평가하였고

고리끼는 그를 《유럽소설계의 발자크, 쉐익스피어와 함께 3대거장의 한사람》이라고 평가한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일군에게 아. 똘스또이가 장편소설 《고난의 길》을 몇년동안 썼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이 10년인지 15년인지 좌우간 오래동안 썼다는 말을 들었다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아. 똘스또이는 자기의 자서전적인 소설 《고난의 길》을 20년동안 썼다고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그이께서는 장편소설 《고난의 길》에서는 제1차세계대전과 로씨야의 2월혁명, 사회주의 10월혁명과 쏘베트국가의 창건, 공민전쟁과 같은 크고작은 사건들을 취급하면서 혁명과 지식인문제를 론하였는데 그것은 작가가 시대의 변화과정에 복잡한 정신적고충을 겪으며 진리를 탐구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야말로 막힘이 없으시였다.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인가

주체 45(1956)년 5월 3일에 있은 이야기이다.

이날 학생들은 고리끼의 단편소설 《아르히쁘할아버지와 료니까》에서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찾아오라고 한 숙제를 놓고 론쟁을 벌리였다.

굶주리면서도 정직하게 살려는 료니까도 그렇고 불쌍한 손자를 먹여살리기 위해 애쓰는 할아버지도 긍정인물이라느니, 부정인물은 소설에 그려지지 않았으니 없는 부정인물을 찾으라는 숙제였다느니 하면서 학생들의 론쟁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르히쁘할아버지가 긍정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동무들은 누구누구인가고 물으시였다.

몇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그이께서 이번에는 료니까가 긍정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동무들

은 누구누구인가고 물으시자 다른 여러명의 동무들이 손을 들었다.

그이께서는 할아버지가 긍정이라고 한 학생들에게 아르히쁘할아버지가 긍정인물이라면 그가 도적질하는것도 옳다고 생각하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 학생들은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물론 아르히쁘할아버지는 굶주린 손자 료니까를 먹여살리기 위하여 나중에는 도적질까지 한다고, 한편 료니까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것을 알고 할아버지에게 굶어죽을지언정 도적질을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할아버지를 동정하게 될뿐 아니라 깨끗한 량심을 가진 료니까를 더욱 동정하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 그렇다면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이겠는가고 물음을 제기하시자 한 학생이 기본긍정인물은 료니까이고 할아버지는 동정받는 인물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러던 학생은 그이께서 부정인물은 누구인가고 재차 물으시자 대답을 못하고 눈만 껌벅거리였다.

미소를 지으신 그이께서는 우리는 이 대답을 아르히쁘할아버지나 료니까의 형상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빈궁속에 몰아넣은 당시 짜리로씨야의 반동관료배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렇기때문에 이 작품의 부정인물은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동관료배들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작가가 소설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인민들을 동정하면서 아울러 그들을 못살게 만든 자본주의사회의 반동관료배들을 부정인물로 등장시키지 않고도 비판하게 하였다는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예리한 분석판단력앞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무식이 아닌 유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야영생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쏘련예술영화 《석화》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시던 주체 51(1962)년 9월 21일이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추운 겨울날 마을사람들이 모여 흥겨운 결혼식을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상기시켜주시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창가에 모여들어 성에가 얼어붙은 유리창문을 호호 불며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렸는데 그 묘사가 잘된것 같은가고 물음을 제기하시였다.

영화를 본지 얼마 안되였지만 얼핏 스쳐진 그 장면인지라 인차 떠오르지 않는지 한동안 기억을 더듬어보던 그들은 생각이 나는듯 무릎을 쳤다.

마을조무래기들이 서로 싱갱이질을 하면서 창문가에 매달려 저마다 키돋움을 하며 방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였다.

그런데 그 묘사가 잘된것인가고 물으시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별다른것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야영생들은 생활화폭을 재미나게 그렸다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명랑하게 웃으시며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겨울에 성에가 유리창문에 끼는가, 밖에 끼는가고 다시 물음을 제기하시여 그들의 생각을 틔여주시였다.

(아차! 성에는 창문안에 끼기마련이지.)

그제서야 이마를 치는 야영생들…

아이들이 밖에서 유리창을 입김으로 불어 녹이는것으로 형상한, 기껏하여 4~5초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영화의 한 장면을 어느 누군들 그리도 세세히 관찰해볼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관찰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야영생들은 영화의 형상이 확실히 잘못되였다고, 엉터리라고 평가를 내렸다.

지어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창작가들이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욕을 퍼붓기까지 하는 그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여전히 미소

어린 안색으로 동무들의 대답이 다 틀렸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영화창작가들이 무식한것이 아니라 아주 유식하다고 다시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유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까닭을 설명해주시였다.

성에가 하얗게 낀 유리창을 안에서 입김으로 녹여 밖을 내다볼수는 있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것, 얼핏 생각하면 창작가들이 자연현상과 생활을 깊이 모르고 한것 같다는것, 그러나 작가와 연출가는 그들이 어른이 아니라 사물현상을 단순하게 리해하는 아이들이며 그들의 동심은 꼭 그렇게밖에 달리는 될수 없다고 보았다는것…

그이의 가르치심은 계속 이어졌다.

생각해보라. 아이들은 입김으로 불면 성에가 녹을수 있다는것은 생각해도 겨울에 성에가 방안에 생긴다는것은 모를수 있지 않는가. 결국 이 장면은 자연현상의 리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심리와 생활론리에는 나무랄데없이 꼭 맞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다.…

야영생들은 너무도 놀라운 그이의 분석력에 넋을 완전히 잃고말았다.

누구든 무심히 스쳐보내기가 일쑤인 작은 그 세부묘사에서 문제성을 찾아내신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분석력 또한 명철하고 론리정연한것이여서 역시 비범한분이시구나 하는 매혹의 감정만이 앞설뿐이였다.

체스꼬노래 같다

주체 82(1993)년 11월 17일이였다.

이날 한 예술단체에서 창작한 노래들을 록음으로 들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률들이 모두 류사하여 전번에도 되게 비판하였는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크게 질책하시였다.

노래를 올린 일군은 죄책감에 마음이 옥죄여드는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실태를 그대로 보고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창작한 노래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수준이 있는 노래들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신중하신 어조로 오늘 올려온 4곡이 최근에 창작한 노래중에서 제일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더 문제라고 못박으시였다.

일군은 어리둥절해졌다.

그이께서는 미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일군에게 한 작곡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동무가 작곡한 《총탄이 되리라 폭탄이 되리라》는 체스꼬노래 같다고 가르치시였다.

순간 일군은 너무도 놀라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일군은 흥분된 마음을 다잡으며 그 작곡가가 체스꼬류학생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노래를 작곡한 동무가 체스꼬류학생이라고 하는데 어쩐지 노래가 체스꼬식 같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웃음소리에 방안의 긴장한 공기는 순간에 해소되였다.

하건만 일군은 놀랍고 충동이 커서 웃음조차 잊은듯 했다.

노래를 들으시고 서유럽풍이라든지 동남아시아냄새가 난다든지 그 어느 대륙이나 지역을 짚어도 놀랍겠는데 음악으로 크게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의 선률을 대번에 끄집어내시니 그 신비로운 경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랴.

주체음악의 화원에 끼여들번 했던 이 선률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비로운 예지앞에서 순간에 뽑혀지고 주체적인 선률이 그자리에 들어앉았다.

거듭 놀란 창작가들

주체 71(1982)년 1 월 3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 작곡가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높이 자랑할수 있는 아름다운 수도를 가지고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좋은 노래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는것은 그들이 자기 수령의 위대성, 자기 조국의 강대성, 자기 수도의 아름다움을 심장으로 느끼지 못하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의 뜨빌리씨》라는 노래를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선듯 대답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이 노래는 어느한 나라의 예술영화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노래에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있다고 하시면서 뜨빌리씨는 그 나라의 지방도시로서 소문난 도시가 아니였는데 《나의 뜨빌리씨》라는 노래가 나온 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고, 그런데 우리 평양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아직 평양에 대한 좋은 노래가 없다고 아쉬워하시였다.

이어 모두들 그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자신께서도 그 영화를 본지 오랬는데 그 노래는 아마 영화의 8 권 아니면 9 권쯤에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창작가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래전에 한번 보신 외국영화의 노래선률은 물론 그 노래가 필림의 어느 권에서 나온다는것까지 기억하고계시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후 창작가들은 그 영화를 가져다 돌렸다.

노래《나의 뜨빌리씨》는 정확히 8 권과 9 권에서 나왔다.

비상하다고만 하기에는 그 표현이 너무도 모자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출중한 기억력에 창작가들은 거듭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포르테는 어디에 갔는가

주체 94(2005)년 3 월 13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의 대중창공연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반주가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피아노소리가 너무 작다보니 반주가 있으나마나하게 되였다고, 사실 자신께서는 오늘 피아노연주가들이 피아노를 어떻게 연주하는가 하는것을 보려고 크게 마음먹었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연주하다보니 그들의 연주수준이 어떤지 알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지휘자에게 피아노라는 악기이름이 무슨 뜻인가고 물으시였다.

작게 혹은 크게 연주할수 있다는 뜻으로 실지이름은 피아노 포르테라는 지휘자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옳다고 긍정하시고 원래 피아노라는 악기의 고유한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인데 그것은 작게 크게 연주할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오늘 피아노반주는 피아노라는 뜻만 나타냈지 포르테라는 뜻은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포르테는 어디에 갔는가고 하시였다.

지휘자는 얼굴만 붉혔을뿐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음악지휘에서 제노라 하는 그가 악기의 성능조차 제대로 발휘할수 없게 지휘를 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첫 곡목을 들을 때부터 지휘자가 반주를 억제시켰다는것을 제꺽 간파하였다고, 아마 지휘자는 피아노반주가 장중하면 대중창의 소리가 눌리울것 같아 그렇게 하였을것이라고, 지휘자가 피아노반주를 억제시키는 경우 노래의 성격이 살아나지 못하고 음정이 불안한것이 다 드러난다는것은 타산하지 못한것 같다고, 지휘자는 음악형상지도를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심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분석과 판단은 참으로 명철하였다.

지휘자는 노래형상에 기본초점을 두고 반주를 그에 복종시키려고 소리를 작게 낼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피아노반주에서 각이한 화성과 리듬, 여러가지 연주형상수법을 적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신 다음 어디 한번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갱신해보라고, 포르테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후 반주형상을 새롭게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대중창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공연결과는 성과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반주에서는 피아노 포르테라는 피아노악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였다고, 편곡도 잘하고 피아노연주도 잘하였다고, 대중창반주문제는 해결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주체 45(1956)년 3 월 23 일이였다.

이날 미술소조원들이 소조원실에서 습작을 하고있는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실에 들어오시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신것을 알고 한 학생이 황급히 일어나자 그이께서는 어서 앉으라고 하시면서 그림을 좀 보아도 일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학생은 어줍은 표정을 지으며 화판을 드리였는데 그가 속사한것은 로씨야화가 일리야 레삔의 초상이였다.

그이께서는 레삔이 제일 마음에 드는 모양이라고 하시자 그 학생은 세계미술의 대가여서 한번 그려보고싶었다고 말씀올렸다.

그의 말에 그이께서는 그를 보고 왜 세계미술의 대가라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레삔이 세계미술력사에 훌륭한 인물작품을 적지 않게 남겼기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대답올렸다.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레삔의 어떤 그림들을 보았는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잠시 생각을 더듬던 그는 《볼가의 배끌기군들》, 《참회의 거절》 등 여러개의 작품을 꼽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레삔의 그림을 많이 보았는데 정말 걸작들이라고 하시면서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레삔은 로씨야의 이름난 사실주의화가이다. 지금도 모스크바에 있는 뜨레찌야꼬브미술박물관에 그의 작품이 많은데 인물형상이 너무 생동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한다. 이런 고전걸작들이나 명인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있는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레삔이요 호마요 아그렙빠요 비스나요 하면서 인물소묘의 기초를 전적으로 유럽사람들의 인물형상에 둘 필요는 없다. 동무들이 미술소조에서 그림그리는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매번 서양사람만 그리고있다. …

그이의 말씀에 소조원들은 모두 자기들이 그리던 그림을 내려다 보았다. 신통히도 거의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초상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이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조선사람이 조선사람을 그려야지 서양사람만 그려버릇하면 조선사람을 그려도 다 서양사람처럼 그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그려도 자기 나라 사람을 그리고 풍경을 그려도 자기 나라의 풍경을 그려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나라의 훌륭한 화가로 될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미술을 발전시킬수 있다. 내 생각에는 미술소조에서 그리는 모든 그림이 철저히 우리의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무들은 조선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소묘의 기초를 정하여 공부도 하고 들끓는 현실에 직접 나가 생동한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는 소조책임자의 결의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창조로 들끓는 현실속에서 기적을 낳고있는 영웅적로동계급과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자연풍경을 많이 그리는것, 이것이 바로

미술작품창작에서 주체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조선화와 몰골기법

주체 61(1972)년 6월 1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5월에 새로 개관한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에 미술작품을 많이 전시해놓으니 박물관의 면모가 새로와졌다고, 전국의 미술가들을 동원하여 많은 주화를 창작하였는데 작품의 형상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해방후 창작한 유화 《보천보의 홰불》을 이번에 새로 확대형상하였는데 그 형상이 잘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다가 새로 형상한 작품이 거의다 유화인데 유화는 색도 잘 날지 않고 깊이도 있어보여 박물관 전시작품으로서는 좋은 점이 있으나 지금처럼 미술작품을 다 유화로만 형상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술작품창작에서 계속 유화에 치우쳐서는 안될것이라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꾸리면서 주화를 비롯한 중요한 미술작품들을 조선화로 형상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아쉬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조선혁명박물관의 미술작품을 전시한것을 보면 일부 일군들속에서 아직 유화에 대한 환상이 없어지지 않고있는것 같다고, 일부 일군들은 작품창작이 제기될 때마다 덮어놓고 유화를 그려야 한다고 말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의 미술분야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사대주의에 경종을 울리시는 심각한 가르치심이였다.

그이께서는 미술작품창작에서 조선화를 위주로 하는가 유화를 위주로 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세우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이라고, 지금

처럼 중요한 미술작품들을 다 유화로 그리게 되면 미술작품창작에서 조선화를 기본으로 할데 대한 당의 주체적문예방침을 관철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민족문화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고, 자신께서 제11차 국가미술전람회를 지도할 때에도 말하였지만 우리의 미술은 어디까지나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의 미술을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킨다는것은 조선화를 주도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며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미술형식도 발전시킨다는것을 말한다. 회화로서의 조선화는 색, 선. 명암과 같은 조형적인 형상수단을 폭넓게 활용하여 현실을 선명하고 간결하고 섬세한 화법으로 생동하게 그려낸다. 우리는 민족미술의 우수한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견지에서 보나 미술발전에서 회화가 차지하는 위치로 보나 조선화를 기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술에서 사대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적인 잔재를 없애고 유화위주로부터 조선화위주로 전환하는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화위주로 전환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에로 담화를 심화시켜나가시였다.

● 조선화의 화법을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

화법도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발전완성된다. 화법은 매개 미술형식의 특성을 살리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만큼 그것을 완성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미술형식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는 화법을 완성하는데서 옛날것만 고집하거나 전

통을 무시하고 새것만 주장하는 두가지 편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 조선화화법에서 기본을 이루는 여러가지 묘사기법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구려벽화에서도 나타나고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시기에는 색묘기법과 선묘기법이 서로 통일되여있었다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선묘기법이 우위를 차지하였던것 같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조선화를 보면 채색화가 적으며 채색화의 경우에도 수묵담채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하고있는 오늘의 조선화는 색묘기법을 위주로 하면서 다양한 기법을 널리 활용하는 채색화로 발전하고있다. 조선화가 현실생활을 생동한 형상으로 재현하는 새로운 채색화로 전환됨으로써 조선화의 직관적표현이 더욱 커지고 민족미술의 고유한 전통적인 화법이 오늘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 우리는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살려 그것을 전면적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가운데서 몰골기법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림을 몰골기법으로 많이 그리지 않고있다. 한때 사의적방법에 기초한 옛날 몰골그림의 형식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회화수법에 대하여 비판한적이 있다. 사의적방법에 기초한 몰골그림을 비판한것은 지난 시기 봉건사대부들이 뜻을 그린다고 하면서 도식적으로 매화, 란초, 국화, 참대와 같은 사군자를 주로 형상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이 사군자를 그린 몰골그림은 생활과 떨어진 형식주의적인 먹그림이였다. 우리는 봉건사대부들이 그린 이러한 형식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문인화를 경계하는것이지 조선화의 전통적인 몰골기법의 독특한 기법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일군들은 저으기 놀랐다.

사실 그들은 몰골기법을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이 한갖 음풍영월을 노래하는데 리용되던 낡고 진부한 화법으로 치부하고 전문가들

에게 상식적으로 알려주는데 그치였지 그것을 조선화창작실천에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몰골기법을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중시하시고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는것이였다.

민족문화유산의 우수한 점을 발견해내시는 그이의 안목은 실로 비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상의 특징을 함축된 붓질로 선명하게 표현하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몰골기법은 유화에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독특한 조형미를 창조하는 훌륭한 기법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몰골그림이 사의적방법에 기초하고있는 조건에서 사의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조선화에서 사의라는것은 뜻을 그린다는것인데 뜻을 그리는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문제는 어떤 뜻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몰골기법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새롭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하여 거듭 이르시였다.

재능있는 조선의 선조들이 창조한, 다른 나라들의 유화창작기법에 비할바없이 훌륭한 기법이였지만 일군들의 사대주의적관점으로 하여 뒤전에 밀려났던 몰골기법이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자기의 독특한 빛을 되찾는 의의깊은 순간이였다.

조선사람을 그려야 한다

주체 49(1960)년 1월 19일 학교 미술소조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그림도 보아주시며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학생에게 앞에 놓고 그리고있는 석고상들의 이름과 용도,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이르시였다.

《밀로의 빅나스, 호머…》

학생은 석고상들의 이름을 아는대로 렬거한 다음 이 석고상들은

미술기초교육에서 구조적인 형태와 명암의 변화를 익히고 묘사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재용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이 석고상들이 누구의 작품이며 이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리는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학생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그림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형태와 명암이 쉽게 구별될수 있는 흰 색갈로 된 석고상을 교재로 해서 그리는것이 좋다고, 그리고 단순한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형태로 점점 힘든 교재를 그려나가는것은 미술기초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어느덧 정숙이 깃든 장내를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나 왜 고대그리스의 조각상을 위주로 해서 소묘공부를 해야 하는가.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보라고 이르시였다.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당시 미술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있었고 또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도 응당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소묘기초공부를 하자면 단순한 석고기하학체로부터 호머, 아그리빠, 아뽈론, 빅나스, 라오콘과 같이 점점 복잡한 석고상들을 그려야 하는것으로 인정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다보니 고대그리스의 조각상을 위주로 소묘공부를 하는데 대하여 의문을 품어본 사람조차 없었다.

학생들이 대답을 드리지 못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미술가들이 고대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들이 창조한 조각품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그려본다면 리해할수 있다. 그러나 이 조각상들을 교재용석고상으로 해서 소묘공부를 하는것은 순전히 교조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즉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식이다. 우리 나라 미술가는 반드시 우리 나라 사람을 대

상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데 저런 서양사람을 조각한 것을 그려서 그들의 생김새밖에 무엇을 더 배우겠는가. 눈이 우묵 들어가고 코가 우뚝 솟아있는 저 얼굴에는 조선사람과 비슷한데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러니 응당 조선사람을 조각한 석고상을 교재로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 다른 측면을 분석해보자. 광선에 의한 명암의 변화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서양사람과 조선사람은 굴곡이 다르므로 그 변화도 다를것이다. 흰 색갈로 된 이 석고상을 그리는 과정을 통하여 명암의 흐름관계를 배우자고 하면 그것도 응당 조선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흐르는 광선의 변화를 관찰하고 익혀나가야지 서양사람의 얼굴을 그려가지고서는 조선사람의 얼굴에서 광선변화를 연구할수 없다. 이렇게 놓고볼 때 역시 고대그리스조각을 교재로 하는것은 잘못되였다고 생각한다. …

순간 학생들은 오랜 세월 버티고있던 이끼오른 성벽이 스르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은감을 느꼈다.

정녕 그러했다. 그이의 비범한 예지앞에 굳어질대로 굳어진 기성관념이 타파되는 장쾌한 순간이였다.

한동안 커다란 충격에 잠겨있던 학생들은 마음을 다잡고 그런데 조선사람을 형상해서 만든 교재용석고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것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나 우리에게 필요한것이라면 우리 식으로 만들어쓸 생각을 하여야 한다. 유능한 조각가들을 동원해서 우리 나라의 유명한 인물들을 형상하여 교재용석고상으로 쓰면 되지 않는가. 수령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는데 왜 미술부문에서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지 않고있는지 모르겠다. …

그이께서는 보다 명백하게 일깨워주시였다.

고대그리스조각상을 교재로 삼는 그자체가 사대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민족허무주의이다. 여기에 있는 밀로의 빅나스나 아뽈론조각상들은 고대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형상한 비현실적인 존재들이다. 고대력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것을 상식으로나 알고있으면 되지 무엇때문에 이런것들을 미술기초교육의 교재로 쓰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주체가 철저히 서지 못한 표현이다.…

당시 우심하게 나타나던 사대와 교조, 민족허무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미술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외과의사의 세가지 기질

주체 51(1962)년 5 월 9 일 어느한 병원의 외과의사를 만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 훌륭한 외과의사가 되자면 어떤 기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 그날에 하신 외과의사가 지녀야 할 기질에 관한 가르치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영민한 두뇌

외과의사는 머리를 잘 써야 수술과정에 나타나는 정황을 능숙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외과의사는 수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옳게 추리판단하여 자기의 결심을 내릴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현실속에서 많은것을 보고 체험하여 안목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지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여 영민한 관찰력과 사고력을 가질수 있다.

수술이란 단순한 칼놀림이 아니라 그 어떤 정황도 막힘없이 처리해나가야 하는 창조적사업이다. 그러므로 외과의사는 영민한 두뇌를 가지고 높은 지적능력을 발휘해나가야 하는것이다.…

②큰 심장

외과의사는 심장이 커야 한다. 수술은 인간의 생명앞에서 분초를 다투는 매우 긴장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서 외과의사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일단 수술칼을 잡은 다음에는 불같은 열정과 결단성,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중단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기질을 발휘하자면 평시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담력을 키운 뜨겁고도 큰 심장을 가져야 한다.…

③정교한 손

수술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극히 면밀한 손조작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 집도자의 손놀림은 날렵하고 깐지며 리치에 맞아야 한다. 말하자면 외과의사는 손에 익은 정교한 수술솜씨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외과의사들은 수술수기가 그리 높지 못하다. 외과의사들은 늘 수술칼을 놓지 말고 손을 놀리면서 자기의 림상기술수준과 수술수기를 높이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외과의사는 영민한 두뇌와 큰 심장, 정교한 손을 가져야 한다고, 이 세가지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훌륭한 외과의사라고 말할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부수상의 탄복

주체 51(1962)년 3 월 2 일이였다.

당시 내각 부수상 홍명희선생을 만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선생의 건강에 대하여 다정히 물어주시고 고려의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여 우리 나라의 의학을 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고려의학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일부 사람들이 신의학만 중시하면서 조선민족

의 전통적인 의학유산인 고려의학을 홀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우리 사람들속에 고려의학에 대한 리해가 부족한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우리 민족의 의학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경향이 남아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려의학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이바지하여온 민족의학이라고, 우리 나라 고려의학은 경험의학이지만 자기의 고유한 리론체계를 가지고 발전하여온 귀중한 의학유산이고 조선사람들의 생활습성과 체질에 알맞게 연구발전되여온 조선민족의 고유한 의학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부수상은 그이의 가르치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력사책을 보아도 오래전부터 조선의 약재들이 세계에 널리 전해졌으며 고려의학치료기술이 동방의 많은 나라들에 알려졌다고 기록되여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긍정하시면서 15 세기부터 17 세기에 로중례, 유효통, 허준과 같은 의학자들이 쓴 의학서적만 보아도 편찬년대가 오래된 점에서나 책의 규모와 내용의 풍부성에서나 그리고 체계의 정연성과 리용가치의 견지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3 대고전의학도서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었고 중국과 일본에서만도 여러번 출판되였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고조선시기 돌침치료법을 병치료에 리용한 사실이며 세나라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의학책들이 서술되였다는 사실, 침, 뜸, 부항 등을 리용한 민간치료방법들과 어디에나 흔한 약재를 가지고 각이한 병들을 치료할수 있는 리론적방법들과 실천적경험들이 창조된 사실…

특히 고전의학도서들에 들어있는 조선인민의 체질과 생활습성에 맞는 수천가지의 침구법, 부항과 찜질료법뿐아니라 고려약제조법과 약취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렬거하시였다.

선생은 북받치는 격정속에 통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 귀중한것을 대를 이어 전해가며 보존발전시켜야 할 의학고전으로, 민족유산으로 본 사회과학자도 의학자도 없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든든해졌다.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화재부라면 그리도 중히 여기시는 젊으신 위인께서 계시여 버림받던 고전의학도서들이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보로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였다는 기쁨에서였다.

그후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인 고려의학이 날을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도 선망과 경탄의 대상으로 되였다.

이어지는 탄복

주체 99(2010)년 11월 2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의학대학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대학에 꾸려진 여러 실습실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실 때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그이의 다문박식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외과학총론실습실을 잘 꾸렸다고 치하하신 그이께서는 복강경하수술련습기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그 련습기로 수술훈련을 하면 수술방법을 원만히 습득할수 있을것 같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내과진단학실습실에서였다.

벽에 게시되여있는 정상사람의 표준기준치 특히 조선사람의 정상기준치와 심장검사, 렌트겐검사 등 실험 및 기구검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어느한 직관판을 가리키며 저것은 렌트겐필림판목장치가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옳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이 필림들을 통하여 정상폐장과 폐종양, 폐염병조가 있는 폐장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것을 서로 비교하여 차이나는 점을 찾아내는것 같은데 필림을 판독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워주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의학과학분야의 세부에 대해서도 그처럼 조예가 깊으신데 대해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탄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갔다.

그이께서 침구학, 치과총론학, 방역학실습실들을 거쳐 분자생물실습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실습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생물로보트, 생물소편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첨단설비들을 리용하는 분자진단모의실험도 진행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 일군은 콤퓨터투영막에 DNA 소편에 의한 질병의 종합진단모의실험프로그람과 TV 를 통한 분자진단매체편집물을 비쳐드리였다.

투영기화면에 나오는 동화상자료를 주의깊에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DNA 소편에서 기본은 핵산탐침이라고 하시면서 전번에 다른 나라에 가서 생물소편을 본 일이 있다는것과 지금 국가과학원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에서 하고있는 연구사업이며 최신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며 하나하나 알려주시였다.

의학분야에서 최첨단이라고 할수 있는 자료들까지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과 교원들은 또다시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의학정보학실습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한 학생의 곁으로 다가서시여 강의진행정형을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프로그람을 어디에서 개발하였는가, 기성프로그람들을 어떻게 리용하고있는가 알아보시고 대학들에서 교육사업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람들을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고, 교

육사업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끊임없이 이어지고 스스로 더 높이 터치게 되는 일군들과 교원들의 탄성, 그것은 수십년간을 의학과학교육부문에서 일해오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현대의학의 발전동향과 추세를 그처럼 환히 꿰드시고 대학교육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매혹과 흠모의 표시였다.

조선씨름의 래력

김일성종합대학창립 15돐을 맞으며 대학에서는 체육대회를 조직하였다.

학부마다 체육대회준비로 흥성거리던 주체50(1961)년 8월 29일 경제학부 2학년의 한 학생은 학부장방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학부장이 그이께 대학체육단 씨름부장이라고 소개해드리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자신께서도 알고있다고, 어떻게 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경제학부 씨름선수선발과 훈련문제때문에 이 학생을 불렀다는 학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언제부터 씨름을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7살에 마을의 소년급비교씨름에서 우승한 때로부터 조선인민군 체육대회에서도 여러차례 1등을 하였다는 학생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동무는 씨름명수라고 할수 있는데 씨름의 래력에 대해서 알고있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조선에서 씨름을 언제부터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몽골에서 들어왔다는 말을 얻어들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씨름선수는 씨름래력 같은것도 알고있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에서 씨름이 언제 생겨났는가 하는데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고구려시기에 이미 널리 보급되여있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구려시기 무덤의 벽화에는 웃통을 벗어제낀 씨름군들이 승부를 겨루는 재미있는 장면이 그려져있다고,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씨름을 즐겨하였으며 고구려시기에 씨름이 널리 보급되였다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지난날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 씨름이 마치 몽골씨름에서 유래된것처럼 말하였는데 그것은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다. 우리 나라 씨름이 몽골씨름에서 유래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경우 몽골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있던 고려의 현효왕(충혜왕)때부터 씨름과 관련된 기록이 력사책에 나타난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고있다. 그러나 고구려시기의 무덤에 그려진 벽화에 씨름장면이 나온것만큼 씨름이 고려때에 몽골에서 처음 들어왔다는 주장은 옳은것이라고 말할수 없다. 씨름은 고려 이전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 생겨난것이다.…

학생도 놀랐지만 더 크게 놀란것은 학부장이였다.

칭기스한이 제뿔뿔이 흩어져살던 부족들의 두목들을 치고 통일적인 몽골국가를 세운것이 A.D.13세기초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는 B.C. 수백년전, 그러니 몽골보다 근 1 500년전에 창건되였다. 그런데 고구려벽화에 씨름그림이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씨름이 몽골에서 들어왔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조선씨름이 몽골에서 유래되였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사람들속에 사대주의가 많다보니 다른 나라에 우리 나라의것과 비슷한것이 있으면 그 연원을 덮어놓고 다른 나라에서 찾으려는 나쁜 버릇이 생겨나게 되였다고, 우리 나라에서 먼저 생겨 다른 나라에 퍼진것도 많은데 그런것은 잘 보려 하지 않고 반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

시아씨름의 연원에 대해서도 주체적립장에서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어조로 가르치시였다.

그후 조선의 력사학자들은 조선고유의 민족경기의 하나인 조선씨름이 수천년전에 조선의 선조들에 의하여 창조된 민족의 유산임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통신사의 유래와 역할

주체 49(1960)년 11월 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댁으로 간 한 대학생은 깜짝 놀랐다.

그이께서 책상우에 쌓여있는 각 나라별 통신자료들을 연구하고 계시였는데 그 량이 굉장히 많았던것이다.

대학생이 무슨 통신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가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좀 밀린것을 마저 보느라고 그런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통신사의 유래에 대하여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잘 모른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간단히 들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통신사의 발생력사는 오래다. 통신은 먼 옛날사람들도 하였다고 한다. 통신사업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것은 새 소식을 전문으로 수집하고 교환하는 통신보도기관이 나오고 무전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세계에서 제일먼저 나온 통신사는 프랑스의 AFP인데 아바쓰라는 사람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일화에 의하면 세계정복을 꿈꾸어오던 나뽈레옹이 쎈트 헬레나섬에서 류배살이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소식이 몇달후에야 빠리에 알려지게 되였다고 한다. 자기들의 《민족적영웅》이 죽은것도 모르고있는데 큰 충격을 받은 아바쓰는 새 소식을 신속히 수집전달할것을 목적으로 통신사를 설치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후 도이췰란드에서 월프통신사가 나왔으며 영국에서 로이터통신사가 창설되였다. 아바쓰, 월프, 로이터를 가리켜 19세기 후반기까지 3대통신사라고 하였다. 이 통신사

들은 협정을 통하여 세계를 몇개 지역으로 나누어 통신보도자료들을 수집하고 제공하는것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였다. 뒤늦게 출현한 AP 통신사는 유럽의 3 대통신사들과의 싸움끝에 북아메리카에서 통신보도의 독점권을 획득하였다. 이 통신사들은 순수한 보도활동만 하는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자국의 해외침략을 위한 정보수집과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례로 로이터통신사는 세계에 널려있는 조밀한 통신망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 제 1 차세계대전에서 도이췰란드가 패망한것은 로이터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보활동을 활발히 벌렸다고 한다. 일본도 뒤늦게야 통신보도활동의 눈을 떴다. 일본의 통신사들도 례외없이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활약하였다.…

자본주의나라 통신사들에 대한 신랄한 정치적분석이였다.

학생은 그이께 언제 세계 각 나라 통신사들의 력사와 사명까지 그렇게 깊이 연구하시였는가고 문의의 말씀을 드렸다.

그이께서는 소탈하게 웃으실뿐이였다.

학생은 조선중앙통신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사로 되여야 하는가고 스스럼없이 문의의 말씀을 드렸다.

그이께서는 조선중앙통신사는 비록 해방후에 창립되였지만 그 력사적뿌리는 대단히 깊다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있었기때문에 해방후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통신보도기관을 인차 내올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중앙통신사는 철저히 수령님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내보내는 일체 보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사와 의도만이 담겨져있다고,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사를 가리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세자료는 수령님께서 세우시는 로선과 정책에 이바지하는 기초자료들이라고,

우리들이 매일 아침 보는 신문들에 실리는 국내외 주요사변들에 대한 자료들도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보장해준다고,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사를 가리켜 우리 당의 자료원천지라고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통신 한건을 보아도 무심히 보아서는 안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조선음식이 제일

주체 74(1985)년 3 월 6 일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식탁을 마주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이 난김에 조선음식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음식은 기름기가 많지 않아서 느끼하지도 않고 또 슴슴하지도 않다고. 조선음식은 생신하고 감칠맛이 있으며 먹음직하고 향기로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이의 《특강》은 조선음식의 진미를 생동하게 펼쳐보인것으로 해서 일군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이께서는 조선음식이 특별히 맛이 좋은것은 무엇보다도 음식감들이 좋기때문이라고,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하고 비가 알맞춤하게 오며 기온이 따뜻하고 땅이 기름져 낟알과 남새, 산나물과 과일과 같은 음식재료들이 잘 자라고 잘 여문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음식이 맛이 좋은것은 또한 여러가지 양념감들을 고르롭게 쓰는 음식솜씨가 발달되여있고 세련되여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양념감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꼽으시였다.

조선음식에서 맛을 돋구는 기본양념감은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이다. 말하자면 음식의 기본맛은 간을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조선음식의 양념감에는 이밖에도 파, 고추, 마늘, 생강, 후추, 겨자와 같이 자극성이 있고 향기가 있는것도 있고 깨, 참기름과 같이 고소한 맛을 돋구는것도 있으며 꿀, 물엿과 같이 단맛을 내는것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음식의 맛을 돋구는 양념감들도 다양한데 튀기 같은 기름기있는 음식이나 소고기편육에는

초간장, 젓갈장을 쓰고 물고기회에는 초고추장, 겨자장을 쓰며 소고기회에는 참기름, 소금장을 쓴다. 사실 중국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름기가 많으며 일본음식이 산뜻하다고 하지만 단맛이 지내 많다. 그리고 무슨 제비둥지료리요, 물고기지느러미료리요 하는 료리들은 그 특색있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지만 사실상 그 맛이란 별치않은것이다, …

그이께서는 조선음식은 색갈도 아름답고 모양도 곱다고 하시면서 《특강》을 계속해나가시였다.

음식이란 사람들이 먹기전에 눈으로 보는것인데 조선음식은 색갈이 아름답고 다채로우며 모양이 곱기때문에 시각적으로 벌써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조선음식은 오미자, 대추, 고추 같은것으로 빨간색을 내고 솔꽃가루, 닭알노란자위 같은것으로 노란색을 내며 쑥, 청콩 같은것으로 파란색을 내고 검은깨, 돌버섯, 검은콩 같은것으로 까만색을 낸다. 은행, 잣, 호두, 대추, 밤 같은 열매로도 음식의 모양을 멋있게 만든다.…

특등료리사도 무색케 하는 그이의 말씀에 경탄의 목소리가 련속 울려나왔다. 그것은 음식분야도 환히 꿰들고계시는 다문박식하신 그이에 대한 매혹이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음식은 그것을 만드는데서도 높은 과학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고있다고 하신 후 일군들에게 동무들가운데 누가 밥을 지어본 동무가 있는가, 몇번 해보았다고 해서 밥짓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래 조선식으로 밥을 잘 지으려면 쌀을 씻은 다음 약간 불굴뿐 아니라 처음에는 센 불을 때서 밥이 끓게 하고 그다음에는 불을 약하게 해서 잦혀야 한다고. 그다음 다시 불을 잠간 세게 해서 뜸을 들여야 한다고, 이때 주의할것은 절대로 가마뚜껑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야 영양분의 손실이 없고 밥에 찰기가 있으며 밥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돌고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소화도

잘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음식을 만드는데는 과학성도 철저히 안받침되여있다는데 대해 말씀을 이어가시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음식을 만들면서 끓이고 볶고 굽고 지지는것과 같은 물리학적인 방법도 적용했고 김치, 쉬움떡, 식혜, 두부와 같이 삭히고 발효시키는 화학적인 방법도 리용하였다. 이것은 음식의 맛을 최대한으로 돋구게 할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병을 예방하거나 낫게 하는 약리적작용도 하게 된다.…

그이께서는 조선음식이 훌륭하다는것은 또한 그것을 담는데서도 높은 문화성과 위생성이 보장된다는것으로 설명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원래 조선음식차림법에서는 차거나 맵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은 작은 그릇에 담고 슴슴하고 자극성이 적은 음식은 큰 그릇에 담아서 그릇을 보고도 음식의 내용과 특성을 알수 있게 한다고, 조선음식의 그릇에는 대체로 뚜껑을 쓰게 되여있는데 그것은 음식물의 온도와 향기를 보존하고 외부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한다고 설명하시였다.

아무리 퍼내고퍼내도 그이의 음식지식《보물고》는 끝이 없을상 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음식이란 사람들이 매일 매끼 늘 먹는것인데 그것이 다양하지 못하면 곧 싫증을 느끼게 되고 물리게도 된다고. 그러나 조선음식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결코 자기 음식에서 지루한것을 모르고 불만을 모르는 그런 의미에서도 행복한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음식이 제일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알려주신 료리이름

주체 58(1969)년 3 월 4 일 밤이였다.

댁에 들어가실 시간이 없어 가까이에 있는 어느한 려관에서 늦은 식사를 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갑자기 접대원을 찾으시였다.

영문을 모르고 급히 다가온 접대원에게 그이께서 오이에다 닭고기를 섞은 음식을 가리키며 이 료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고 물으시였다.

접대원이 닭고기볶음이라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고추에다 닭고기를 네모나게 썰어 볶은 료리를 가리키시며 저 료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접대원이 그것도 닭고기볶음이라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것도 닭고기볶음, 저것도 닭고기볶음이라고 하는데 동무는 료리이름을 모르고 접대한다고, 닭고기를 네모나게 썰어서 고추에 볶은 이 료리는 중국 사천성의 료리라고, 이 료리를 중국말로는 라죠지딩이라고 하며 우리 말로는 닭고기고추볶음이라고 하여야 옳다고, 라죠라는 말은 고추라는 뜻이고 지는 닭, 딩은 네모난형이라는 말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료리는 중국 사천성에서 처음 나왔다고, 사천성 사람들은 원래 음식을 맵게 먹는다고 하시면서 이 료리는 특색이 있는 좋은 료리라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제려관에서는 우리 나라의 민족료리를 기본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이름난 료리들도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접대원들은 료리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료리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손님들이 이제 말한 라죠지딩을 달라고 할 때 다른 닭고기볶음을 가져다줄수 있다고, 그러면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는가고, 그러자면 료리에 대한 학습을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조선민족의 자랑 신선로

주체 93(2004)년 6 월 24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속음식품평회장을 몸소 찾으시였다.

품평회장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 류다른 관심을 돌리신것은 신선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신선로료리의 맛도 보아주시면서 이번 민속음식품평회에 내놓은 신선로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다고, 신선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있는 음식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품평회에 내놓은 신선로가운데서 옥류관에서 만든것을 표준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지난 시기에 만든 신선로들은 형태와 재질이 서로 달라 어느것이 고유한 우리 나라 신선로인지 가려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표준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족료리의 자랑인 신선로를 그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신선로료리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신선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것을 좋아하는 조선사람들의 풍습과 기호에 맞게 3~5 명이 쓸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신선로에는 은행과 잣, 밤, 대추, 호두가 들어가야 한다. 신선로에는 분탕보다 떡국대를 썰어넣는것이 더 좋다.

● 신선로의 국물로는 닭고기국물을 쓰는것이 기본이다.

● 신선로를 끓이는데 지난 시기에는 숯을 썼지만 지금은 주로 알콜을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연료를 쓰겠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여 풀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선로는 산해진미를 한그릇에 담아놓았다고 할만치 맛에서도 으뜸이고 보기에도 아주 좋다고, 신선로는 산해진미를 다 맛볼수 있는 조선료리의 걸작품이며 대표작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젓가공품이름

주체 90(2001)년 9월 1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한 부대의 염소목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젖가공실에 들어서신 그이께 목장일군이 전시해놓은 여러가지 젖가공제품들을 설명해드리였다.

일군이 젖산유와 빠다, 치즈와 젖크림 등 젖가공제품들을 해설해드리자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일부 젖제품들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동무들이 케피르를 젖산유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케피르란 말은 국제공용어이라고, 국제공용어를 어원도 잘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우리 말로 고쳐쓰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젖크림이란 말도 잘 맞지 않는다고, 젖크림이라는 이름은 우리 말과 다른 나라 말을 섞어서 만든것인데 제품의 이름을 우리 말과 다른 나라 말이 섞인 잡탕말로 만들어 붙이는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잘못하면 일부 사람들이 녀성들이 쓰는 크림과 같은 화장품으로 리해할수 있으니 젖크림을 국제공용어그대로 밀크크림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일러주시였다.

일군들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이께서 모든 부문에 정통하고계신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젖가공제품이름의 어원까지도 그처럼 자상히 알고계실줄은 몰랐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치즈를 만들 때 나오는 물로 만든 음료의 이름도 정확하지 않다고, 그 음료의 이름을 젖으로 만든 청량음료라는 의미에서 유청음료라고 하였다는데 젖으로 만든 청량음료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이 제품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정확하겠는가 하는것을 전문일군들과 토론하여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동무들이 여러가지 젖산유라고 생산한 젖제품들가운데서 케피르와 요구르트, 야그르트 등 그 구분이 서로 다른

것이 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염소젖에 젖산균을 넣어 발효시킨것이 케피르이며 케피르에 과일즙과 사탕가루를 넣어 만든것이 요구르트이라고, 또한 케피르에 과일즙을 넣지 않고 사탕가루만 넣어 만든것이 야그르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문박식한 지식의 세계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녀성의 미

녀성들의 미는 무엇인가.

주체 68(1979)년 3월 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녀성일군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녀성들이 얼마나 알뜰한가 하는것은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 알수 있다고, 음식은 녀성의 미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들은 물론 품성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와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것은 음식을 잘 만드는것이라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 녀성은 사실상 녀성으로서는 불합격이라고 하시였다.

조용히 웃음을 지으시던 그이께서 녀성일군에게 어떤 녀성들은 가정의 주부로서 매일같이 밥을 짓고 찔게를 만들지만 그 맛은 시원치 않은데 그 원인이 어데 있는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정성이 부족한데 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는 녀성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의 대답에 긍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음식이 정성이라는것은 옳은 말이라고, 그 정성이란 무엇이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성일군이 뭐라고 꼭 짚을수 없어 생각을 더듬는데 그이께서는 단마디로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왜 음식은 녀성의 미라고 하는가 하면 거

기에 바로 인간에 대한 녀성들의 열렬한 사랑이 비쳐지기때문이라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자기보다 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그 참다운 사랑에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이 녀성의 미에 대한 강의를 받는 심정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일부 녀성들이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또 어데 있을것 같은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녀성일군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궁싯거리자 그이께서는 음식은 과학이라고 하시면서 녀성들이 음식을 잘 만들려면 여러가지 책도 보고 경험도 쌓아서 음식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알아야 한다고, 음식 한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수 있겠는가 하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바로 여기에 녀성들의 미가 있다고 하시였다.

이어 음식에 대한 이러한 탐구와 노력은 무엇보다도 양념감을 쓰는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였다.

녀성들이 음식을 잘 만들려면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도 잘 탐구하여야 한다. 음식은 그저 익히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덮어놓고 끓일것이 아니라 데칠것은 데치고 찔것은 찌며 지질것은 지지고 볶을것은 볶으며 구울것은 굽고 무칠것은 무쳐야 한다.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하려면 이미 해놓은 음식을 내놓을 때에도 머리를 써야 하는데 음식의 종류와 색갈에 따라 그릇을 잘 선택하고 량도 적절하게 담아야 한다. 음식의 량을 잘 정하는것도 하나의 례절로 된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담으면 상대방을 모욕하는것으로 되고 너무 적게 담으면 불쾌하게 만든다. 음식의 온도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따끈하게 먹어야 할 국을 미지근하게 하거나 차게 먹어야 할 료리를 뜨뜻하게 해놓으면 음식맛을 돋굴수 없다.…

그이께서는 음식문제, 료리문제에 대하여 언제부터 생각해왔는데 오늘 동무를 만났던김에 이야기했다고, 녀성들속에서 음식을 잘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좀 떠들어야겠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여 자신께서는 오늘 일부 녀성들이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는데 대하여 시비하거나 비판하자는것이 아니라고, 다만 우리 녀성들이 음식을 잘 만드는것이 자기들의 중요한 본분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고 모두가 음식의 능수, 료리의 명수가 되여 사람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녀성이 되기를 바랄뿐이라고 교시하시였다.

4. 군사

싸움은 군인이 한다

주체 86(1997)년 10 월 10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한 인민군부대의 지휘소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지휘소에는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관하전투단위들을 지휘할수 있는 현대적인 최신설비들과 기재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지휘소에서는 콤퓨터뿐 아니라 여러가지 전자설비들이 동시에 가동하면서 복잡한 경보신호들을 분석접수하고 해당한 지령을 내리고있었다.

동행한 일군들은 콤퓨터들이 수행하고있는 그 모든 과정을 흥미있게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볼수록 이제는 기술적우세를 뽐내는 적들과도 당당히 맞서 프로그람전쟁이면 프로그람전쟁, 전면전쟁이면 전면전쟁, 무엇이나 다 이길수 있다는 배심이 든든해졌다.

그도그럴것이 그때는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그 무슨 조선과의 모의전쟁, 프로그람전쟁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가 제놈들이 여지없이 패하는 답이 나와 비명을 질렀다는 말이 나돌던 때이라 콤퓨터를 보는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에 대한 신심과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콤퓨터에 의한 모의전쟁, 프로그람전쟁 같은것을 주장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에 인민군부대들에 콤퓨터를 비롯한 전자설비들이 많이 도입되여 적들이 떠들고있는 모의전쟁이나 프로그람전쟁에 환상을 가지고 그를 본따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는데 콤퓨터들이 아무리 현대화, 자동화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장애를 받거나 비루스가 침투되면 순간에 머저리가 되기때문에 그런 놀음을 하지

말하여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쟁에서 주체는 군인대중이라고, 싸움은 총잡은 군인이 하는것이지 콤퓨터가 하는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절대로 적들의 모의전쟁 같은것에 말려들지 말고 실동훈련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시였다.

사람인가 무기인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사람인가 무기인가.

이 물음에 대한 명철한 해명이 주체 51(1962)년 8월 22일 어은동군사야영지에서의 전술훈련 휴식시간에 주어졌다.

그날 군사야영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과 선행한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의 《창조적적용》, 그의 《계승발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보니 론쟁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자연히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러한 편견을 배격하면서 당의 주체적군사사상을 무엇때문에 선행한 군사리론과 결부시켜 꼭 계승관계로만 보아야 하는가, 새것이면 새것이지 《창조적적용》이요 뭐요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고 혁신적인 주장을 피력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주장에 관심을 돌리시면서 동무들이 말하는 새것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것인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이께서는 《창조적적용》이요, 《계승발전》이요 하는 학생들에게도 동무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론거를 세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들도 역시 대답이 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을 깊이 체득하지 못하고 주체

의 군사사상과 선행한 군사사상과의 차이를 가려낼수 있게 하는 기준을 옳게 찾지 못하고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이께서는 이러저러한 군사사상을 평가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준, 그러한 문제점으로 되는것이 무장력에 대한 견해이라는것을 밝혀주시면서 무장력은 사람과 무기로 이루어진다고, 사람과 무기 가운데서 무엇을 기본으로 보는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데 따라 군사사상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체계화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것이 무기이냐, 사람이냐 하는것이 모든 군사사상의 기본문제점이며 여기서 어느것을 기본으로 보는가 하는데 따라 이런저런 군사사상의 본질적특성이 규정되게 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러한 문제설정은 그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부르죠아군사리론이 제창하는 무기만능론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부르죠아군사리론가들은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보는데로부터 군사기술적우세를 내세우는 방향에서 군사리론을 전개하며 전술을 세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무기만능론이다. 무기만능론은 무기가 우수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무기가 좋지 못하면 싸움에서 패한다는 리론이다. 부르죠아군사리론가들이 떠드는 《함대중심론》, 《항공우위론》, 《땅크중심론》은 다 무기만능론의 변종이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정책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우상화하는것도 다 부르죠아무기만능론의 변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무장상태가 좋으면 싸움에서 유리한것만은 사실이지만 무기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무기를 기본

으로 전개된 선행한 군사리론과는 달리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된 군사사상과 리론이라고, 수령님께서는 무기만능론을 반대하고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창시하시였다고,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출발적인 원리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전쟁은 예술

주체 44(1955)년 10 월 3 일 평양제 1 중학교에서 있은 일이다.

세계력사수업시간에 교원은 고대 어느한 나라의 전쟁사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전쟁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원의 설명이 끝나기 바쁘게 한 학생이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 전쟁은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고 물었다.

자명한것 같았지만 교원은 설명할길이 없었다.

그는 말머리를 떼지 못하고있다가 좀 연구하여 다음시간에 대답을 주겠다고 얼버무렸다.

휴식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저마끔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전쟁도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예술과 같다는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한다는 학생 또 전쟁도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야 승리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술에 비교하는것이라고 하는 학생 등 각양각색의 견해들이 엇갈렸다.

이러는 속에 언제나와 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또 그 해답을 요구하는 청을 받게 되시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교향악에 대한 리해를 주신 그이께서는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교향악은 고도의 조직성과 정밀성, 섬세한 조화, 최대의 정력과 긴장성, 이 모든것이 집대성되여있는 예술이다. 전쟁에서는 모든것 즉 인적, 물적자원과 정신적력량이 고도로 집대성될 뿐아니라 뚜렷하고 치밀하게 째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며 과학과 기술의 성과들

이 다 동원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이 모든것이 빈틈없이 섬세하고 치밀하게 맞물리게 하는것이다. 만약 이것들가운데서 어느 한고리만 튀여도 전쟁에서 패할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전쟁은 예술이라고 하는것이며 여기로부터 군사예술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몸소 지휘하시면서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전쟁력사가 알지 못하고있는 탁월한 군사예술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

주체 50(1961)년 3 월 3 일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교실에서는 대학생들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원자탄의 피해작용과 구급처치문제로 시작된 이야기가 점차 원자탄과 전쟁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여갔던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원자탄을 비롯한 핵무기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져다 한다고 하시면서 파괴력이 큰것만은 사실이지만 전쟁의 운명이 결코 원자탄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원자탄도 사람이 만든것이고 사람이 리용하는 전쟁수단이기때문에 원자탄과 같은 수단이 전쟁에서 사람보다 더 큰 역할을 할수 없다고 단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과 무기가 결합되여 무장력을 이루며 무장력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라고, 사람의 사상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라고 그루를 박으시였다.

그리시고는 원자탄과 같은 무기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할수 없다는것은 전쟁력사가 증명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미제는 저들의 원자탄공격이 일제의 패망에 어떤 큰 영향이라도

준것처럼 거짓선전을 하고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제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떨군 다음에도 일제통치배들은 침략적인 전쟁을 계속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미제의 어용군사전문가들과 그의 동맹국이였던 영국까지도 미제의 거짓선전을 비웃으면서 앞으로 대일전쟁이 2~3년 더 걸릴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 미제의 원자탄공격은 무고한 일본인민들과 일본에서 살고있던 조선사람들을 수많이 학살함으로써 미제의 야수성을 드러냈을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그에 대한 생동한 실례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자탄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왜 원자탄을 쓰지 않았겠는가고. 미제는 조국해방전쟁때처럼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고 곤경에 빠진적은 없었다고. 만일 원자탄이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면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떨어진 위신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탄을 사용하였을것이라고. 모험을 즐기는 미제국주의자들이지만 그놈들도 원자탄을 가지고서는 기울어진 전쟁의 운명을 바로잡을수 없다는것을 알았기때문에 원자탄을 쓰겠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도 끝내 쓰지 못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서 대학생들은 원자탄의 위력이 아무리 세다 해도 전쟁의 운명을 결정할수 없다는것과 전쟁승리의 기본요인은 사람의 사상이라는것을 똑똑히 새겨안았다.

주동이냐 피동이냐

주체 51(1962)년 9월 21일 어은동군사야영때의 일이다.

며칠째 반복되는 진지방어훈련에서 어지간히 지루감을 느낀 한 대원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하여야 하겠는데 방어훈련만 하니 따분하기 그지

없다고, 방어는 어디까지나 피동이지 주동은 아니지 않는가고 허물없이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정히 웃으시며 왜 방어가 피동이라고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대원은 전투행동에서 공격은 어디까지나 주동적인 행동이지만 방어는 그자체가 벌써 피동적인것이라고, 이렇게 보는것이 옳지 않은가고 대답올렸다.

그이께서는 시종 미소를 머금으시며 동무의 말대로 하면 전투에서 주동에 서자면 늘 공격만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그 대원이 주밋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그이께서는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배합하겠는가 하는것은 군사리론과 전투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전투승리의 중요한 담보라고,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격이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리있게 론증해주시고나서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전투에서는 공격이 기본이다. 그렇다고 하여 공격만이 중요한것은 아니다. 공격과 함께 방어도 중요하다. 공격이 적을 완전히 소멸하고 적들이 차지한 지역을 빼앗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전투행동이라면 방어는 력량상 우세한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적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며 차지한 계선을 유지하고 공격으로 넘어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전투행동이다. 전투에는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다. 모든 전투행동은 적을 소멸하고 자기를 보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군대는 공격에 유리하면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면 방어를 하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공격과 방어에 다같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공격이 전투의 기본형식이라고 하여 방어를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방어전투도 자기의 의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진행한다면 그것은 주동이지 결코 피동이 아니라고, 혁명군

대는 공격에서나 방어에서나 할것없이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동에 서야 한다고,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곧 공격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소왕청유격구방어전투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1211 고지방어전투를 실례드시고 이 두 전투들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치렬한 방어전투였다고 하시면서 방어라고 하여 꼭 피동에 서게 된다는 법은 없다고, 전투에서 주동과 피동은 전투형식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방어에 대한 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군사야영의 나날을 보내고계시던 주체 51(1962)년 9 월 4 일에 있은 일이다.

이날 군사야영지에서는 방어전투훈련이 진행되였는데 훈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훈련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켜보신 그이께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방어에서 제일 위험한것은 적의 불의의 타격을 받는것이라고, 적의 불의의 타격을 받으면 전투에서 주도권을 잃고 피동에 빠질수 있다고, 세계전쟁사에는 방어하는 부대가 적의 불의의 타격에 의하여 패전한 실례가 수없이 많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방어전투에서는 감시조직을 잘하여야 적이 언제 어디로 공격해와도 제때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하시면서 적에 대한 정찰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적의 기도와 력량을 모르고서는 싸움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정찰조직을 잘하여 적의 기도와 력량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어전투에서는 차지한 지형조건과 조성된 정황에 맞게 방어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진지방어때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공격과정에 일시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방어전투라고 하여도 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방어진지는 적이 어디로 달려들어도 다 막을수 있게 꾸려야 한다,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진행되는 립체전이다, 적은 아군방어구역의 정면과 익측, 후방에서 동시에 공격하려고 꾀한다, 이러한 조건을 타산하여 방어진지를 꾸려야 한다.…

아직은 그 어느 군사학강의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어전에 대한 특강이였다.

핵무기와 전쟁에 관한 담화

주체 47(1958)년 1월 12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학습을 하고있던 학생들은 휴식시간에 당시 미제의 무력증강책동과 저들의 침략기지를 핵기지화하려는데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도대체 원자탄과 수소탄이란게 무엇이기에 미국놈들이 그리도 지랄발광할가?》

《글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동무가 없었다.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이에 대하여 가르쳐주실것을 청드렸다.

그이께서는 즉석에서 명쾌한 답을 주시였다.

원자탄은 우라니움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분렬될 때 나오는 큰 에네르기를 리용하는 폭탄이다. 수소탄은 원자탄폭발시에 생긴 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수소원자들의 핵융합으로 더 큰 에네르기를 얻는 폭탄이다. 수소탄은 원자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데 같은 무게의 원자탄보다 비할바 없는 위력을 나타낸다. 수소탄이나 원자

탄은 다같이 원자에네르기를 리용한 무기들이다. 이와 같이 원자에네르기를 리용한 무기가 핵무기이다. 핵무기는 대량살륙무기이다. 미제는 얼마전 나토리사회회의에서 군비경쟁을 다그치기 위한 모의를 하고 나토참가국군대를 핵무기와 미싸일무기로 장비시킬 새로운 군사적음모를 꾸미였다. …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핵기지화하려고 하고있다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핵무기와 미싸일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살펴야 하며 그놈들의 음모를 제때에 폭로분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일반을 다 반대하지 않는다.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다. 우리는 정의의 전쟁은 지지하며 부정의의 전쟁은 반대한다. …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학생들은 그이의 두리에 바투 다가앉으며 정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고 부정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를 말씀해달라고 졸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전쟁이 정의의 전쟁이고 어떤 전쟁이 부정의의 전쟁인가를 알자면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이란것은 어떤 계급이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한 폭력수단을 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다시말하여 어떤 계급이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거하여 자기의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조직적인 군사적충돌을 말한다고, 선진계급이 자기의 계급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반동계급이 침략적인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진행하는 전쟁은 부정의의 전쟁이라고, 침략전쟁이나 반혁명전쟁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다 부정의의 전쟁이며 국내혁명전쟁이나 민족해방전쟁 그리고 조국방위전쟁과 같은 선진계급이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야기에 심취되여있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면서 힘있는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늘 미국놈들이 제아무리 원자탄을 휘두르며 세계인민들을 위협공갈하려 하지만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다. 미국놈들은 위기에 직면할때마다 원자탄을 휘두르며 힘의 정책에 매여달린다. 그러나 이것은 죽어가는 자의 단말마적발악이며 저들의 수치스러운 몰골을 세계면전에 더욱더 드러낼뿐이다. …

그러시면서 남조선에 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을 통일할수 없다고,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없어질번 했던 무명고지

조선의 어느한 벌방지대에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고지가 있다. 지도에 표기조차 되여있지 않는 무명고지이다. 그런데 그곳에 품질이 매우 좋은 화강석이 매장되여있어 어느 사회기관에서는 채광장을 전개하고 돌을 캐내고있었다.

하지만 그 지방 일군들은 물론 주둔부대 지휘관들도 그에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있었다.

그러던 주체 69(1980)년 1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인민무력부문의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여 그 무명고지에 대한 료해를 하시였다.

일군으로부터 그곳에서 화강석을 캐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그 일대는 벌방지대이기때문에 작은 고지라 하더라도 전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고지를 없애버리면 4~5㎞나 더 들어와서 방어하여야 하기때문에 좋지 않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책임일군에게 문제를 전쟁관점에서 보고 즉시 돌캐기를 중지시키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 책임일군은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던 그 고지를 군사적각도에서 깊이 주시해보게 되였다.

비록 자그마한 무명고지였으나 일단 유사시 벌방지대인 그 일대의 방어에서는 전술적의도가 매우 큰 지탱점으로 될수 있는 고지였다.

작은것에서 큰것을 포착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에 책임일군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위인의 명장관

오래동안 외교부문에서 사업한 한 책임일군은 주체 74(1985)년 6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는 기회에 장군들가운데서 어떤 장군을 명장으로 보시는가고 청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뜻밖이신듯 일군의 얼굴을 지켜보시다가 그거야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를수 있는데 동무는 어떻게 보는가고 되물으시였다.

일군은 동서방에서 3대장군이요, 7대장군이요, 10대장군이요 하는데 어떤 장군을 명장으로 보아야 하겠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읽은 장군인물사의 주인공들을 꼽아나갔다.

알렉산드로스대왕, 한니발, 케자르(씨저), 스파르타쿠스, 나뽈레옹, 꾸뚜조브, 칭기스한, 제갈량, 쥬꼬브, 쓰딸린 등…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일군에게 베토벤이 나뽈레옹을 인간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호걸》로 찬양하는 유명한

《제 3 교향곡》을 창작했다가 그가 장차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고 폭군이 되리라는것을 알고는 《역시 그 자식도 하찮은 인간이였구나.》하면서 교향곡의 표제에서 나뽈레옹의 이름을 지워버린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력사가들이 대서특필하였다고 하여 명장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승전고를 많이 울렸다고 하여 명장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베토벤이 교향곡 《영웅》을 창작하게 된 경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력사가들이 아무리 영웅이요 명장이요 하고 찬미하여도 인민들은 그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권욕에 가득차 권력을 탈취하려는 야심가들과 총칼로 인민들을 다스리는 독재자들, 침략욕에 들떠 대륙이나 세계정복을 시도했던 침략장군들은 아무리 용맹하여도 인민들의 버림을 받는다. 어떤 장군이 명장이 될수 있는가?...

이렇게 물음을 제기하신 그이께서는 명장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에서 력사적인 공적을 세운 장군들,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여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장군들이라고 즉석에서 명쾌한 해명을 주시였다.

저으기 흥분된 일군은 이어 그이께 력대 명장들이 지녔던 기질가운데서 어떤 기질을 일러주는가고 정중히 물었다.

점점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다가 력사에 큰 자욱을 남긴 대표적인 명장들의 장점과 단점을 례증하시면서 자신께서 지니신 명장관을 피력하시였다.

-고대로마의 노예폭동지도자 스파르타쿠스

노예로 팔리워 검투사로 된 스파르타쿠스는 70여명의 노예검투사들을 묶어세워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폭동군대렬을 늘여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련속 크게 이김으로써 노예주들에게 공포를 주고 고

대노예사회에 멸망의 전주곡을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스파르타쿠스는 폭동의 낮은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나 그가 당대 사회에 남긴 파문은 대단히 컸다고, 그러므로 맑스는 스파르타쿠스를 고대프로레타리아트의 진실한 대표자라고 했고 레닌은 고대노예소유자사회의 가장 우수한 영웅들중의 한사람이라고 하였다고 하시며 스파르타쿠스는 전장에서 쓰러지면서도 노예해방을 부르짖은 꺾이지 않는 의지의 소유자라고 교시하시였다.

일군은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그이의 인물평을 통해 명장이 지녀야 할 중요한 기질의 하나가 신념과 의지라는것을 깨달았다.

-나뽈레옹에게 패배를 안긴 로씨야의 장군 꾸뚜조브

67 살 고령으로 로씨야군 총사령관이 된 꾸뚜조브는 60 여만의 대병력으로 침략해오는 나뽈레옹에게 섬멸적인 반격을 가하여 세계제패를 꿈꾸던 그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긴 장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꾸뚜조브의 기질에서 중시하는 것은 무인다운 배포유한 배심이라고, 그는 군사적인 기발한 착상을 재빨리 내놓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배포유한 배심만은 장점이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기면서 명장이 지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기질의 하나가 담이 크고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쏘련원수이며 4 중영웅인 쥬꼬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쥬꼬브를 화제에 올리시였다.

쥬꼬브는 쏘도전쟁시기 쓰딸린의 제 1 대리인이였다.

쓰딸린은 전쟁시기 그에게 3대의 비행기를 주었다. 그런데 쥬꼬브가 여러 전선을 지휘하느라고 비행기는 모두 못쓰게 되였다. 그는 전쟁시기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도 열정에 넘쳐 사업하였다. 쥬꼬브는 베를린함락작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파쑈도이췰란드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이께서는 쥬꼬브원수에게는 헌신성과 정열이 마음에 든다고, 쥬꼬브원수에게서는 자기 위업에 대한 신념과 확신도 마음에 든다고, 쥬꼬브는 담력과 배심, 지략과 완강성, 요구성도 강한 군사지휘관이였으며 명장이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쥬꼬브에게서 아쉬운것이 있다면 아량과 너그러운 품성, 인덕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짜장군은 무섭기도 해야 하지만 인자하기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군은 그이의 가르치심에서 명장의 기질과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욱 깊이 알게 되였다.

-대원수 쓰딸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명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쓰딸린을 빼놓으면 안된다고, 쓰딸린은 이름있는 대원수이며 무시할수 없는 명장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서방세계가 아무리 헐뜯고 반동들이 비방중상하여도 파쑈도이췰란드를 꺼꾸러뜨린 그의 공적은 허물수 없다고, 쓰딸린은 결함보다 장점이 더 많은 명장이라고 하시면서 일군에게 동무가 보기엔 쓰딸린의 수염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쏘련사람들이 그의 수염을 가리켜 쓰딸린식수염이라고 이름붙였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은 그를 될수록 깎아내리려고 그의 특이한 《수염모양》을 비교하여 그를 《범

의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유모아적으로 불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확정적인 어조로 쓰딸린은 군사적지략과 대국의 최고사령관다운 담력, 배짱도 있었으며 대원수다운 위엄도 있었다고, 쓰딸린의 인덕에 대하여 별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것으로 보아 인간적인 부드러움과 인정미가 다소 부족하였던것 같다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쓰딸린은 위대한 명장이라고 하시였다.

인류사에 출몰한 수많은 장군들의 우단점을 명철하게 분석하시고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명장이 지녀야 할 기질은 비범한 예지와 지략, 강의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열화와 같은 열정과 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말하여 사상으로 이기고 신념과 의지로 이기고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고 열정과 인덕으로 이기는 장군을 명장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 수령님은 지난 시기 명장들이 다 지닐수 없었던 출중한 기질을 최상의 경지에서 종합적으로 체현하신 천출명장이시라고, 우리 수령님은 동서고금의 명장들이 지녔던 장점들을 다 지니고계시는 천하제일명장이시라고, 자신께서는 수령님을 천출명장, 천하제일명장으로 신뢰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군사백과사전》의 탄복

쏘련의 이전 국방상이였던 야조브, 그는 쏘련군부에서 《군사백과사전》으로 불리우던 박식가이다. 입대후 병사생활로부터 시작하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련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관구사령관을 거쳐 국방상까지 하다보니 군사분야에서는 막히는것이 없었다.

언제인가 야조브는 미국방장관이였던 카루씨를 만나 담화를 나누다가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담화과정에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잠간 화제에 올랐는데 그는 어느 전투는 어떻게 벌어졌고 어느 장군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교전쌍방의 전술적우점과 약점은 무엇이였는가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카루씨는 미국의 국방장관인 자기보다 쏘련국방상인 야조브가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하여 더 세세히 알고있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받고 당신은 군사백과사전이로구만 하고 감탄하였다.

이것은 야조브의 박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화이다. 하기에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군사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왔으며 은근히 자기에 대하여 자부하고있었다.

그러던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주체 87(1998)년 7 월 29 일 조선을 방문하였던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야조브와 기념사진을 찍으신 다음 담화실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조브를 친히 자신의 옆에 앉히시고 근 5 시간동안이나 담화를 나누시였는데 그 대부분은 군사에 대한것이였다.

그는 시종일관 위대한 장군님의 해박한 군사지식을 두고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어느한 군종이나 병종이 아니라 륙해공군의 모든 병종에 대하여, 현대군사과학의 모든 최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하여 완전무결하게 파악하고계실뿐 아니라 현대전의 모든 전략전술과 세부적인 전투조법에 이르기까지 군사의 모든 분야를 환히 꿰들고계시였다.

그이의 군사적예지와 천재성에 그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매혹되였다.

그는 너무도 감동되여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는 오늘 또 하나의 군사아까데미야를 졸업한것 같다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폭넓은 군사적식견과 해박한 지식에 완전히 손을 들었다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는 정치의 대가이실뿐 아니라 군사에서도 특출한 대가이시라고, 자기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올

리였다.

야조브는 그후 자기의 회상담에서 **김정일**동지, 그분은 한마디로 군사에서도 이 세상의 진짜《하느님》이시다라고 칭송하였다.

맺는말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고 따를수 없는 해박한 식견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신 절세의 위인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를 한권의 도서에 다 담기에는 너무도 아쉬운감이 있다.

조선인민은 절세의 위인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온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류가 낳은 세기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더더욱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우고 그이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